

시로 읽는 성보순례
못난이 화엄 세상
국보 67호 화엄사 각황전
조선시대 ▶2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7월 19일) · 주간

제904호 2012년 9월 5일 수요일

적게 먹을 줄 알아야 한다.
그로 인해 식탐의 고통이 적어지니
적게 먹고 소화시켜 목숨 보전하라.
「법구비유경 제3권」

불교, 디지털 시대에 '돋보기'

불교학자들, 불교평론 만해축전 세미나서 디지털 사회상 고찰

쾌락 추구 범죄 예방위한 '수범수제' 강조
가상현실 · 감각 팽창 등 포교 방편 활용

현대사회의 중심에는 디지털 환경이 있다. 이제 인간은 디지털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불교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적용할 것인가는 시대의 숙제가 됐다. 이런 고민은 9월 7일 열리는 〈불교평론〉 주최 만해축전 기념 세미나를 보면 잘 나타난다. '디지털 문명시대와 불교'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 각 분야 학자들은 디지털 환경 속 불교의 역할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이날 발표문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은 새로운 불교교리 해석의 필요성과, 불교예술의 혁신, 선정성과 폭력성을 치유하기 위한 불교계 역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특히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선정성과 폭력성' 발표를 통해 수범수제(隨犯隨制) 정신에 의한 법 제정과 명상을 통한 언행 순화의 노력을 통해 디지털 시대 사회 폭력 현상을 줄이는데 불교계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는 감각적 쾌락 추구가 가상세계까지 확장되며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예전에는 보지 못한 수많은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형사범죄는 1990년과 비교해 248%, 2000년에 비교해 58%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살인과 강간과 관련된 신종범죄는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는 상황.

허 교수는 "쾌락과 느낌에 대한 치중, 가상현실과 현실에 대한 무분별 등으로 범죄가 증가한 측면이 크다"며 "부처님 당시에도 이러한 폭력이 난무해 계율을 지키는 출가공동체를 통해 인간 자존감 회복 및 사회적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불자들은 명상등을 통해 스스로 자극을 줄이고 언행을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현상에 대해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불교교리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며 불교계가 시대에 맞는 수행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사회의 가상성은 불교의 '환' 개념으로 설명 가능하다"며 "'이환 수환'이란 환 방편으로 인식해 현실로 믿는 것을 방지하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명법 스님과 박수호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감각에 불교가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법 스님은 "과거 전통에 머물지 말고 법당, 불상 등 불교예술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감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불교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호 덕성여대 겸임교수도 "사이버공간을 적극 활용해 포교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이버 신행공간은 장애우나 노인 등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가능한 만큼 불교의 대중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관련 기사 9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8월 29일 조계사 앞마당에는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노동자 500여명이 참여한 이날 무차대회는 노동운동에 대한 불교계 최초 행사다.

해고의 아픔, 불심으로 보듬다

8월 29일, 노동자와 함께하는 무차대회 열려

불안정한 신분과 부당한 처우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저녁공양을 하고 춤과 노래를 즐기는 따듯한 나눔의 시간이 마련됐다.

조계종 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8월 29일 서울 조계사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시민 초청 무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차대회는 해고 노동자들을 비롯해 장애인 등 각계 각층 시민 500여 명을 초청해 함께 공양하며 이들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노동자를 부처님으로'를 주제로 열린 1부 행사는 쌍용차 해고사태로 인한 희생노동자 22명을 위한 추모 타종 및 묵념으로 막을 올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단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한 천도재를 개최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애환을 치유하는 노동위원회를 설치했다. 향후 보다 활발히 사회 약자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스님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애환을 들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일일히 조계사에서 준비한 떡을 나눠주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참석한 다른 스님들도 직접 국자와 주걱을 들고 밥과 국을 나눴다. 이어 스님들을 삼삼오오 노동자들의 틈에 섞여 함께 공양하며 이들의 애환을 들었다.

이어 '노동자, 불교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2부 행사에서는 신명나는 공연들이 펼쳐졌다. 노동자들의 애환을 담은 곡들이 불려진 2부에서 참석자들은 함께 박수치며 그동안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는 시간을 가졌다.

노덕현 기자

태풍으로 전국 사찰 피해 입어

대흥사 3개 동 파손 등 제주 · 전라 지역 집중

태풍 '볼라벤'과 태풍 '덴빈'의 전국을 강타하면서 전국 사찰의 전각 기와가 파손되고 인근 나무가 부러지는 등 태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8월 30일 조계종 태풍피해 집계 현황에 따르면 제주 관음사, 해남 대흥사 등 제주, 전라도 지역의 사찰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8월 27일 볼라벤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제주도는 초속 50m에 육박하는 강풍과 12m 높이의 파도와 폭우로 많은 사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 관음사는 입구 하천이 범람하며 진입이 금지됐으며 일주문 기와지붕을 비롯해 각 전각 기와가 파손됐다. 제주 보현사는 나무 전신주가 넘어져 단전 피해를 입었으며 산내 암자들도 단전 및 도량 유실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번 태풍의 위험반경에 노출된 호남 지역에서는 사찰들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남 해남 대흥사는 건물 56채의 용마루와 처마루 기와가 망가졌고 건물 3동이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찰 안팎의 나무 500여 그루도 부러졌다.

구례 화엄사는 각황전 기와 일부가 파손됐고 대웅전 후면 벽체가 손상됐으며 일주문 앞 담장도 일부 무너졌다.



전신주가 쓰러져 단전 사태를 빚은 제주 보현사 모습

순천 송광사는 경내 나무만 100여 그루가 쓰러졌고 전각 20동의 기와가 일부 소실됐다.

광주 무각사, 여수 은적사 등 다수 사찰이 경내 나무를 비롯한 기와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제 금산사에서는 '사랑나무'로 불리며 많은 연인이 즐겨 찾던 '연리지(連理枝)' 가지가 부러졌다. 연리지는 서로 다른 나무의 가지가 이어져 한 몸이 된 것을 말하며 예로부터 귀하고 상서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금산사는 이 밖에도 각 전각의 기와가 유실됐고 부러진 나무들로 한때 진입로가 막히기도 했다.

고창 선운사는 전각 용마루 기와들이 내려앉았고 참나무가 넘어가면서 보호 철책이 파손됐다. 위도에 있는 내원암은 아예 전화가 불통 상태여서 피해 상황조차 파악이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천 직지사에서는 300년 된 감나무가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충청지역에서는 공주 마곡사가 인근 전신주가 여러 개가 쓰러지는 등 긴급복구에 나서고 있다. 마곡사는 산내암자의 피해가 심각해 공주시에 긴급 복구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노덕현 · 정혜숙 기자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내 마음에 엄청난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일체 경계를 놓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음 속 보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904호 INDEX

종합 2·3
백양사 종단과 갈등 심화
한 · 중 불교는 한 뿌리
표충사 前주지 횡령
조계종 노동위원회 발족
사랑의 교회 공사 법정으로

시방세계 5
사찰음식 나눔 캠프



신행 6
청소년 특성화 캠프 현장

부처님 10대 제자에게 배운다 14
아난다 〈상〉

종단 종정 및 방장 4
2012 하안거 해제 법어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 담긴 에코컵

series 1. 마음
series 2. 대장부



한간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 75mm →

↑ 75mm ↓
← 55mm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67호 화엄사 각황전



못난이 화엄 세상

홍사성

못난이는 누구든지
지리산 화엄사 각황전에 가볼 일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벌레든
꽃이든 나비든 흙이든 물이든
꼭 한번 가볼 일이다
가서 깨달을 일이다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되는지
그 부처가 어떻게 화엄 세상 만드는지
뒤틀어진 몸으로 서 있는 기둥은 나무부처
돌계단에 드러누운 장대석은 돌부처
빛바랜 단청 속에는 나비부처
용마루에는 이끼 낀 기와부처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부처, 부처, 부처
하찮은 중생도 여기서는 부처가 되나니
거지같이 살아온 인생도 황제가 되나니
누구나 별 볼 일 없이 걸어온 길 억울하거든
전라남도 구례 땅 화엄사 각황전에 가볼 일이다
가서 못난이 부처나 되어볼 일이다
부처 구경이라도 하고 올 일이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홍사성 시인은… 1951년 강원도 강릉 출생. 2007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 시집〈내년에 사는 법〉등.

방장스님 입적 183일, 어지러운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측 산중총회·감사 거부… 종단은 정상화 천명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이 입적한 지 183일. 깊게 곪은 백양사의 갈등은 내홍을 넘어 총무원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장 스님의 부재는 물론 선, 교, 율이 하나로 모인 총림의 위상도 찾기 힘들다. 현재 강원에 수학 중인 학인은 대교반 5명. 선원에는 10명 가량이 이번 안거에 방부를 들였다.

총무원과의 대립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 조계종 총무부는 8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사 현 집행부에 대해 민형사 고발 등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무부가 지적한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산중총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3차례의 종단 감사 거부 △부촉문 종정 명의 도용 △주지 스님의 비위 등이다. 총무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방장 스님 입적 6개월이 지났지만 종헌 종법에 따른 산중총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산중 원로회의'라는 임의적인 모임을 만들었다"며 "이는 종헌 종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감사팀이 재정 자료 열람으로 확인한 사실들도 공개했다. 수입지출결의서에는 적법하지 않은 차입과 차용과 수 억원대의 경상비 부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총무원과 공동 예치해야 하는 문화재구역입장료와 토지 처분금 예치금이 종단 승인 없이 임의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무부는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반에 시몽 스님은 약간의 재정이 편법적으로 사용됐고, 그것을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총무원 "민형사 고발"
비위 금액 13억원 추정
은행 지급정지 추진

향후 총무부는 감사를 종결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근거로 △현 백양사 집행부 민형사상 고발 △승려법과 종무원법상 징계 △백양사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등의 조치와 함께 시몽 스님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런 총무원의 조치에 시몽 스님은 별다른 부인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총무원의 일방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했다.

시몽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죄가 있다면 벌은 달게 받겠다. 이는 개인적인 것이지 백양사 사중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산중총회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산중종회를 열어도 신·구가 대립하고 분란만 가져온다. 산중종회법 이전부터 원로가 사중을 이끄는 산중 고유의 방식이 있었다"며 "이런 법을 개정하기 위해 중앙종회와 총무원에 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몽스님 "벌은 받겠다"
산중총회는 분란만 가중
일방적 감사 수용 못해

종단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전날 팩스로 일정을 통보하는 식의 감사는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으며, 강원 학인 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원이 제시한 개혁안을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주지와 반대 측에 있는 고불총림 백양사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4년 간 백양사가 현 주지 스님의 토굴같이 운영돼 왔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몽 스님은 주지 임기 동안 기본적인 예불도 잘 모시지 않았다. 소임자들이 모두 바깥으로 돌았다. 제대로 사찰이 운영될 리가 만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중원로회의는 대부분 현 주지 스님의 측근들이고, 자격 미달인 스님들이 대부분"이라며 "빠른 시일 내 주지 교체가 이뤄져야 종무행정 공백이 줄어들고 백양사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시몽 스님의 남은 임기는 앞으로 10여 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그 임기도 짧아질 수 있다. 문제는 비워진 자리다. 종단에서 종헌종법에 따라 직무대행을 파견해 주지를 선출한다고 해도 갈등의 불씨가 사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실제 시몽 스님은 9월 2, 3일 산중원로회의와 임회를 열고 자신의 퇴임 이후 백양사 운영 계획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기도 했다. 〈차주 상보〉

방장 수산 스님이 가신 지 200일이 다돼가지만, 문제의 실타래는 풀리지 않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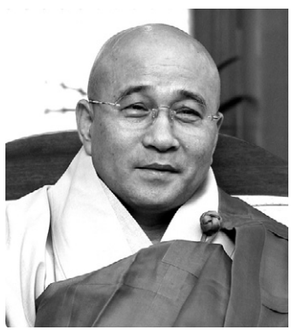
"韓中불교는 한 뿌리, 불교 세계화 나서자"

한중 수교 20년 '차하얼 포럼'서 연설한 영담 스님

"한국과 중국의 정신문화의 근간은 불교에 있습니다. 한국, 중국불교는 공유와 공영의 역사와 동근(同根)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이번 중국 '차하얼 포럼' 연설에서는 두 나라 불교의 역사성을 주목하고 함께 불교 세계화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불교방송 이사장이자 (사)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장인 영담 스님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치하얼포럼'에서 불교 대표로 연설한 주요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원하는 '차하얼 포럼'은 중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주요한 외교정보와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중요한 회의이다. 영담 스님은 '차하얼 포럼'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다.

오랜 교류를 이어온 한국과 중국의 불교가 세계화라는 같은 목표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중국인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스님은 강조했다. 서로 존중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혜능, 김교각 등신불
한국 방문 추진 제의
뮤지컬 '원효' 관심 당부

"한국과 중국불교가 두터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불교의 역사와 가치가 양국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양국 불교의 유대는 불교 세계화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영담 스님은 한·중불교 교류를 위한 몇 가지 교류 사업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서 중국 측에 육조 혜능대사와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을 한국에 방문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팔만대장경 1천년을 맞아 이를 복각해 한·중·일 삼국에 나눠 봉안할 것도 제의했구요. 또한 11월부터 중국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하게 될 뮤지컬 '원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스님은 중국불교의 관제화보다는 무분별한 상업화를 개선 방향으로 꼽았다.

"중국불교가 관제불교라는 비판은 많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상업화입니다. 모든 사찰들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명산명찰에 있는 사찰들 모두 관람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제대로 된 스님들은 중국불교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수행하고 있지만, 그보다 상업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중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불교 전통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신중일 기자

표충사 前 주지, 토지 처분 후 해외도피

8만여 평 매각…통도사 형사고발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의 수말사인 표충사가 前 주지 스님의 횡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前 주지 ㅈ 스님의 불법으로 매각한 토지는 8만 여 평에 달하고 액수도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ㅈ 스님이 처분한 토지는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소재의 표충사 소유 임야와 전답이다. 상황이 알려지자 본사인 통도사는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총무원 역시 인력을 파견해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ㅈ 스님이 해외로 도피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정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ㅈ 스님은 횡령과 도피를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총무원과 통도사는 보고 있다. 통장 잔고가 수 백만원 정도만 남겨졌고, 종단이 알아치릴 수 없도록 등기 이전도 최대한 늦췄다. 토지 등기 이전은 8월 10일 이뤄졌다.

통도사는 8월 28일 ㅈ 스님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민사소송과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등 본안 소송도 준비 중이다. **신중일 기자**



민족화해협력추진본부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5일 역사문화기념관서 발족식

민족화해협력추진본부가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7대 종교와 함께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남북화해를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선다. 이에 민화협은 9월 5일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민족 화합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이승환 민화협 집행위원장은 "현재 종교계와 함께 구체적 사업 내용을 협의중이며 이 모든 사업은 정부와 협력을 통해 전개될 것이다.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내년 5월 금강산 국제평화문화제를 계획중에 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상임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불교계 탈핵운동 하반기에도 뜨겁다

불교생명윤리協, 탈핵행사 잇달아

불교 안의 생명윤리 사상을 세상에 펼치고 탈핵, 탈원전에 대한 국민여론을 불러 모으기 위한 불교계 움직임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불교생명윤리협회는 9월 5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탈 원전 인사 초청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 인사로는 탈핵국회의원모임 간사인 우원식 국회의원과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집행위원장 김익중동국대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 9일에는 서울 열린선원에서 탈핵을 주제로 김익중 교수 초청 특강이 진행되며 불교tv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또 불교생명윤리협회는 10월 중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생명학과 생명윤리', '탈핵·탈원전의 당위성'의 두가지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부 주제로는 △불교 생명학의 원리와 지향점 △21세기 현실에서 불교생명윤리의 과제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본 탈핵·탈원전 △불교의 관점에서 본 탈핵·탈원전 등이 진행된다. 발표자 및 세부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법응 스님은 "후쿠시마 핵재항은 생명과 문명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탈핵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현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노동자가 곧 부처님" 불교계 인식변화 계기

조계종 노동위 의미와 과제



8월 28일 위촉된 조계종 노동위원들이 첫 행보로 대한문앞 쌍용차 분향소를 찾았다. 사진=박재완 기자

노사문제 연구 등 본격 활동
쌍용차 해결, 첫 사업될 듯
노동자 템플스테이로 차별화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노동문제에 대해 불교계가 본격적인 해답 찾기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노동위원 위촉식을 열고 노동위원회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위촉된 노동위원으로는 법광 스님(총무원 사회부장), 종호 스님(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원명 스님(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도철 스님(법주사 수좌), 혜조 스님(지산사 주지), 동환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생) 등 출가위원 6명과 유덕상(한국통신 춘천지사), 권승복(공무원노동조합 지도위원), 임두혁(미디어 충정 대표),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백신옥(변호사) 등 노동 전문가 재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 후 1차 회의를 가진 노동위원회는 초대 위원장으로 종호 스님을 선출했다. 또한, 수석부위원장에는 혜조 스님이, 차석부위원장에는 유덕상 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이 호선됐다.

노동문제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종단 차원의 위원회가 생긴 것은 불교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8월 29일에는 노동자와 시민을 초청해 무차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행보들은 불교계가 나서서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초대 위원장에 선출된 종호 스님은 "노동위원회 발족은 '노동자를 곧 부처님'으로 보겠다는 인식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교가 노동자에게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노동위원회는 노사분규 현안 대응을 비롯해 △노동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창출 △노동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진행한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장기 해고로 22명이 자살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가 적극 나설 계획이다. 9월 7일 열리는 노동위원회 1차 워크숍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주제로 이뤄진다.

양한웅 자성과쇄신결사본부 통합사업팀장은 "쌍용차 문제는 시대의 아픔이다. 이들이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워크숍에서 논의를 해야 봐야 하겠지만, 대한문에 있는 쌍용차 노동자 분향소에서 매일 1000배 100일 정진과 법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계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적다. 이에 대한 환기도 필요하다"며 "교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만큼 노동 단체와의 연대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적인 과제다. 또한 개신교·천주교 등보다 후발 주자인 탓에 차별화된 사업도 필요하다.

종호 스님은 "민주노총과 한노총 등을 방문해 노동 단체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으려한다"며 "분명 시행착오도 많겠지만, 노동자와 불교만 보고 가겠다. 현장을 직접 다니며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팀장 역시 "장기 해고노동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 단순한 지원만으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불교는 치유의 종교이고 다른 종교가 가지지 못한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 템플스테이 등을 열어 노동자들이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결국 법정으로

감사준비위 서울행정법원에 주민소송 청구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특혜와 관련 주민소송이 제기됐다.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8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 측에 도로 지하 1000여㎡의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자리에는 황일근 서초구 의회 의원(주민감사청구준비위원회 청구인 대표), 엄윤상 변호사,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서초구민 조성두 김진옥 씨 등이 참석했다.

대표 황일근 의원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지난 6월 서울시가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는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요구를 했지만 서초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랑의 교회는 지하 건물 공정률 80%, 전체 공사는 20%가 진행된 상태다. 이번 소송을 통해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비용과 관련된 사랑의교회 측과 서초구청 사이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황 의원은 "원상회복 비용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건축허가를 통한 신축공사가 재개되는 것이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며 사랑의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주민과 법을 우롱하는 서초구청의 각성 ▷위법부당한 도로점용허가처분 즉각 철회 ▷사랑의 교회는 공공도로 지하점용 공간 원상회복하고, 적법한 공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정혜숙 기자



8월 29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봉행된 대행 선사 100재에 앞서 150여 스님들이 예불을 올리고있다.

대행 선사 100재 본원서 봉행

사부대중 3000여 명 동참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 열반 100일째인 8월 29일 오전 11시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100재가 열렸다.

이날 100재에는 주지 혜원 스님과 한마음선원 지원장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과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등 150여 스님이 참석했다. 또한 3000여 사부대중이 5층 대법당부터 3·4층 법당에 이르기까지 스님을 추모하는 발길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청정 계행 실천 모범 돼야"

연대회의, 승단 범계 원인과 근절방안 대화마당

승단의 범계 원인과 근절방안에 대한 대화마당이 8월 28일 장충동 만해 NGO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열렸다.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주체하는 '청정성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연대회의' 두 번째 공청회로 이 자리에는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가 발제로 나섰다.

김 교수는 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범계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정화 방법과 승가의 근절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범계 발생의 원인을 ▷세속화 ▷출가 동기와 수행과정의 문제 ▷출가 이후 수행자 정신의 해이 ▷문중주의와 연고주의 ▷현전승가의 부조화 등으로 나뉘었다. 특히, 김 교수는 소임이나 생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멱조출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최근 출가 희망자가 감소하면서 출가 전의 삶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구족계를 수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멱조출가가 많아질수록 범계의 형태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자 종단인 조계종이 독자적으로 청정한 계행 실천 방안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구 중심의 승려노후복지 방법 제시 ▷교구 공찰 중심의 대중공의 ▷범계 행위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제기했다. **정혜숙 기자**

축구를 통한 불자 화합의 장을 열다

15일 총지종 주최 '제1회 만다라배 불교 축구대회'

축구로 불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지성정사)이 주최하고 불자축구팀 FC붓다가 주관하는 제1회 만다라배 불자축구대회가 9월 15일 하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날 축구대회에는 FC붓다, 총지드래곤즈(불교총지종 축구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불교기자협회, 불광사, 봉은사, 사자후(조계종 총무원 축구동호회), 전국사설사암단체연합회 등 8개 팀이 출전한다.

대회장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정사는 "불교총지종이 구현해 온 생활불교의 실천방안으로, 불자들을 위한 축구대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불자축구동호인의 저변확대와 포교의 방편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기원했다.

대회에 앞서 이동격 FC붓다 회장(현대불교신문사 부장)은 "불자축구대회는 전 불자들이 동참하는 포교의 장이 될 것"이라며 "올해를 시작으로 더 많은 불자가 참여하는 큰 대회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번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얻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받아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월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요.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께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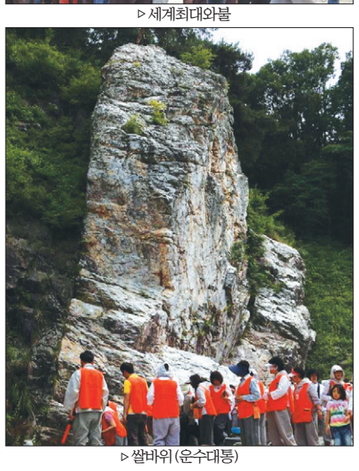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쾌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 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세계최대와불


▷진신사리 증과


▷만사형통 문수동자


▷쌀바위(운수대통)


▷미암사 부처님 공원


▷10년만의 자손득남


▷33층 석탑 진신사리 점안식


▷효험 산신불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

일 주 문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0월 12일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신라소리축제 2012 에밀레전'을 개최한다. (054)746-1476



제5회 선운문화제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9월 22일 고창 선운사 특설무대에서 제5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063)561-1422



홍련암 성지순례

서울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은 9월 8일 '정념 스님과 함께하는 낙산사 홍련암 성지순례'를 진행한다. (02)929-6611



제4회 불교기자학교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9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불교기자학교를 개최한다. (02)732-2183



심리치료 스터디 모임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운영위원장 미산 스님은 9월부터 매월 첫째 수요일 저녁 7시 상도선원에서 'DBT(다이어렉티걸 행동치료)' 공부를 진행한다.



청소년 우울증 아카데미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인경 스님은 9월 8일 서울 불광산사에서 청소년 우울증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2232-5364.



분당 산사음악회

분당 천태종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은 9월 16일 오후 7시 경내 야외특설무대에서 '2012 대광사 가을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31)715-3000

장현갑 교수 한국 심리학회 공로상



장현갑 영남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사진〉는 8월 24일 열린 한국심리학회 정기총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장 교수는 그간 불교와 심리학, 뇌과학이 서로 어떻게 만나 인간 심리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지난 40여 년 동안 연구했고, 한국형 MBSR 프로그램인 K-MBSR을 개발해 보급에 앞장서왔다.

'마인드플러스 스트레스 대처 연구소' 소장, 한국명상치유학회 명예회장, 한국통합의학회 고문으로도 활동 중인 장 교수는 2001년부터 세계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5개 분야에 걸쳐 11년 연속 등재된바 있다.

저서로 〈이완,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 108가지 물음〉, 〈마음 vs 뇌〉와 역서로 〈붓다 브레인〉,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김미옥 공역, 2012) 등이 있다. 신중일 기자

운문雲門의 항상철가恒常鐵枷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고경본무진(古鏡本無塵)이나
유인조점탁(唯人造點琢) 이로다.
옛 거울에는 본래 티끌이 없음이나
다만 사람들이 더럽히고 닦고 함을 지음이로다.

인인개개(人人箇箇)가 가지고 있는 옛 거울에는 일점(一點)의 진애(塵埃)도 없음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공연히 더럽히고 닦기를 그칠 날이 없음이로다. 만약 사람이 있어서 이 뜻을 바로 알 것 같으면, 참구(參究)하는 일을 다 해 마쳐서 억만 년이 다하도록 편안한 진리의 낙(樂)을 누리게 되리라.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의 법문을 듣고 참선수행(參禪修行)을 하는 것은, 인인개개가 지니고 있는 이 옛 거울을 바로 보기 위함이로다.

어느덧 여름 석 달 안거를 마치는 해제일이로다. 석 달 동안 각자 간절한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한결 같이 하였는지 반성해 보아야 함이로다. 대도의 진리를 깨닫고자 수행하는 이가 해제가 무섭게 바랑을 지고 동분서주하며 허송세월만 해서는 대도(大道)를 이루기가 도저히 불가능함이니, 화두를 타파하여 선지식께 인가받는 그 날이 해제라 다짐하고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정진에 정진을 더해야 함이로다.〈중략〉

부처님의 최고의 견성법(見性法)은 다겁생에 만나기 어려운 것이니, 선지식의 바른 법문을 온전히 받아들여 간절한 일념에서 뼈골에 사무치는 화두를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대중, 필경(畢竟)에 한 마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하천벽해(紅霞穿碧海) 요
백일요수미(白日繞須彌) 로다.

바위에도 꽃을 심어야 하니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나옹(懶翁) 선사께서 하안거 해제날 법상에서 말했습니다.

"90일 동안의 금족(禁足)기간이 오늘로 끝났도다. 결제대중 모두가 3개월간 본분자리를 찾았건만 그 자취가 전혀 없구나. 이제 노주(奴主)와 등롱(燈籠)도 여기저기 떠나건만, 예전 그대로 돌호랑이(石虎)만 높은 봉우리에 오르려고 몸을 세우고 있구나."

해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망각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공부인은 해제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석호(石虎) 즉 돌 호랑이처럼 '해제다 결제다' 하는 분별심이 없다면 해제가 곧 결제인 까닭입니다.

항상 살아오던 그 자세 그대로 어떤 분별도 하지 말고 앉았던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석인(石人)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껏 몸을 움직이며 제대로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動)과 부동(不動)의 길이 완전히 막혀 분별이 효력을 잃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관문關門의 정체가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중략〉



어쨌거나 생사일대사 공부는 해제건 결제건 언제나 한결같이 애를 쓰는데 그 묘妙가 있는 법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돌 위에 꽃을 심으려고 하는 무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납자의 살림살이는 해제건 결제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만행 길에도 늘 성성적적하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목인야반천혜거(木人夜半穿鞋去)더니
석녀천명대모귀(石女天明戴帽歸)로다
만고벽담공계월(萬古碧潭空界月)인데
재삼노록시응지(再三撈?始應知)로다

수행의 요체는 청정진심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悟理本來無異
覺後誰晩誰早
法界量同太虛
衆生智心自小

수행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다 남이다 하는 소견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역대조사가 이치를 관해서 깨달은 뒤 바로 '본래 다름이 없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평등자성의 분상에서 보면 어떤 것도 차별 없다는 것을 말함입니다.

우리의 소소영영한 성품이 이러하건만 어리석은 중생은 스스로를 구속하고 집착해 같으니 다르니 하는 분별을 해 됩니다.

수행의 요체는 자신의 청정진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서 부처를 이루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중략〉

부처님과 역대조사가 깨달은 이치는 그 분들의 몫이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스스로 맛을 보아야 차가운지 더운지 알 수 있듯이 부단한 정진을 통해서 얻은 것만이 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生也幻兮死也幻
死生元是一虛幻
伊?了達本眞空
寸步不離登彼岸



"심성 밝히면 세상 절로 밝아져"

인터뷰 –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다들 공부는 끝없다고 합니다. 공부 안된 사람들은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스님은 '일찍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사람들'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순수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스님입니다. 선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의 맛을 보게 된다면 이것 이외에는 다른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안거 해제를 앞둔 8월 28일,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만행에 오르는 납자들에게 더 가열찬 공부를 강조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경허 스님의 선맥이 전해지고 있는 덕숭총림의 수행과 선풍에 대해서는 운력이 많을 뿐 별다른 것이 없다고 했다. 오로지 화두를 들고 정진할 뿐이라는 것이다.

"공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혜사 능인선원에 방부들인 납자들은 10, 12시간 알아서 참구하고 정진합니다. 다만 덕숭총림은 다른 곳보다는 운력이 많습니다. 올 여름도 더웠지만, 열심히 수행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선을 통한 마음공부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탐진치를 벗어나는 데에는 선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놓으면 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만나는 사람 모두를 고마워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심성을 밝히면 세상은 절로 밝아질 것입니다. "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망상이 없어야 평상심이 생긴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상략〉경전에 통달한 무업이 자기 보다 더 현명한 자는 없는 줄 알고 늘 자만하였는데, 깨침을 얻은 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망상을 하지 말라(莫妄想)" 고 했다고 합니다. 흔히 상식이 통하는 곳에 진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신 마조화상이 평상심이 되려면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인 망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무업선사는 황제의 초청에도 병을 핑계로 끝까지 응하지 않는 초연함을 보이셨으며, 임종을 당하여 제자들에게 "일체 경계는 본래 저절로 공적하여 한 법도 얻을 수가 없다. 일체가 공함을 깨달아서 한 가지 법도 생각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 쓰는 곳이다"라는 설법을 마치고 가부좌를 한 채로 입적했습니다.

오늘날 수행은 뒤로 하고, 물질적 풍요와 명예, 권력만을 추구하는 소수의 승려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도 깊이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아 수행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色身健康莫貪眼
作務辛勤要向前
到老心田如未淨
菩提種子亦難生

봉행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이 • 취임 대법회

✲ 제 12대 총무원장 법인 운남 취임
✲ 제 11대 총무원장 법진 도일 이임

귀의 삼보하옵고
백중기도 지절에 용맹 수행정진 하시는 종도스님들의 사암에 불광이 두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대승종 제11대, 제12대 총무원장
이.취임식을 봉행하오니 많은 동참으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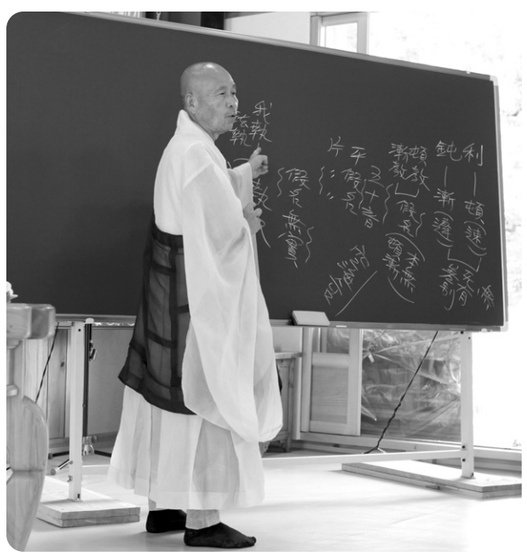
일시 : 불기 2556(2012)년 9월 12일 (음, 7월 26일)수요일 12시
장소 : 경남 창원시 대우백화점 19층 뷔페

대 한 불 교 대 승 종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 1동 산 30-1번지 천연암
■ 전화 055)253-1074. 010-7273-1074 팩스 055)253-1079

각성 큰스님
"서장(書狀)" 고운사 특강

〈서장〉은 〈대혜서(大慧書)〉, 〈대혜서문(大慧書問)〉, 〈대혜보각선사서 (大慧普覺禪師書)〉 등으로도 불리는 책이다. 대혜종고(大慧宗杲 : 1089~1163) 스님이 문하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이 점에서 〈서장〉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준다. 또 '선 공부를 어떻게 할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답한 선 공부의 지침서로써 각성큰스님의 명쾌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2년 9월 10일(월) ~ 9월 14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선 체험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정(₩100,000)
◐ 참가대중 : 사부대중 누구나
◐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

“고단한 유학생활 사찰음식 만들며 활력 되찾았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국·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한국사찰음식 나눔캠프–아름다운 인연’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렸다.

언어도 피부색도 문화도 달랐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한국문화가 좋아서 한국을 배우고 싶어서 이 땅에 온 유학생이라는 것이다. 꿈을 좇아온 한국 땅이 마냥 좋기만 했었으랴. 부모와 떨어져 이억만리 타국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쉽지만은 않았을 터. 낯설고 물선 땅에서 유학생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일상의 답답함과 고단함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1박 2일이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나눔 캠프 개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국 ·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한국사찰음식 나눔캠프-아름다운 인연’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 일본 파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타지키스탄 과테말라 온두라스 콩고 등 15개국 200여 명 학생들이 참여했다.

사찰음식 만들기 기본자세

이들은 모두 동국대 한양대 배재대 순천향대 등으로 유학온 학생들로 한국 문화체험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 이번 캠프에는 사찰음식 만들기, 각 나라음식체험, 숲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5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학생들은 조리실에 모였다. 드디어 이번 템플스테이의 메인 프로그램인 사찰 음식 만들기가 시작됐다. 참가자 앞에는 연잎과 찐찹쌀 주먹밥, 또 절인 배추와 양념 등이 놓여 있었다. ‘한국 사찰 요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모두들 궁금증이 가득한 눈으로 준비재료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찰요리 강사로 나선 분은 대전 영선사 총무 법송 스님이다.

법송 스님은 사찰 음식에 있어 ‘청정’, ‘유연’, ‘여법’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청정은 깨끗하고 맑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깨끗한 재료라는 말은 위생적이어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뜻도 포함돼요. 그다음 유연입니다.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 싱거운 맛 등 육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찰음식을 만드는데에는 여법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가짐과 동시에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은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여기에 포함돼요. 이것이 사찰 음식을 만드는 기본 자세입니다”

드디어 연잎밥 만들기가 시작됐다. 참가자들 모두 자신 앞에 놓인 찹쌀밥을 연잎에 올리고 그 위로 잣 호두 대추를 한 알 한 알 박아 넣는다. 이후 연잎을 곱게 접어 밥을 감싸고 겉을 무명실로 단단히 묶어 찜통에 쪄내면 연잎밥이 완성된다. 연잎밥을 먹어본 적이 있냐는 법송 스님의 질문에 식당에서 먹어 봤다는 학생들이 몇몇 손을 든다. 하지만 엉뚱한 질문도 나온다. “연잎도 먹을 수 있어요?” 연잎은 먹을 수 없다는 스님의 답에 질문 학생과 주변 친구들은 까르륵 웃고야 만다.

중국에서 온 동국대 신방과 신지애 양은 야무지게 요리를 만드는 모습이 그 누구보다 자신만만해 보였다. “한국에 온지 3년째에요. 그동안 유학생들을 위한 캠프에 많이 참여해봤는데 이 프로그램은 왠지 마음이 편해요. 훌륭한 자연속에서 스님들이 지도를 해주니 나도 모르게 고단했던 일들이 스르륵 녹으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 느낌에요. 동국대에 다니다 보니 불교문화에 익숙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사찰음식을 만들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 사찰음식 체험을 해보니 색다른 기분입니다. 또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고 좋습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15개국 유학생 2백여명 동참 연잎밥·김치 등 사찰음식 체험

콘서트·숲길명상·마곡사 방문 한국문화 체험하며 심신 건강 찾아

만들어진 연잎밥을 찌는 동안 김치 만들기가 이어졌다. 오신채를 뺀 고춧가루 양념에 절인 김치를 버무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모두들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만들기에 흠뻑 빠져 있었다. 한국에서 흔히 먹는 김치지만 자신들이 직접 버무려 본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캠프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들이 있었다. 아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한 조쉬 맥니콜 동국대 교수와 5살 아들 정지성. 축구선수 박지성을 좋아해 한국인 아내의 성을 따 정지성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아들과 함께 참여한 맥니콜 교수. 한국의 사찰 음식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직접 사찰음식을 만들어보고 싶어 학생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했다고. 아빠를 따라 열심히 하던 지성이는 어느 순간부터는 집중력을 잃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 시작한다. 그래도 아버지 맥니콜 씨는 김치 버무리기에 열중하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맥니콜 교수는 “채식주의라 사찰 음식에 관심이 많다. 김치는 평소에도 즐겨 먹는 음식이라 직접 만들어 보니 더 흥미롭고 재밌다. 지성이도 요리 체험을 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든 김치를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눠먹어보고 싶다”고 전했다.

김치 만들기가 끝나자 각자 선물 받은 항아리에 자신이 만든 김치를 넣기 시작한다. 그리고 항아리에 이름을 적어 넣으면 사찰음식 미션 완성. 김치를 만드는 동안 어느덧 찐 연잎밥이 완성돼 각자의 몫으로 하나씩 나눠졌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연잎밥을 한 입 베어문 참가자들은 모두가 흐뭇한 표정이다. 캄보디아에서 온 림위레악(순천향대) 학생은 “캄보디아에서는 바나나 껍질에 밥을 싸서 먹는데 이렇게 연잎에 밥을 싸서 먹으니 특이하고 새롭다”며 소감을 전한다.

사찰 음식 만들기가 끝나자 전통공예체험으로 마련된 전통등 만들기가 진행됐다. 각자 연꽃잎 종이를 붙이면 하나의 등이 완성된다. 여기에 소원지까지 다니 더없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 이어 4개국 요리 만들기 게임이 시작됐다. 8개의 조로 나뉜 팀이 게임을 통해 배정 받은 박스를 꺼내면 거기에 각 국의 요리 레시피와 재료가 들어 있다. 조마다 배정받은 음식은 감자뇨끼, 월남쌈, 딤섬 등으로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원들 모두는 공통의 주제에 맞추어 하나하나 재료를 손질하고 모양을 내다보니 서로 서먹서먹했던 관계도 스르륵 녹아들며 하나가 되었다.

경연대회가 끝나고 사찰음식으로 즐거운 저녁을 마치자 ‘나눔 콘서트 - 으라차차! 청춘들아!’가 펼쳐졌다. 장엄한 전통대북공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대학교 댄스동아리, 천상의 하모니 아카펠라 그룹, 대학교 응원단의 공연 등이 펼쳐져 열기를 더했다. 다음날 아침인 26일에는 숲길 걷기를 시작으로 마곡사 방문이 이어져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한국 사찰 예절도 배우고 계곡에 발도 담그고 저마다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한때를 만끽했다.

글로벌 시대의 대학생들

일본에서 유학온 동국대 나가미네아리사 학생은 “경주 여행을 해보고 한국 불교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일본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현재는 교환학생으로 동국대서 불교학을 공부하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유서 깊은 절 마곡사를 둘러볼 수 있어 아주 좋다. 또 여기서 많은 친구들을 알게 돼 행복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제 1박 2일의 일정이 다 끝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먹고 잘 놀며 한국문화를 체험한 200여 학생들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타향살이에 지친 고단함도 훌훌 털어 버렸다. 이제 그들 모두는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법진 스님은 “삶의 양식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문화는 나라마다 고유한 멋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시대, 세계화의 앞날은 우리 젊은 대학생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한국 문화의 진수를 체험하고, 폭 넓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통공예 체험 ‘연등만들기’



둘째날 진행된 마곡사 방문



동국대 맥니콜 교수와 아들 지성이의 사찰요리 체험

아산시 번영 기원 시민화합 경로잔치

화합한마당

◎ 2012년 9월 15일 (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한국불교대불종 만주사 (송악면 송학리 109-1) 041)547-7792 / 011-287-1710

법황 보 광 예하
獅子吼 를 내리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29호 보유자
이은관



김삼중



사)예봉국악단 단장
윤태길



임동환



박성현



「고향아줌마」
김상진



「쇠를 먹는 사나이」
김승도



진행 : 윤석
KBS 아침마당 초청가수



이채연



노란샤쓰입은사나이
한명숙



각설이



월연



나순금

후 원 : 연합불교방송, 불교TV, 일붕신문, 충남신문 협 찬 : 온아노인대학, 사)배뱅굿보존회

주 최 : 한국불교대불종 만주사 041)547-7792, 011-287-1710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포교원, 청소년 특성화 캠프 ‘고민타파 Happy Dream Camp’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저에게 의사, 외교관이 되라고 강요하세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요.”

지난 8월 26일 서울 역촌동 삼보사 지하 법당 안에는 청소년들이 둘러앉아 도화지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김진혁(가명 · 16)군은 꾸불꾸불한 길을 도화지에 그려놓고, 그림을 ‘스트레스 섬’이라 불렀다. 김 군은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보물섬 지도그리기’ 시간에 자신의 꿈은 산업디자이너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힘든 현실을 ‘스트레스 섬’이라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지난 8월 25~26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꿈과 비전을 찾는 청소년 특성화 캠프 ‘고민타파 Happy Dream Camp’를 서울 역촌동 삼보사에서 진행했다. 캠프는 나날이 늘어나는 학교폭력과 게임중독 등 무분별한 유해물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찾아주기 위해 마련된 특성화 캠프로, 포교원이 처음으로 개발해 시범 운영됐다.

캠프에는 인생의 순례를 시작하는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성격심리학을 바탕으로 ‘나만의 꿈과 비전’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김일명 중앙승가대교육원 교수가 진행을 맡아 학생들에게 자신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오전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심리유형 테스트가 진행됐다. 인간은 같은 사물을 봐도 서로 다르게 보고, 느끼며, 판단한다. 하지만 이 ‘다름’에는 개인마다 일관된 경향이 나타난다. 학생들은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의 기질과 관심주제에 따라 관음형, 유마형, 심향형, 선재형 등으로 조를 구성한 후 조원들과 함께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각자 큰 종이 안에 색연필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았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데 낯설어하는 모습이었다. 부모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기도 하며, 그림을 숨기고, 지도 선생님에게만 귓속말로 얘기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좀 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나만의 보물섬을 찾아서’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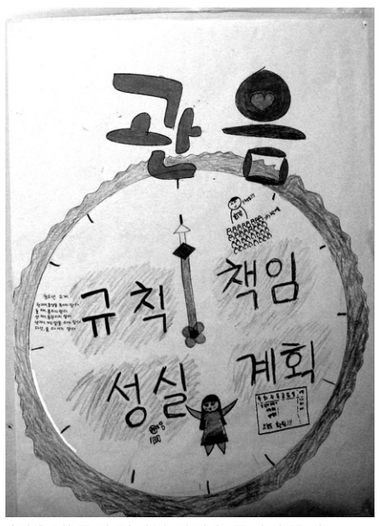
삼보사에서 김일명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소년 꿈과 비전 찾아주는
특성캠프 첫 시범운영
50여 학생 진로 고민

진짜 무엇을 원하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생각한 후 ‘나의 보물지도 만들기’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장래희망과 부모님의 희망이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의견조율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고민의 흔적들은 ‘미래 비전 세우기’ 시간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10년 단위로 자신이 희망하고자 하는 일을 계획해 ‘인생의 시계’를 그려보는 시간에서, 학생들은 좀 더 구체적인 활동계획들을 이야기했다.

나의꿈, 부모님의 꿈 비교
10년단위 진로계획 세워
9월에는 집중명상 캠프 실시



‘관음형’ 조가 자신의 강점을 표현한 그림

변다인(16)양은 “예전부터 미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다. 부모님은 미용관련 일은 힘들고 돈도 못 번다고 생각하셔서 반대하셨고, 지금도 내가 진로를 바꾸시길 희망하신다. 부모님에게 내가 미용관련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미대에 입학 후 공부를 하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미용관련 자격증을 따고 싶다”며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기회가 돼서 좋았다. 앞으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경북 봉화에서 올라왔다는 학부모 김숙란(46)씨는 “고3을 앞두고 있는 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다. 부모로써 자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여서 좋았다”며 “앞으로 불교계에 이런 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일명 교수는 “본래 4주 동안 진행 될 프로그램을 하루에 소화하다보니,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이 짧았던 것 같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처음 시범 운영된 만큼, 학생들끼리 좀 더 친해지고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프로그램을 보완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9월에는 ‘15분 집중명상! 명상 UP’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명상을 통해 뇌기능 향상과 마음과 몸의 유지를 통해 학생들 성적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며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고민타파 Happy Dream Camp’가 활성화되면 향후, 어린이법회 지도스님 및 지도교사를 통해 청소년법회 사찰에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통합종단 50년 포교활동 되돌아보다

9월 6일 제49차 포교종책연찬회 개최

10월 14일 국제포교사 고시 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통합종단 50년 동안의 포교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포교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교원은 9월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통합종단 50년, 포교방법의 성과와 미래 포교비전’을 주제로 제49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는 한국종단협의회 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이 발제자로 나서 ‘포교의 성과와 미래 비전’ 주제로 발표하며, 동국대 겸임교수 영석 스님,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이 ‘사찰의 지역공동체를 통한 포교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경호 마곡사 기획위원,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본부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포교원 측은 “지난 2003년 이후 포교종책연찬회를 통해 종단 핵심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에 대한 종무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포교종책연찬회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10월 14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2년도 국제포교사 고시’를 실시한다.

이번 고시는 ‘국제포교사 운영에 관한 령’에 따라 국제포교 활동을 위해 국제포교 인력의 배출 및 활동을 증진하고 보장하기위해 실시되며, 영어는 필기시험과 집단면접으로 이뤄진다.

제2외국어인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국제포교사는 심층면접으로 선발하며,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접수는 9월 17~28일까지. 접수비는 5만원이다. (02)2011-1894

이은정 기자

‘도전! 범종을 울려라’ 전 세대 문화축제

8~9일 ‘나란다 축제’ 동국대 · 전국 시험장 1만명 참가

은정진흥원 · 조계종포교원 주최

올해 불교교리 경시대회에서 확대 · 개편된 ‘제4회 나란다 축제’가 1만 명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9월 8~9일까지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개최되는 나란다 축제는 체험부스 설치와 나란다 드림콘서트, 문화 · 체험마당 신설과 일반부 참여 확대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나란다 축제는 중등부와 고등부, 군장병이 참여하는 ‘불교교리 경시대회’와 일반부와 초등부가 참여하는 ‘도전!범종을 울려라’, 전통문화체험마당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공동 주최하는 ‘전통문화체험마당’은 9월 8일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체험마당은 ▷도전 108초 민속놀이 한마당 ▷미로축구 ▷천연염색 ▷한지연꽃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이 상설 운영된다. 이밖에도 독도사진전을 비롯해 오후 1시부터는 청소년들과 사찰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나란다 드림콘서트’가 진행된다.

일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동국대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3인 1조로 64개팀 192명이 참여하는 일반부는 오전 11시에 퀴즈대회를 진행하며, 초등부는 4492명이 예선을 거쳐 오후 2시 30분부터 결선을 시작한다.

또 중 · 고등학생 2060명은 오전 11시부터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불교교리 경시대회’를 진행한다. 2135명의 군장병들은 9월 9일 오전 11~12시까지 25사단 비룡사를 비롯한 전국 33개 군법당에서 동시에 경시대회를 실시한다.

(02)515-9351

이은정 기자

금강대, 지역민 위한 인문학 강좌 실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12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천안 W웨딩컨벤션 2층에서 ‘금강아카데미-인문학 시민강좌’를 운영한다.

강의는 ▷정병조 총장 ‘한국인의 종교수용, 무엇이 문제인가’ ▷박영길 교수 ‘인도의 수행론-불교의 요가수행’ ‘요가행법의 이론과 실수’ ▷한지연 교수 ‘잃어버린 문서의 고향-호탄’ ‘살아있는 불교 박물관-돈황’ ▷차상엽 교수 ‘티베트인과 티베트불교, 과거와 현재’ ‘다시 보는 티베트인들의 삶과 문화 ▷석길암 교수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의 발원지-장안기행 ‘천안 직산, 원효의 깨달음을 말하다’ ▷김천학 소장 ‘삼국시대 불교의 일본 전파에 얽힌 이야기’ ‘현대 일본인의 불교신앙과 신들의 세계’ ▷정병조 총장 ‘한국의 종교와 불교의 미래를 말하다’로 진행된다. (041)731-3614

이은정 기자

20~30대 위한 채식 특강 · 템플스테이

불교여성개발원 사찰음식문화센터(센터장 남혜정)는 20~30대 젊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9월 15~16일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서 ‘젊은 세대 채식문화 확산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또 9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국대 정각원, 10월 9일 오후 7시 마포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는 선재 스님이 강연자로 나서 ‘나와 생명을 살리는 채식문화’ 특강을 진행한다.

남혜정 사찰음식문화센터장은 사찰음식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채식문화를 확산시켜 정신적 · 육체적 건강과 지구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2)722-2101~2

이은정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9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9월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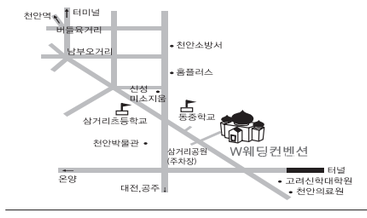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한국불교교육대학 천불사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공동주최!

천안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수강생 모집

9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W웨딩컨벤션 2층)

일 시	강 사	주 제
제1주 9. 5 (수)	정병조 총장	한국인의 종교수용, 무엇이 문제인가
제2주 9. 12 (수)	박영길 교수	인도의 수행론 – 불교의 요가수행
제3주 9. 19 (수)	박영길 교수	요가행법의 이론과 실수(實修)
제4주 9. 26 (수)	한지연 교수	잃어버린 문서의 고향 – 호탄
제5주 10. 10 (수)	한지연 교수	살아있는 불교박물관 – 돈황
제6주 10. 17 (수)	차상엽 교수	다시 보는 티벳인들의 삶과 문화
제7주 10. 24 (수)	차상엽 교수	티벳인과 티벳불교, 과거와 현재
제8주 10. 31 (수)	석길암 교수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의 발원지 – 장안기행
제9주 11. 7 (수)	석길암 교수	천안 직산, 원효의 깨달음을 말하다
제10주 11. 14 (수)	김천학 소장	삼국시대 불교의 일본전파에 얽힌 이야기
제11주 11. 21 (수)	김천학 소장	현대 일본인의 불교신앙과 신들의 세계
제12주 11. 28 (수)	정병조 총장	한국의 종교와 불교의 미래를 말하다 (수료식)



시내버스 이용시
터미널/역전에서 병천, 수신, 독립기념관 방면 330, 331, 350, 352, 381, 400, 401, 402, 410, 411, 412, 413, 420, 430, 431, 481, 500, 510, 520, 530, 532, 540, 550, 590, 592 (동중학교 앞 하차)

자가용 이용시
–천안IC → 목천(독립기념관)방향으로 주행시 천안삼거리공원, 동중학교 앞
–목천IC → 천안방향으로 주행시 천안삼거리공원 동중학교 앞

W웨딩컨벤션 ☎ (041) 569-2211

강의 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81–1 W웨딩컨벤션 (천안 삼거리공원 맞은편)
접 수 041) 557–3223 팩스041) 555–6550 (한국불교교육대학 천불사 종무소–수강료 5만원)
수료하신 분은 「한국인문학지도자」 자격 수료증을 드립니다.

불교계도 창업 자금 지원해 준다

조계종복지재단 11월 30일까지 6억여원 저소득층에 지원

 # 사례1 저소득계층인 김모(46)씨는 자금이 부족해 창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인에게 자금을 빌리기도 곤란한 상황이어서 전전긍긍하던 상태였다. 그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해 3000만원을 지원받아 '푸른수산'이라는 도소매업을 창업했다.

 # 사례2 인터넷으로 한자강의를 하는 이모(52)씨는 3급 장애인이다. 자신만의 한자 학습법을 개발하고 한자교재를 만들어 특허를 획득한 그는 책을 출판하고 싶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고민중이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출판에 드는 인건비 등 제반비용 1500만원을 창업자금으로 지원했다.

 # 사례3 최근 실직한 천모(29)씨는 아버지에게서 원단 도소매업을 배우고 있었다. 이 경험을 살려 창업을 하고 싶어 한 박씨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찾았고, 창업자금 3000만원을 지원 받아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 사례4 여성가장인 노모(58)씨는 의류수선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을 확장해 매출을 늘리고 싶었던 정씨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경영개선자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체인세탁업을 운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창업자금지원을 해주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저소득 창업자 창업자금지원 사업'이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지난 4월부터 서울시가 열

20세 이상 소외계층에 지원
1천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3% 금리로 균등분할상환
대출상환 의지 보일수록 유리

매나눔재단, 서울광역자활센터 등 6개 기관에 시행 한 '2012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불교계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9억 여 원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무담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자립 및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는 복지재단을 방문해 실무자와 상담을 받은 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심사에서 선정받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창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이며 만 20세 이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저소득층(최저 생계비의 170% 이내), 실직자 · 장애인 · 여성가장 · 한부모가정 · 2자녀이상 (막내가 만 13세 이하)가정 · 다문화가정 · 새터민 ·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저축완료자 등이다. 단,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및 사치 · 향락 · 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창업자금은 1500만원을 기본 지원하고, 자금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영개선자금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은 2000만원 이내, 7등급 이하는 1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저소득 창업자 창업자금지원 사업'은 자금지원 대상자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무담보 3%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에게 창업교육 및 경영지원 등 사후관리도 실시해 창업이 잘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불교용품 무역업을 시작한 권준오(47 · 사진 가운데)씨가 복지재단에서 파견한 컨설턴트와 상의 하는 모습.

현재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10여 명. 저소득계층, 장애인, 여성가장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다양하다. 이들은 최소 15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받아 소규모 카페와 마사지샵 등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에게 창업교육 및 경영지원 등 사후관리도 실시해 창업이 잘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재단을 통해 창업한 사업자에게는 수시로 경영관리, 마케팅, 재무 · 회계, 세금, 노무,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창업 준비자에게는 동종업계 현장체험기회와 컨설팅을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창업자들은 자활을 통해 새 삶을 살고 있다는 평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정지은 팀장 "수산업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간절한 시기에 자금이 필요했는데 마침 복지재단 지원사업을 보고 대출을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감사인사를 해오셨다"며 "금융권에 대한 정보력이 없는 새터민들도 대출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소소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자격에 해당된다고 모두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자활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지은 팀장은 "창업희망자 지원 서류심사를 할 때 면접도 보고있다"며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지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진실성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저소득 창업자 창업자금지원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받으며 사업문의 및 상담접수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전법회관 6층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우리복지관 주력사업 강원 속초시노인복지관 '위풍당당할매'

미술심리치료로 사별 아픔 달래


참여자들은 미술심리치료를 통해 우울감을 감소시킨다.

죽음으로 인한 가족의 사별은 일생동안 겪게 되는 상실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별 가족의 13%가 4년 후에도 우울증을 보였으며, 사별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고 신체 ·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4~7년이 지나야 한다고 한다.

큰 사건이지만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가족의 사별에 대한 슬픔과 상실 위기를 빠르고 건강하게 극복해 삶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도록 유도해주는 사별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다.

특히 노인들에 대한 사별 후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사별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중재해야 한다.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2월부터 속초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사별한 지 5년 미만의 어르신 10여 명을 모시고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기 위한 외로움 ·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위풍당당 할매들'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 어르신들은 매주모여 참여자 집단상담,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을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어르신들은 매월 1회씩 전문상담가를 모시고 참여자 집단상담 및 미술심리치료를 실시해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부여받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또한 레크리에이션, 다도교육, 건강관리교육 등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도 키우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방법 교육, 홀로 문화활동하기 체험, 주택연금 및 경제금융 교육 등을 진행해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 자립심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있다.

묘근 스님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배우자 사별로 인한 노인 1인가구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강원도 7개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확인해보면 속초시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묘근 스님은 "사별로 인한 우울증은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동거 자녀가 없는 경우에 훨씬 우울증상이 높다는 보고를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
집단상담, 봉사활동 효과적
금융교육으로 자립심 길러

통해 비율이 높은 속초시 독거어르신에게 사별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속초시노인복지관 라윤미 사회복지사는 "올해 초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만 해도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둡고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으나, 미술심리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많이 밝아지셨다"고 말했다.

이어 라 복지사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참여자들끼리 지속적인 모임형성을 도모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속초시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과 지속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보다 질 좋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33)636-3373 이나은 기자

동국대 이사진 장기기증 동참

이사장 정련 스님 등 10여 명 서약



정련스님, 김희옥 총장 등 10여 명이 장기기증 서약을했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가 아름다운 생명나눔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을 포함해 8월 29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장기기증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사장 정련 스님은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동국대 이사진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함으로써 성숙한 생명나눔 문화를 열어가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기기증에 동참한 동국대 이사는 정련 스님을 비롯해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삼보 스님(기원정사 회주), 명신 스님(보현사 주지), 심경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진화 스님(봉은사 주지), 종민 스님(동국대 법인사무처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허천택 동국대 명예교수, 구자명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등 10명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불사에 동참해 주신 동국대 이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원로의원 스님을 비롯해 종단 중진 스님들이 직접 나서 모범을 보인 만큼 앞으로 장기기증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복지단신

조계종복지재단, 자원봉사단 전체 연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9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직할자원봉사단 전체 연수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목 스님(유나방송 운영자)이 '고통에서 성장의 기회를 보자'를 주제로 특별법문을 펼치며, 신규자원봉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단원증과 단복을 수여하는 환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진노인복지관, 만남 프로젝트 실시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이성교제 프로젝트인 '최고의 사랑'을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한다. 행사는 서울시 거주 만60세 이상 75세 이하 독거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관계형성프로그램, 남이섬 여행, 재능기부역량강화프로그램(포크댄스) 등을 진행한다. (02)466-6242

양양군노인복지관, 평생교육실시

양양군노인복지관(대표 법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개설강좌는 교양교육(한글교실, 영어 · 일본어 · 중국어회화), 정보화교육(정보화기초1 · 2, 인터넷활용), 취미여가교육(라인댄스,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건강교육(팔극권, 요가) 등으로 12월 초까지 2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033)673-2685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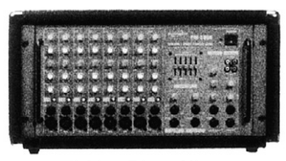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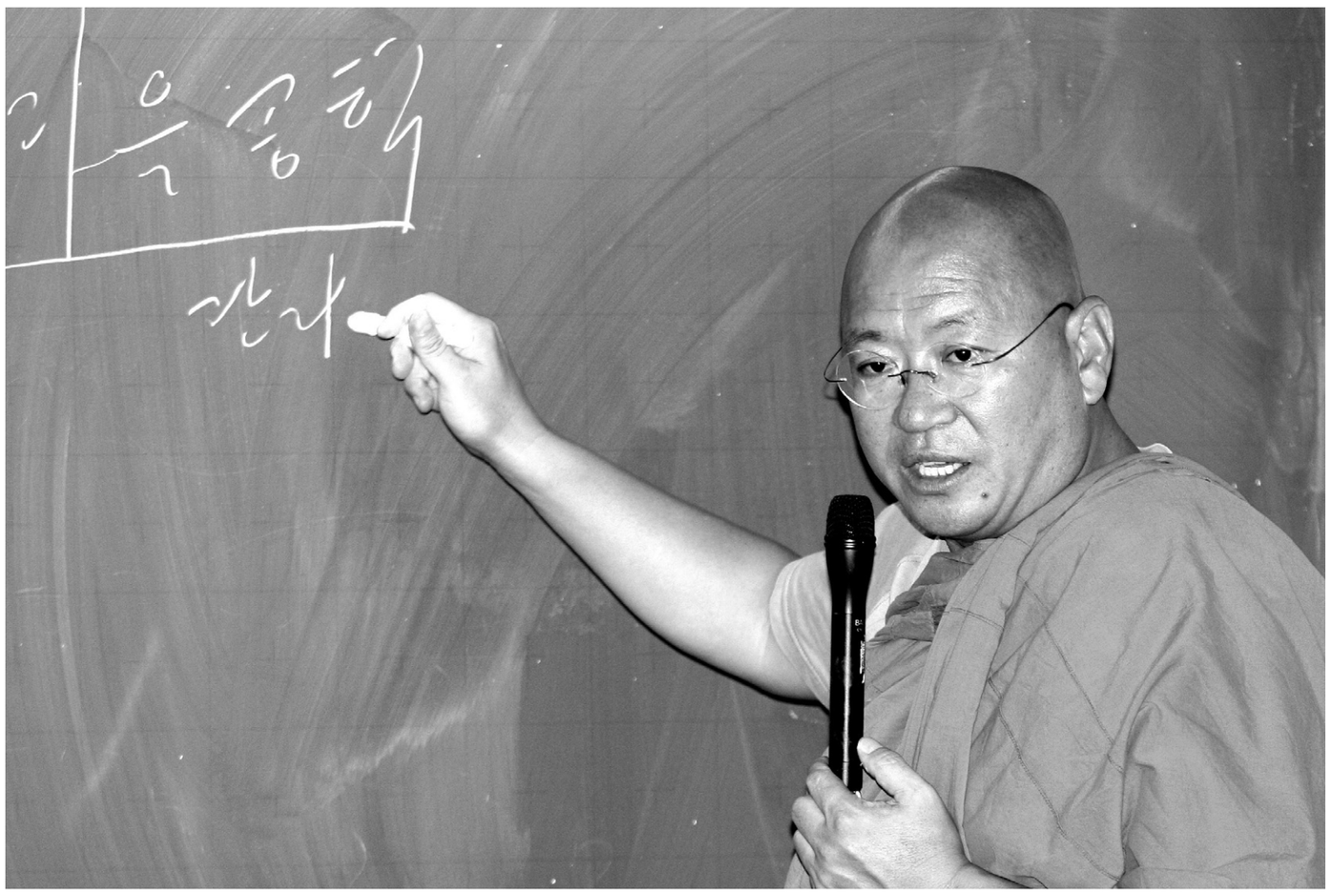

• 일반 마이크 V-620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마음산업·수행·포교 목적은 '민중의 행복'



붇다빠라 스님은 8월 24일 조계사에서 열린 '마음산업, 불교에 길을 묻다' 특강에서 불교가 마음산업을 통해 대중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음산업, 불교에 길을 묻다'

붇다빠라 스님 (김해 반냐라마 지도법사)

조계사(주지 도문)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이 올해 3월 교육과학부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정식 인가받고 9월부터 본격적인 개강을 했다. 교육원은 개원 기념으로 8월 24일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붇다빠라 스님의 '마음산업, 불교에 길을 묻다' 특강을 3차례에 걸쳐 마련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스트레스, 우울증, 공화장애 등 마음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음산업'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붇다빠라 스님은 이날 마음산업의 정의 및 현황, 마음산업과 불교의 비전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특강에 이어 ▷ 9월 21일에는 '마음의 실체 및 특성, 마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10월 26일에는 '수행의 필요성과 지향점 및 기술'에 대해 특강이 열린다.

정리=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자료제공)

'마음산업'의 정의

여러분들은 마음을 팔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대답은 '된다'입니다. 마음산업이란 한 마디로 마음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 욕망, 분노, 교육, 경영, 스포츠, 예술, 의료 분야 등에서 마음의 관리, 마음에너지 보충, 뇌와 마음의 휴식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심리학, 심리상담, 정신의학 등에서 다양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교수행자는 수행의 구체적인 영역인 마음작동 원리를 수행과 깨달음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마음관리에 관한 정보를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산업은 불교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마음작동 이론인 마음과학과 그것에 기초해 마음작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론과 기술인 마음공학을 활용해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뇌가 아닌 마음과학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로가 의존해서 상호작용하지만 뇌는 마음이 아닙니다. 뇌는 뇌 차원에서 마음은 마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뇌를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은 많이 개발됐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문제에 대해 피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산업의 필요성

모든 산업은 사람의 필요에 의한 사용가치에 주목해 창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전문가를 발굴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도 현실적인 삶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교환가치로 가공해 상품화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다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등장하고 그런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이론과 기술을 더 치밀하고 유용하게 발전시켜 인류 진보에 기여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치료행위가 사용가치가 아닌 상품가치로 전환되고, 치료가 봉사가 아닌 직업이란 사실에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그들도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충당해야 됩니다. 때문에 치료를 직업으로 삼는 전문가가 있어 인류의 삶은 풍요로워 졌고 의학은 점차 발전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욕망, 이기심, 분노, 적의, 원망, 서운함, 편견, 선입견, 광기 등으로 요동치는 마음작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 과도하게 소모된 마음에너지로 인해 무기력한 사람, 우울증으로 괴로운 사람, 뇌와 마음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뇌와 마음의 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불교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마음관리 이론과 방법을 제공해 주고 그들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요한 사회참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의사, 즉 심의(心醫)라고 했습니다. 마음관리 이론기술을 제공하고 자신의 생존무제를 해결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민중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재화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얼마나 유효하고 편리한 이론과 기술을 제공하느냐가 핵심이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본질은 아닙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 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우리는 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제품을 우리는 정당하게 소비했고, 그는 우리로 인해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민중은 자신들이 필요로 한 것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적과 사회의 목적이 일치하면 사회는 가장 크게 변화됩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신자본주의 영향으로 다차원의 욕망과 경쟁, 불평등과 폭력에 노출돼 민중의 삶은 거칠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지치고, 마음에너지는 고갈되고, 스트레스나 갈등 지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민중이 자유로운 삶, 여유로운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이론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수행자의 중요한 사회적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산업, 새로운 영역

불교수행자는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마음관리 이론과 방법을 단순히 깨달음을 성취하는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업이 아닌 일반인들은 수행을 반드시 깨달음에 국한해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인은 취미활동으로도 명상을 훌륭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영역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라한뜨(Arahant)나 깨달음을 위한 도구 ▷욕망이나 이기심, 분노, 편견이나 선입견 등 마음관리 도구 ▷교육, 경영, 스포츠, IT 등 전문분야 화용 ▷생산성 향상 도구 ▷질병치료 요구 ▷성인병 관리 도구 ▷뇌와 마음 휴식 도구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관리 도구 ▷뇌과학과 마음과학 연구 도구 ▷마음건강 도구 ▷취미생활 등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불교의 목적과 사회의 필요성이 일치해 불교와 수행을 사회에 회향할 수 있습니다.

마음산업 시장의 잠재력

2005년 5월 말 미국 국세청이 명상을 판매했다고 신고한 액수만 미화 67억불이라고 달합니다. 한화로 약 8조원 정도 입니다. 2010년 말 전 세계 프로 축구 시장이 400억불 이라고 합니다. 마음산업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마음산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대신 마음산업 프로그램 개발 시 이것이 유효성을 지니는지, 사람들이 간단히 쓸 수 있는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산업과 불교포교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입니다. 불교와 수행의 목적은 민중이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불교교단과 수행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평생교육원 특별강의를 청강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하다.

기획 PR

사찰탐방 대비정사

자성(自性)의 등불로 '영남 어산 범패의 맥을 이어가는 사찰'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과 포교활동을 위해 수행정진하면서 불법포교와 참선수행 도량의 역할과 더불어, 연초면 연사리 혜곡산 자락에 위치, 오늘도 청정도량의 등불을 밝히며 범패승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어산 범패 어장이신 지명스님을 찾았다.

대비정사는 불자들의 가슴속에서 이어져오고 있는 사찰인 만큼 불자들의 마음의 안식처로 부처님의 광명이 가득한 도심속에서 대중에게 열려 있는 도량이다.

또한, 만남을 편안하게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는 불자들의 도량이자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믿고 실천하며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성불(自性佛)을 밝힐 수 있도록 이끄는 수행도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에게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가르치며,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들과 신행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참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대비정사 전경 및 자명주지스님

미니인터뷰 대비정사 주지 자명스님

■ 범패(梵唄)란 무엇입니까?

⇨ 범패는 불교에서 재(齋)의식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음악을 말합니다. 특히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의 하나로 장단(張短)과 화성(和聲)이 없는 단성시율(單聲施律)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며, 신라 때 당에 유학 간 진감선사(眞鑑禪師)에 의해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최고의 문장가 최치원은 범패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인도(梵)의 소리(唄)라는 뜻의 범패는 절에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다. 부처님 공덕 찬양이 주 내용이라 음성 공양이라고 하고 중국 위나라 조지건이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 하여 어산(魚山)이라고 도 부른다" 범패에 출중한 승을 어장(魚丈)이라 부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 통범(通梵)소리란 무엇이며 두각을 나타낸 어장은?

⇨ 통범소리는 양산의 통도사와 부산의 범어사에서 전승되는 소리를 통 털어 하는 말입니다. 일제의 사찰령 당시에 통도사는 임설운 · 이월요 스님, 범어사는 대산 · 호산스님을 중심으로 어산회가 결성되어 도제양성이 이루어져 오다가 해방이후 가장 두각을 나타낸 어장은 범어사 출신의 용운스님 이였습니다.

■ 범패승으로 활동한 동기는?

⇨ 어산범패 어장이신 통영 안정사 범성스님과 범어사 용운스님에게 1956년 전수받고 1957년 6월 1일 불교부산어산회 강습회 제 3기생으로 수료한 뒤 본격적으로 통영 안정사와 부산 범어사에서 활동 하였으며 부산 동명불원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년 전 거제 대비정사를 창건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만산스님, 법안스님, 한파스님, 종욱스님 들과 오랫동안 범패승으로 활동하여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 범패는 장단이 없는 짧은 소리이지만,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선정(禪定)에서 소리를 해야 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좋지만 배우기는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범패가 중국이나 일본것보다 음악적으로 훨씬 더 뛰어납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범패를 가장 훌륭하다고 감탄하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것을 푸대접하고 있지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우리의 것을 후세에 이어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대비정사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공부를 짓는 청정수행 인연처가 되어주는 그러한 도량을 이루기 위하여 도량정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걸 맞는 자성의 등불을 밝히는 수행도량 대비정사에서 많은 불자 들이 함께 정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865번지 대비정사
☎ 055)636-3993

"가상성 '幻'을 '幻' 없애는 방편 삼자"

불교평론, 7일 '디지털 문명시대와 불교' 세미나



故 백남준 作 'TV부처'

최근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로 대변되는 환경변화는 한국불교의 현대화 및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교평론〉이 9월 7일 만해축전 기념 세미나 '디지털 문명시대와 불교'에 앞서 발표한 자료집에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불교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제언들이 이어졌다.

범죄율 감소에 불교 수범수제 정신 도입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선정성과 폭력성' 발표를 통해 불교의 수범수제 정신이 디지털 시대 범죄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가 논문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형사범죄는 1990년과 비교해 248%, 2000년에 비교해 58%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살인과 강간과 관련된 신종범죄는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는 상황이다.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이에 대해 "디지털 시대는 감각적 쾌락 추구가 가상세계까지 확장되며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예전에는 보지 못한 수많은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감각적 쾌락과 느낌에 대한 치중, 인간 자존감 상실, 가상현실과 현실에 대한 무분별 등으로 범죄가 증가한 측면이 크다"며 부처님 당시 출가공동체 형성도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움직임이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는 공동체를 통해 인간 자존감 회복 및 사회적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이런 수범수제(隨犯隨制) 정신을 사회에 펴기 위해서는 불자들은 명상 등을 통해 스스로 자극을 줄이고 언행을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각 팽창 등 변화에 교리 재해석 필요

디지털 시대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불교교리를 비롯한 불교사상의 전반적인 검토와 재해석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전혀 다른 논리와 패러다임으로 전개 된다"며 "디지털 사회를 불교교리를 통해 해석하는 움직임과 불교교리를 디지털 사회에 맞게 해석하는 움직임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불교교리의 예로 사이버 공간의 가상성을 설명하는 불교의 '환' 개념을 들었다.

이 교수는 "〈원각경〉에서는 '환'을 여의지 못하면 본각이 없다고 표현, 환을 방편으로 보라 말한다"며 "가상현실을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하는데부터 가상현실로 인한 문제점은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 사회 구현에 불교의 참여사상 일조

석길암 금강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과 화엄연기론' 주제 발표에서 참여의지를 통해 디지털 시대 평등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디지털 시대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쌍방향 소통 등으로 평등한 사회구조가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그런 정보기술을 기성권력이 적극 이용해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구성원 개개인의 참여의지가 중요하다"며 〈화엄경〉에서 지향하는 화엄세계를 예시로 들었다.

화엄 세계관으로 쌍방향 소통을
사이버 공간을 포교 영역으로 확대
불교예술에 디지털 매체 적극 활용

석 교수는 "〈화엄경〉에서는 평등한 화엄세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말하며 중생의 자각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특정소수의 깨달음이 아닌 대다수의 자각과 공감, 소통으로부터 만이 사회적 성취가 발현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대다수의 자각과 공감, 소통을 이끌기 위해서는 선근력으로 중생과 함께 하기 위해 사회현상에 적극 뛰어드는 참여자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불교가 인간 자존감 회복에 도움 주어야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디지털 문명의 매트릭스적 실존에 대한 불교적 해명'에 대한 논문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존재에 대한 철학으로 불교사상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불교의 연기론은 실제와 가상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디지털 사회에서 그 존재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형효 서강대 석좌교수도 "기존사회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믿는 형이상학이라면 디지털로 대변되는 새로운 사회는 그 존재의 실존에 대한 의문이 팽배할 것"이라며 본래 성질을 인정치 않고 그 표상을 문자방편으로 남긴 문자학이 기존 존재론을 대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불교는 이런 문자학의 대표주자"라며 "너와 내가 차이가 있으며 항상 변화한다는 사고로 디지털 시대를 공존과 상생의 시대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감각의 팽창, 포교에 활용해야

박수호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정보사회에서의 포교전략과 사이버 공간의 활용방안'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은 감각의 팽창에 대해 오히려 불교가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호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사이버공간을 적극 활용해 포교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이버 신행공간은 장애우나 노인 등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가능한 만큼 불교의 대중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박 교수는 사이버 공간의 활용에 대한 방안으로 △불교정보의 집적유통을 위한 DB역할, △의사소통 구조 △네트워크를 통한 불가공동체 건설 △종합적 신행공간 구축을 제시했다.

불교예술에 디지털 기법 도입

명법 스님은 '디지털 시대의 불교예술의 혁신'에서 "디지털 매체를 불상과 탱화와 같은 불교예술작품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도문화보다 수행문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 등의 사찰에서는 탱화와 불상을 TV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명법 스님은 "과거 전통에 머물지 말고 법당, 불상 등 불교예술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감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 특히 젊은세대들이 불교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예술은 과거 전통에 머물지 말고 디지털 예술의 가능성에 주시해 그 체험을 확장시키는 혁신을 이뤄야 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심리치료, 문화콘텐츠 등 눈길

2012 가을 박사 11명, 금강 · 위덕 · 중앙승가대 배출 없어

2012년 가을 불교박사들이 배출돼 활발한 연구활동을 다짐했다.

종립대에서는 동국대 7명(1902호 참조), 동방대학원대 2명 등 총 9명, 일반 대학은 서울대 1명, 고려대 1명 등 2명이다.

이번 상반기 박사과정에서는 중앙승가대를 비롯해 금강대, 위덕대, 서울불교대학원대 등 종립대학과 다른 일반 주요 대학에서는 불교 주제 박사학위자가 배출되지 않았다.

안환기 박사(서울대 대학원 종교학과)의 '유식불교의 언어관 연구'는 사회활동을 통한 주관적인 체험 내용이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을 '유식'이란 불교사상으로 풀어낸 논문이다.

안 박사는 언어주체로서의 '사회적 자아'와 그 자아들간의 관계, 인식대상과 언어의 관계, 언어와 사회적 자아간의 재영향 등 4가지 측면에서 조명했다. 안 박사는 언어주체인 사회적 자아가 알라야식이 분화돼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그 자아 사이의 소통을 사회화 과정으로 설명했다.

이윤수 박사(고려대 대학원 문화콘텐츠학)의 '연등축제의 역사와 문화콘텐츠적 특성'은 연등축제의 역사와 전개과정을 살펴본 논문이다.

이 박사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위시해 〈고려사〉,〈고려사절요〉,〈조선왕조실록〉등 역사적 사료와 문인들이 남긴 기록 등을 통해 축제문화 콘텐츠로서 연등축제 위상을 고찰했다.

이 박사는 여기서 불교를 공통 문화유산으로 갖고 있는 아시아에서 연등축제가 어떻게 자국 전통으로 진행돼왔는지를 조명한다. 여기서 이 박사는 인도나 중국, 일본의 연등행사에서는 불교요소가 사라졌음을 들고 한국의 연등축제가 신라, 고려시대 활발했던 불교문화를 대변하는 축제임을 확인했다.

이용권 박사(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의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의 마음치유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 연구'는 한마음 공생실천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마음 관법 수행과정을 자신의 갈등과 고통을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고찰한 논문이다.

이 박사는 한마음 공생실천과정에 참가했던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 박사는 공생실천과정에서 참자자들이 원인이 자신에게서 비롯됨을 인식함을 보여준다.

여현 스님(동국대 선학과)의 '마조도일에 관한 연구-선과 교의 융섭관계를 중심으로'는 중국 선종 뿐만 아니라 한국 선종사에 큰 영향을 끼친 마조 스님을 조명한 논문이다.

여현 스님은 마조 스님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가 후대 조사선의 시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마조 스님이 공사상을 매개로 선사상을 펼쳤음을 밝혔다.

정성권 박사(동국대 미술사학과)의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 연구'는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에 대한 연구를 담은 논문으로 특히 중원 미륵사지의 조성시기를 밝혔다.

중원 미륵사지는 11세기 말로 조성이 추정돼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의 편년을 새로이 정한 가치가 있다. 정 박사의 연구는 궁예 정권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안성 기솔리 석불입상의 양식 분석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2012 가을 불교 관련 박사논문 목록

이름	제 목	대학
안환기	유식불교의 언어관 연구	서울대
이윤수	연등축제의 역사와 문화콘텐츠적 특성	고려대
김경래	스리랑카 테라와다의 정통성 확립과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동국대
김지오	균여전 향가의 해독과 문법	동국대
윤미경	구마라집 법신관 연구	동국대
권선향	송대 이학의 체용론에 나타난 불교의 영향	동국대
여현 스님	마조도일에 관한 연구-선교론 중심으로	동국대
정영희	초의와 리큐(利休)의 선다문화 비교연구	동국대
정성권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 연구	동국대
이용권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의 마음치유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동방대학원대
이영순	영상관법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일 사례연구	동방대학원대

디지털 대장경, 하나로 모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 고려대장경연구소 30일 협약 체결
국한문, 이미지, 영상 등 담아 2013년 시범서비스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 스님(왼쪽)과 불교학술원 원장 인환 스님이 밝게 웃고 있다.

국어와 한문, 사진과 영상을 모두 담은 통합디지털고려대장경 구축을 위해 대장경 연구의 양대 기관이 힘을 모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과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는 8월 30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 및 통합대장경 구축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불교학술원은 산하 동국역경원이 한글화작업을 하고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데이터베이스화 한 디지털한글대장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려대장경 연구소는 고려대장경 인경본 이미지 및 한문 원문텍스트가 열람 가능한 디지털고려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으로 고려대장경 인경본 이미지 및 원문텍스트 검수 교정을 거쳐 한글대장경에 이를 반영해 통합디지털대장경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양기관의 통합디지털대장경은 2013년 초 일부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16년 일반에 전면 공개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인환 스님은 "국한문 통합대장경은 대장경이 지니는 불교기록유산으로서 원전적 가치를 확립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장경에 담겨진 다양한 내용과 가치를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불교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불교생태계가 새롭게 싹트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와심리硏, 불교와심리 심포지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은 9월 15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명상과 무의식'을 주제로 제3회 불교와심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의 '불교의 구사학으로 풀어 본 무의식과 명상' 발표에 이어 권준수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뇌과학을 통해 바라본 명상의 효과', 조욕경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의 '켄 윌버가 본 명상과 무의식', 문을식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의 '요가명상에서 심층의식의 기능과 역할', 이유경 분석심리학연구소 소장의 '적극적 명상(die aktive Imagination)에 관하여' 등이 진행된다. (02)890-2854

노덕현 기자

불광연구원, 신도교육 학술연찬회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9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도교육의 현대적 방향과 내용'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대표가 '한국불교 신도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이창익 원광대 교수가 '타종교의 신도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신도교육의 현대적 방향과 내용'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이중 두 번째 주제인 '타종교의 신도교육의 내용과 방향'에서 이창익 원광대 연구교수는 천주교와 개신교 등 이웃종교에서 진행 중인 신도교육의 방향을 짚고 그 분야에 대한 분석과 불교신도교육과의 비교내용을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익산 왕궁리, 제석사지 정비

2017년까지 단계별 진행



익산 제석사지 전경.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과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405호)의 체계적인 보존 · 관리를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익산시(시장 이한수)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1989년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를 통해 궁장, 공방, 후원 등 왕궁 유적이 확인돼 백제 말기의 익산천도설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익산 제석사지는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일본의 관세음신앙 영험기록, 교토 청련원 소장)에 백제 무왕 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고 있는 백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불당적 성격을 띤 사찰로 왕궁리 유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이다.

종합정비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의 발굴조사, 건물지 정비를 비롯해 탐방로 조성, 조경, 편의시설 설치 등이 추진된다.

또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를 익산 미륵사지, 익산 토성 등 주변의 문화유산은 물론 익산의 대표 축제인 서동 축제 등의 행사와도 적극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북한 불교 문화재 사찰에서 홍보 해야"

최성은교수, 남북협력 학술대회서



최성은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사진〉는 8월 31일 통일부가 주최한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문화자산 남북협력' 학술심포지엄에서 '불교문화재 관련 대북교류의 과제' 발표를 통해 북한 소재 불교문화재를 소개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날 학술행사는 문화재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 문화재 교류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전문가, 학생 등 300명이 참석했다.

최 교수는 이날 불교문화재를 소개하며 남북학자들의 공동학술대회 및 연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가 소개한 북한 소재 불교문화재 중 불교조각상은 105점, 탑과 석등 등 석조미술은 127점, 범종을 비롯한 금속공예는 43점, 회화는 22점으로 집계됐다.

최 교수는 "남북 공동 문화재 조사는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불교문화재들이 알려지거나 이미 알려진 문화재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분석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각 종 박물관과 사찰에서 북한소재 문화재에 대한 소개와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한다"며 "남북 박물관에서 소규모 교환전시를 추진 하는 것도 남북공동조사 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대 불교학술원, 불교한문아카데미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9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6주간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본관에서 역경인력 양성을 위한 불교한문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역주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3개 기본과정 필수강좌와 2개 선택강좌, 아비달마구사론 특강이 개설된다.

필수강좌 경전반은 송광사 학감을 역임한 무애 스님(동국대 불교대학 박사)이 〈반야경〉 강좌를, 논서반은 불교학자 박해당 선생이 〈대승기신론〉 강좌를, 사서반은 한국고전번역원 문집번역실장인 공근식 선생이 〈논어〉 〈대학〉 강좌를 진행한다.

선택강좌는 서울대 규장각 양진석 선생이 〈초서천자문〉 강좌를, 〈계원필경집〉을 번역한 이상현 선생이 〈고문진보〉를 각각 강의한다.

이번 학기부터 개설되는 〈아비달마구사론〉 특강에는 아비달마불교 권위자인 권오민 교수(경상대 철학과)가 초빙돼 구사론 중 첫 품인 '계품' 강좌를 매주 화요일 개설진행할 예정이다. (02)6713-5163

노덕현 기자

20년간 불교 미래 주역 훈련병 후원

호국 연무사 불교어머니회, 30년 지역 봉사 및 군포교

드러내놓지 않고 보살행을 30년 넘게 실천해온 이들이 있어 화제다. 호국 연무사를 후원하는 불교어머니회(회장 김옥분)는 1979년 4월 창립 이후 꾸준히 군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삼보법회에서 불교 교리를 함께 공부하던 보살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불보살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발심한 것이 첫 모임 결성의 계기다.

이들은 '가정에 충실한 어머니' '지상정토 이룩하는 어머니' '사회에 봉사하는 어머니' '인류의 자비한 어머니'가 되자는 한 목표로 고아원, 우애원, 소쩍새마을, 보육원, 경찰병원 환자위문 등 복지시설과 전국 각지의 군법당 및 교도소 포교활동을 펼쳐왔다.

불교어머니회가 처음 논산훈련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91년 9월이다. 논산훈련소 호국 연무사 훈련병 수계법회와 입소대 지원을 요청한 군법사의 연락을 받고 방문했다.

불교어머니회는 이웃 종교와 달리 수계증은 커녕 간식조차 넉넉하지 못했던 군법당에 매월 간식과 선물들을 지원하며 위로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수계법회에서는 불교어머니회원들이 직접 수계증과 수계볼펜, 합장주를 만들어 준다. 이 모두 회원들이 십시일반 걷은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회비만으로 매달 군법당 지원을 이어가기는 힘든 현실. 120여 회원들은 매주 전국 사찰 및 행사장을 돌며 스님과 불자들에게 포교지원금을 모연하기도 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이 불교어머니회를 20년 넘게 지탱해 준 힘이다.

요즘 불교어머니회에게는 커다란 고민이 생겼다. 지난 5월 호국 연무사 법당이

1979년 논산훈련소와 첫 인연 계기
매달 수계증, 간식 등 보시행 펼쳐
전국적 규모 조직 확산이 큰 목표



8월 24일 남원 영선사 월공 스님이 불교어머니회 후원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완공된 뒤 불자 훈련병들이 크게 늘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났다. 완공 전 2천~3천명에 달하던 수계 훈련병들이 완공 후 지난 7월부터 5천명을 넘어선 것이다. 단순히 법회만 참가하는 장병들까지 합하면 7천명에 육박한다. 수계가 없는 일요일 법회에도 평균 5천명 이상의 훈련병들이 법당을 찾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교어머니회의 재정 부담도 두 배로 늘어났다. 김옥분 회장은 "지난해만 해도 논산훈련소 지원 비용이 3천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나마 회원들 수가 늘어나고 불교어머니회를 후원해주겠다는 사찰과 불자들이 많이 생겨나 큰 위안을 얻고 있다"고 어려운 심정을 토로했다.

제천 무암사 황도 스님, 함안 광명사 지원 스님, 남원 영선사 월공 스님은 불교어머니회를 적극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이들이다. 특히 월공 스님은 지난 8월 24일 불교어머니회에게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남원 영선사는 불교어머니회 후원회를 조직하고 매월 지장 철야기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논산훈련소 수계법회를 지원중이다.

불교어머니회는 특정 사찰이나 스님, 단체에 귀속되지 않고 오로지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을 위한 포교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어머니회를 이끌던 선대 회장들도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잘 극복했다.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매주 늘어가는 훈련병들을 보며 회원들 모두 힘을 내고 있다"며 "앞으로 불교어머니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국의 많은 군법당을 더 많이 후원하고 싶다"고 바램을 내비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자들의 신행생활 정립 구현

광주불교교육원 '기도와 생활불교' 개최

재가불자들이 신행생활 정립을 위한 강연 및 한국불교 전망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이순규)은 지난 8월 28~31일까지 재가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을 위한 '기도와 생활불교'라는 주제로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재가불자들이 갖는 신행생활에 대한 의문점과 신행방법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은 28일 관해 스님(법계사)의 '기도의 위신력'을 시작으로, 30일 혜광 스님(정토사)의 '현대불교의 전망과 방향', 마지막으로 31일은 이중표 교수(전남대)의 '재가불자와 생활불교' 강연이 이어졌다.

강사로 나선 혜광 스님은 현대불교의 전망과 방향에 대해 '현재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했다.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종파의 난립의 문제 ▷법사제도의 문제 ▷사찰관리의 문제 ▷승려 자질의 문제 등을 꼽았다. 스님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승가교육을 꼽았다.

스님은 이어 오늘날 사회적 현상에 대해 "사회의 모든 현상은 변화하고, 종교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그것을 향해 돌진해 간다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불교는 시대적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없는 여인으로 우리 곁에 다시 오소서"

8월 26일 故 공옥진 여사 49재 봉행


공옥진 여사 49재에 애제자 한현선 씨가 살풀이 공연을 하고있다.

"엄마 이제는 살풀이 춤사위에 올려놓은 팔, 다리 그만 내려 놓으소서. 소풍 나온 이승길이 참으로 한의 세월이었다면 그 또한 버리고 가소서. 남겨놓은 자식 걱정 행여라도 하지 말고 훨훨 바삐 가셨다가 후생에는 한없는 여인으로 다시 오소서."

1인 창무극의 대가인 故 공옥진 여사의 49재가 8월 26일 광주 무등산 원효사(주지 현지)에서 봉행됐다. 49재에는 공옥진 여사의 딸 김은희씨를 비롯한 유가족들과 신광사 경주 스님, 흥룡사 상운 스님, 금선사 일명 스님 등 광주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공옥진 여사의 딸 김은희 씨는 49재에서 '못 다 쓴 편지'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를 어머니의 영전에 바쳤다. 김씨는 낭독하는 내내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이어 현지 스님의 집전으로 시작된 천도의식과 공 여사의 애제자인 한현선 씨의 살풀이춤, 불자가수 주권기 씨가 평소 공 여사가 즐겨 불렀던 '기다리는 마음'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르며 공 여사를 애도했다.

한현선 씨는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소리의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소리를 하지 않고는 국악을 할 수 없다' 고 하셨다"면서 "'진정한 소리란 오장육보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의 춤과 소리에 대한 열정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모공연이 끝난 후 유가족과 추모객들은 경내 소각장에서 유품을 태우며 공 여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한편 공옥진 여사가 생전 기거했던 영광 옥당골에 그를 기리는 '공옥진 기념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양행성 광주전남지사장

전주사찰음식 체험전 성황리 성료

적문 스님 사찰 강좌 시식회 등 인기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 이하 사업단)은 8월 29~30일 이틀간 전주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관에서 '2012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사찰음식 체험전'을 개최했다.

'2012 전북방문의 해'와 '전주 음식창의도시' 선정을 맞아 '맛의 고장 전주'에서 음식관련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체험전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했다.

특히 사찰음식 전문가인 적문 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 연구소장)의 '사찰음식 조리교실'은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 신청을 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적문 스님의 사찰음식은 한옥마을을 방문한 일반인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송광정심원에서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위한 '식문화개선 캠페인'을 개최했다. 450


불교문화사업단은 송광정심원에서 지역주민 450여 명을 초청해 '올바른 식문화 캠페인 나눔과 비움'을 개최했다.

여 지역주민을 초청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빈 그릇 운동을 전개하고 사찰음식이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렸다. 사업단은 지난 2010년부터 전주 발효과학엑스포에 사찰음식이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전주비빔밥 축제에 사찰음식 특별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평화와 종교화합 선율에 실어

무등산 풍경소리 10주년 기념 음악회

광주시민들의 대표적 문화공연인 무등산 풍경소리(공동대표 연광)가 10주년을 맞아 8월 25일 증심사 문화광장에서 기념공연 '바람소리'를 개최했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지난 2002년 7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열려 이날 103회째 공연을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주(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본부장) 씨가 故 일철 스님과(前 증심사 주지) 무등산에서 환경운동을 함께하며 풍경소리를 시작하게 된 인연담을 들려줬다. 이어 임의진 목사의 기타공연, 김두수, 곽우영 등의 노래공연이 진행됐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지난 2002년 일철 스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는 종교인의 모임'에서 출발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의 성직자와 환경단체,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됐다.

음악회는 다른 공연과 달리 노래 속에 생명과 환경을 살리자는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고, 종교 간의 화합을 노래하는 의


김인주 본부장의 이야기공연 모습.

미를 담아 진행됐다. 연광 스님은 "광주를 상징하는 무등산은 차별이 없다는 불교적 의미를 가진다"며 "풍경소리 음악회를 사람과 자연을 차별없이 대하고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는 문화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등산 풍경소리는 증심사 문화광장을 비롯해 성당, 교회, 원불교당을 비롯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음악회를 벌여왔으며,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마당으로 자리매김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삼국유사 집필한 그 뜻 기리며

일연선사 열반 제 723주기 다례재 봉행



8월 25일 열린 일연선사 다례재에는 2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일연선사 열반 제 723주기를 기리는 다례재가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열렸다.

인각사는 8월 25일 주지 도권 스님과 은해사 총무국장 도홍 스님, 군위불교사암연합회장 돈무 스님, 장욱 군위군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일연선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는 육법공양과 일연선사 연보소개,법고공연, 종사영반, 봉행사, 추모사 등의 순으로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권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8일 삼국유사 골든벨

14일 삼국유사 뮤지컬

"일연 스님은 단순히 삼국유사의 저자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서 민족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지켜낸 선각자"라고 스님을 추모했다.

장욱 군수는 추모사에서 "일연선사께서 저술하신 삼국유사는 민족의 자주와 자존을 일깨워주고 귀중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 준 불멸의 역사서"라며 "앞으로 인각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주불전인 극락전을 복원해 명실상부한 천년고찰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식은 군위불교합창단의 삼귀의례로 시작해 인각사 신도들의 육법공양과 아누리국악단의 법고, 도권 스님의 봉행사, 장욱 군수와 조승제 의장의 추모사, 수산스님의 종사영반 순으로 진행됐다.

이밖에 인각사는 25일 다례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삼국유사 문화제를 개최한다. 9월 8일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삼국유사 골든벨'을 개최하고 14일에는 군위 일연공원에서 삼국유사 속 '도화녀와 비형랑'의 설화를 뮤지컬로 만들어 공연하는 삼국유사 문화의 밤 행사가 열린다. 문화의밤 하루 전인 13일에는 경주에서 열리는 제78차 국제 펜대회에 참가한 전세계 114개국 350명의 유명 문인들도 일연공원에서 만찬을 갖고 뮤지컬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해사 박물관,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경북지역 사찰의 성보박물관이 사립박물관으로 등록되고 있다. 은해사 성보박물관은 최근 경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됐다.

지난 2009년 9월 개관한 은해사 성보박물관은 수장고와 학예연구실 등을 갖춘 연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로 보물 제1604호 '영천 은해사 청동북 및 북걸이' 등 성보 7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에서 사립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된 성보박물관은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 예천 용문사 성보박물관,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을 포함해 총 4곳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태풍피해 정이품송, 불심으로 보호

법주사, 9월 1일 백중 맞아 목신제 봉행



뭇중생을 구한다는 백중을 맞아 고사 위기에 처한 보은 속리산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을 구하기 위해 법주사 스님들이 산신제를 지냈다.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는 백중인 9월 1일 정이품송 앞에서 정이품송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목신제(木神祭)를 개최했다.

백중은 부처님 제자 중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한데서 유래된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다. 영가 천도 뿐만 아니라 뭇 중생들의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날 300여 불자들은 백중법회 후 2km 떨어진 정이품송 앞까지 정근하며 자리를 옮겨 제를 봉행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있는 정이품송은 수령이 6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14.5m, 둘레 4.77m이다.

정이품송은 1980년대 중부지방을 강타한 솔잎혹파리에 감염돼 죽을 고비를 넘긴 바 있다. 10년 가까이 방충망을 쓰고 투병한 뒤 수세(樹勢)가 급격히 약화돼 태풍·폭설 때마다 가지가 찢기고 부러지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10여 개의 가지가 부러지면서 좌우대칭이 완전히 무너져 우산 형태의 아름다운 자태를 잃었으며 28일 강풍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밑동 옆의 가지 1개가 또다시 부러졌다.

이에 보다 못한 스님들이 정이품송에 힘을 불어넣어 주기로 뜻을 모으고 제를 준비한 것이다. 제 비용은 백중법회에 참여한 대중들이 십시일반 모았다.

보은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정이품송은 지역 상징일 뿐만 아니라 충의를 의미한다"며 "위기에 처한 정이품송을 구해보자는 마음을 모아 제를 올리기로 했다. 더 이상 병들거나 아프지 말고, 풍파도 잘 넘어 천수를 누리라는 염원을 담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산 우리들병원 생명나눔 MOU체결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와 부산 우리들병원(병원장 황병욱)은 8월 24일 온천장 우리들병원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 우리들 병원은 생명나눔 회원증을 소지한 시민들에게 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또 부산 우리들병원은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해 장기기증 안내 및 홍보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한국불교대학, 임직원 수련회 봉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임원진들이 수련회를 통해 불교와 불교대학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대학은 8월25일 옥불보전 4층 대법당에서주간반 임원진과 종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경과 심리특강, 대동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수련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회주 우학 스님은 호주 현지법당에서 보낸 영상 법문을 통해 "임원진들이 호법신장 역할을 하면서 포교를 활발하게 전개해서 불교대학의 미래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불교대학은 지난 18일에는 야간반 임원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를 봉행했으며 9월 1일에는 신입생 임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개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염화시중 미소가 아름다우려면

어느 날 영산회상에서 범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며 연꽃을 바치자, 석존께서 연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이셨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나, 오직 가섭만이 석존의 뜻을 깨닫고 빙긋이 미소를 지어보였으니 이것이 바로 염화시중의 미소이다.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인도에서는 연꽃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고 한다. 연꽃의 원산지가 인도인지라 아주 오래전부터 보아왔던 꽃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왕성하게 자라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꽃을 피우는 생태적 특성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불교교단이 성립되면서 연꽃은 불교의 상징적인 꽃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것의 청정성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 연꽃이 언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불교가 전해지면서 연꽃도 함께 전해져 꽃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 연꽃은 7월부터 8월에 걸쳐 꽃을 피우는데, 오래전에 살았던 불자들도 분다리화(백련화), 우발라화(청련화), 파두마화(홍련화), 구물두화(황련화)가 가득 핀 연지를 바라보며 극락정토에 왕생한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절에서는 연지를 만들고 연을 심어 연꽃이 피는 아름다운 사찰을 만들어왔다. 불국사 구품연지나 미륵사 연지, 정림사 연지에서 연을 심었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

또, 연지가 없는 절에서는 석련지를 만들어 연이나 수련을 심어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요즘에도 연지가 별도로 없는 절에서는 연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석련지나 질그릇으로 만든 연분에 연을 심어 연꽃을 피운다. 이러한 연분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흡사 꽃꽂이를 해놓은 것처럼 그 모양이 신비롭다. 그러나 몇몇 절에서와 같이 빨간색이나 검정색 플라스틱 통에 연을 심어 연꽃이 가진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연꽃이 불교의 상징적인 꽃이고, 사찰을 아름다고 향기롭게 만드는 꽃이라면 그것을 심는 그릇도 품위가 있고 아름다워야 한다. 연꽃을 심는 연분까지도 정성스럽고 독창적으로 만든다면 절마다 개성있는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사찰이 그 시대의 문화와 유행을 선도해왔으니 이제 사찰경관을 디자인해야한다는 말도 이상할 것이 없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검정색 플라스틱 통은 꽃이 가진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서울 ㅂ 사찰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본마음 보기 위해 부처·예수 털어 버립시다”



참배를 마친 순례단이 운부암을 나서고 있다. 순례단은 생사가 둘이 아니며 진속이 둘이 아니란 불이문을 나서며 성철 스님과 운부암을 가슴에 새겼다.

⑥ 영천 운부암

8월 25일 ‘성철 스님 수행도량 순례단’ 300여 명은 여섯 번째 순례로 영천 은해사 운부암을 찾았다. 운부암은 팔공산 자락이 마치 구름처럼 감싸고 있는 암자다.

이 선기 넘치는 작은 암자에서 29살의 성철 스님은 오도했다.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성철 큰스님 수행도량 순례단’을 맞이한 영천의 하늘은 맑았다. 전날까지 폭우가 내린 팔공산 계곡에는 부처님의 법음 소리를 담은 옥수가 쏟아졌다.

구름 한 점 없이 개인 하늘에서는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지만 스님의 원력을 되짚는 순례단의 열기는 그보다 더 뜨거웠다.

긴 시간을 달려 온 300여 명의 순례단이 은해사 대웅전 앞에 모였다. 은해사는 신라41대 헌덕왕이 즉위한 해인 809년 혜철 국사가 창건해 1200년간 경상북도 지역의 중심도량 역할을 해왔다. 은해사는 지금의 운부암에서 가까운 해안평에 세워진 해안사에서 시작됐다.

1545년 조선 인종 원년 큰 화재가 발생해 전소되고 지금의 자리로 옮겨 절 이름을 은해사로 고친 것이다.

이번 순례에서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이 직접 나와 순례단을 맞았다. 돈관 스님은 법회에서 성철 스님과의 인연들을 바탕으로 법문했다.

해인사 지조암 출신인 돈관 스님은 “고향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느낌”이라며 어렸을 적 성철 스님과의 선방에서의 일화를 들려줬다.

“해인사에서 첫 안거에 들었는데 졸다가 성철 스님에게 허리를 채여서 일주일 동안 침 맞으러 다닌 기억이 납니다. 스님은 책을 못 읽게 하셨습니다. 영어 공부하려고 공양간에 숨어 책을 보는데 스님이 와락 오셔서 책을 던지셔서 찢어진 책을 밥풀로 붙여가며 공부한 기억이 나네요.”

돈관 스님은 참가 대중에게 운부암이 성철 스님뿐만 아니라 여러 수좌들이 수행정진한 곳이라고 전하며 그 기운을 받을 것을 축원했다.

이어 증명법사로 나선 원택 스님은 은해사 운부암에 머물렀던 향곡 스님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성철 스님은 평생도반인 향곡 스님을 운부암에서 만났다.

“성철 스님은 항상 운부암 뒷산에서 향곡 스님과 잣따기 내기를 해 향곡 스님 옷을 홀딱 벗긴 일화를 자주 이야기 했었습니다.”

깨달음의 반은 도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반이자 스승이었다.

두 스님은 서로 절차탁마의 길을 돕는다. 향곡 스님은 봉암사 결사에서 성철 스님과 법거량을 하며 활연대오하고 선암사 불국사 동화사 선학원 등의 조실로서 후학을 길렀다.

스님은 “성철 스님이 운부암에서 오도했다는 한 마을 노인의 증언이 있었는데 행장으로 남기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가 깨끗하고 빛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천추만고에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 성인들에 너무 집착하여 이를 버리지 못하면 본

1939년 운부암 하안거 지내며 오도
팔공산 넘어 동화사서 오도송 읊어
경허·만공 등 선지식 선기 어린 곳
평생도반 향곡 스님 만나 절차탁마

마음에 더 큰 병폐가 생기니 이를 버려야 참다운 지혜와 영원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본마음을 보기 위해 부처, 예수를 털어버립시다.”

대중들은 스님이 평소 말씀한 법문을 다시금 합송하며 은해사에서의 법회를 마무리 했다.

법회 이후 순례단은 은해사 계곡 사이 길을 통해 운부암으로 향했다.

711년 신라 의상 대사가 창건한 운부암은 예로부터 ‘북마하 남운부’라는 말이 전해지는 곳. 당대 고승인 경허, 만공, 동산, 운봉, 청담 스님이 수도한 곳으로 많은 선지식들이 수행처로 삼았다. 지금도 도량 곳곳에는 선기가 넘쳐 흐르는 것 같았다.

여기서 청년의 성철 스님은 한 철 수행으로 오도의 경지에 도달했다.

성철 스님은 팔공산을 넘어 동화사에서 오도송을 읊고 금강산 마하연사로 떠났다.

운부암을 찾은 순례단은 긴 돌계단을 올라 나무결이 그대로 보이는 보화루에서 다시 모였다. ‘보화(寶華)’는 뛰어나게 존귀한 꽃으로서 부처가 앉아 있는 연화대좌를 의미한다. 순례단은 보화루에 둘러 앉아 선원장 불산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진제 스님으로부터 법호를 받은 불산 스님은 전국수좌회 회장이다.

순례단의 말소리가 잦아들자 선원장 불산 스님은 조용히 성철 스님이 오도한 내용을 시작으로 법문을 시작했다.

“성철 스님은 선원에 오셔서 딱 네 마디를 하셨습니다. ‘자우지 마라, 말하지 마래잉, 어록도 보지 마래이!’ 마지막에는 신문도 보지 말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선원 수좌들이 졸릴 시간에만 오셔서 그러셨습니다. 한바퀴 도시면 그 호랑이 같던 기운에 모두가 용맹정진했습니다. 참으로 그립습니다. 다시 못보니 아쉽습니다.”

지금의 행장에는 성철 스님이 1940년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오도송을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증언과 친필이력을 보면 성철 스님이 오도한 곳은 운부암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불산 스님은 “이미 괴각으로 소문 나 금당선원 방부가 거절된 스님은 운부암으로 돌아와 안거를 나고 해재날 동화사 금당선원을 다시 찾아 해재 이후 남아있는 대중 앞에서 이를 읊으셨다”고 말했다.

운부암에서의 한 철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은 성철 스님은 수행처로 유명한 금강산 마하연으로 떠난다. 하지만 오도한 그 자리가 못내 마음에 남았다. 성철 스님은 편지를 통해 향곡 스님을 다시 불러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순례단은 이어 성철 스님이 정진한 선방을 보고 툇마루에서 차담을 나눴다. 안거 중이던 스님들도 일부 나와 대중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했다. 무문관과 같은 작은 방에는 스님의 기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듯 했다.

성철 스님의 선방을 둘러 본 정숙자 씨는 “성철 스님이 오도하신 곳을 보니 가슴이 벅차 오른다”며 “스님께서 정진한 그 모습, 말씀을 항상 기억해 마음공부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순례단은 운부암을 나섰다.

영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참가 대중들이 선원장 불산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성철 스님이 수행한 운부암 선방


팔공산 자락이 연꽃잎처럼 감싸안은 운부암 전경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cm
④ 약쑥초 밀대 4.7ϕ×25cm ⑤ 약쑥초 1호 5.9ϕ×18cm ⑥ 약쑥초 2호 5.9ϕ×14cm
⑦ 약쑥초 3호 4.7ϕ×13cm ⑧ 약쑥초 4호 4.7ϕ×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주의와 진보

생태적 시각에서 진보란 없다





1호기 즉각 폐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 9명이 최근 벌어진 경선 비리와 관련해 책임지고 사퇴하고 있다〈위〉. 통합진보당 사태로 진보진영은 큰 혼란을 겪고있다. 의원은 배출하지 못했지만 꾸준한 활동을 하고있는 녹색당은 진보적 가치로 환경과 정치를 조율하려한다. 녹색당원들이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주장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진보의 재구성?

최근 통합진보당 사건은 한국정치사 뿐 아니라 한국 사회운동사에 충격을 넘어 큰 좌절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이른바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표되는 당권파는 이제까지 사회역사속에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놓은 사회운동의 도덕적 신뢰와, 궁극에는 이뤄야 할 '진보'라는 이름을 일거에 '말아먹었다'고 비난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보수세력으로부터의 공격 뿐아니라 진보세력에게도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지금까지 만들어온 열혈 당원들 마저 당을 떠나고 급기야. 분당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를 둘러싸고 '진보는 재구성돼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진보라는 이름속에 순수성을 헤치는 반진보적 담론을 걷어내고 진정한 진보의 담론을 만들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진보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패러다임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숙고해야한다. 왜냐하면 '소위' 진보는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오늘의 진보는 생산력주의자, 성장주의자들이다. 과거 진보는 평등을 지향하고, 보수는 성장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결국 보수와 진보 모두 성장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맑시즘적으로 보면 진보는 '생산력의 고도화'가 기준이 된다.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풍요의 사회를 누리는 것을 지고지순의 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10년~30년 뒤에는 미국적 생활양식(American Life Style)을, 아니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이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복지국가를 모델로 하기도 한다. 결국 성장이 고도화된 국가이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위기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성장주의가 초래한 것이다. 기후위기는 선진국들의 화석연료소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산력의 고도화, 성장주의는 곧 에너지 과소비형 국가를 의미한다.

만일 이대로 개발과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인류에게는 발전과 성장이 아니라 절멸로 가는 것이다. 유토피아 (Utopia)로 가는 줄 알지만 실은 디스토피아(Dytopia)의 지속불가능한 발전 방향임이 확연해졌다. 따라서 성장만을 추구하는 '지속불(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일의 녹색당 이론가였던 루돌프 바로(Rudof Bahro)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과 대립을 두고 오늘날 위기를 초래한 생산력주의, 성장주의자들이며 '그놈이 그놈인 싸움'이며 결국 '이란성 쌍둥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진보는 역시 '자원무한주의'라는 신념에 기반해 선형적 시간관, 직선적 발전패러다임에 갇혀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는 자원은 무한하다는 전제위에 구축된 이데올로기이다. 오늘날 경제학도 바로 그 이데올로기를 전제하로 구축된 학문이며 정치, 문화, 사회 모두 그러하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다"는 생각은 바로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적 관념이었다. 직선적이다. '낫다'는 것은 곧 경제적 성장, 물질적 풍요를 기준으로 한다. 더욱이 이 직선적 시간관은 비가역적이다. 경제적으로 내일은 무조건 나아져야 하고,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또한 모든 경제성장 발전은 수직상승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뿐아니라 국가와 집단적으로 퇴보요 후퇴이며 국가간 경쟁에서 패배한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다. 바로 이러한 직선적 시간관은 바로 '쓰고 버리는 사회'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시간관은 필연적으로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를 지향하며 자원소모를 가속화시켜왔다. 그러나 불교의 시간관은 순환적이다. 돌고도는 연기적 사고, 자연계에서 서로 되먹임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직선적인 시간관이 아니라 순환적인 시간관으로의 전환, 이것은 오늘날 위기를 돌려살림의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진보' 재구성 돼야한다 제기돼
오늘의 진보 '국가주의' 틀에 갇혀
'진보' 자체엔 직선적 이미지 강해
진보, 생태위기부터 고려해야

세 번째로 오늘의 진보는 '국가주의' 틀에 갇혀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한국의 진보는 세계주의나 국제주의, 지구시민의식에 대한 경험을 할 겨를이 없이 독재와 분단이라는 다급한 상황에 대응하는데 익숙해져왔다. 국제적인 분쟁이나 전쟁 등에 대한 관심과 책임보다는 자국문제를 중심으로 사고하는데 익숙해져있다. 그런 인식 때문인지 한국사회의 진보는 국가를 궁극 조직으로 보고,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변화와 변혁을 사고하는데 집중돼 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성향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 한때 민족주의 애국주의라는 말에 전율하며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자국이익이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주창한다면 그것은 세계사적 재앙과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 된다. 과거 피압박민족의 민족주의는 반제반봉건의 민족해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했지만, OECD국가, GDP 11~13위인 한국이 민족주의를 외친다면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는 가난한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성격으로 전화될 씨앗이 된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나아가 애국주의는 결국 자기 국가중심의 배타성을 강화한다.

네 번째로 오늘날의 진보는 현세대주의이며, 인간중심주의, 유물주의에 갇혀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용어는 간단히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용어는 브루트란트 보고서에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의 발전'으로 정의한다.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발전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비생활 양식은 잘사는 20%의 국가들이 가난한 나라와 나눠 써야할 자원을 빼앗아 독식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가 써야할 자원은 남겨두고 그 나머지로 현세대가 소비해야하는데 미래세대의 것까지 빼앗아 쓰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미래세대의 권리가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비추어 보면 오늘날 모든 정치와 경제 뿐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기획한다는 진보의 이념 조차도 현세대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만로 사회와 자연에 대한 변경을 결한다.

또한 현재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인간만이 지구상에 유일한 의미있는 행위자로 인식한다. 모든 정치 경제행위는 오로지 인간 자신의 시각에서 인간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의 생태적 메시지는 인간이 지구상의 생태계의 한 일부분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중심인양 지배하고 정복해왔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간주한다. 동물과 식물, 수많은 무생물적 자연에 대한 권리와 그들의 존재를 고려한 사회적 가치와 결정은 어디에도 찾아 볼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위기를 초래한 또다른 이유라고 말한다.

생태적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현세대만으로의 사회적 결정을 하며, 다른 생명과 자연의 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간중심적 의사결정구조는 바로 오늘날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세대와 타생명까지 고려한 생태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지는 이유이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다양성의 사고로

생태적사고란 모두가 관계되어 있고 연결돼있고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성의 꽃밭에서 차이를 차별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진보는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있었다. 흑백논리를 부정한다지만, 결국 스스로도 좌우, 선악, 진보보수로 나누는 진영론적 사고에 갇혀 있었다. 실제 세계는 100%의 흑이나 100%의 백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은 모두 '회색'일 뿐이다. 단지 채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실은 그것도 아니다. 무채색의 세계가 아니고 칼라(Colour)의 세계이다. 그래서 다양성이다. 자신이 '중도'라고 주장하는 말도 결국 동일한 무채색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양성의 차원에서 보면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규정할 수 없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양한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것이다. 이분법의 논리가 경쟁과 대립의 논리, 잘못된 선악의 논리를 사회화 한 것이라면 생태학에서 바라본 세계는 부분적으로 경쟁의 측면이 있지만 자연의 전체를 바라볼때는 상호보완과 상호의존의 측면이 더욱 규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생물세계에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협동하는 종만이 진화에서 살아남는다고 크로포트킨은 주장한다.

진보는 다시 성찰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분노와 증오, 적대감이 아니라 창조와 건설, 대안사회를 위한 가치지향이 동력이 되어야 한다. 분노와 적대감은 파괴할 때는 좋은 에너지이지만 창조와 건설의 때에는 위험한 에너지가 된다. 아무튼 진보는 다시 성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직선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

위기라는 말은 다양한 많은 문제중에 절체절명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생태위기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오늘과 같이 흙과 땅을 버리고 돈을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경고이며 전환의 메시지이고, 오늘 진보가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한다면 과거 평등과 자유, 민주주의라는 기존의 제한된 정치이념보다 생태위기의 메시지를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불교는 바로 인간만이 중심이 아니며 생물과 무생물 모두를 포함하여 존중되어야할 중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주는 성주괴공을 반복하는 순환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다. 수평적인 인과관계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인과관계의 연기적 법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때 불교의 자연관이 소중해지는 이유가 된다. 단지 그러한 사상을 갖는 불교의 실천에 기대를 모을 뿐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풍수총론

현,불교TV에서 풍수학 강의 중
동방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 泰 相
정가 : 40,000원



국민의 부와 국가의 부를 정의 내린다

저자 : 아이크 정
안형렬 공저
정가 : 15,000원



불교 경전의 금자탑 무구정광 대다라니

無垢淨光大陀羅尼經
寒照 辛 興 植 謹譯
정가 : 10,000원

30년 전통의 제조명가에서 제조하는 수공예 불교 은제품
건강과 믿음을 위한 여러분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도서 및 쥬얼리 은제품 구매문의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 신한(100-023-357023) 농협(1281-17-003433)
예금주 : (주)한메소프트
인터넷 상품구매 : 칠성상회 http://shop.7-star.net 에서 해당 상품 검색 후 구매 가능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322호 (주)한메소프트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상서로운 날 태어난 이, 이름은 '아난다'

〈환희〉

④ 다문제일(多聞第一) 아난다

〈상〉출생과 출가 그리고 시련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로서 항상 부처님의 수족처럼 움직였던 제자이다. 부처님의 열반을 지켜본 제자이고 부처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래서 아난다는 부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 한분이었고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고 칭송받았다. 이외에도 아난다는 십대제자 중 가장 인간적인 면모가 많은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간적인 면모는 현대에 오면서 소설 등으로 각색되기도 했다.

부처님 정각 이룬 날에 출생
8세 때 사촌형제들과 출가
부처님 설법 가장 많이 들어
女難 많아… 마등가 일화 유명



그림 · 김홍인

부처님 성도일에 태어난 아이

카필라족의 태자 싯다르타는 괴로웠다. 고행으로 피폐해진 몸이 마음마저 흔들었다. 생사를 넘나든 고행은 아무런 득이 없었다. 싯다르타는 이내 나이란자나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인근 우루벨라 마을에서 수자타에게 우유죽 한 그릇을 공양받았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로 가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이 자리에서 나는 깨달음을 이루겠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선정에 든 싯다르타는 19마라(魔羅)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이내 선정에 들어 부처가 됐다. 그리고 이 소식은 아버지 정반왕에게까지 전해졌다. 태자의 출가 이후 마음을 졸이며 살던 정반왕은 이제야 안심이 됐다. 기쁨과 환희를 만끽하고 있는 순간, 동생 곡반왕의 사자가 찾아와 득남의 소식을 알렸다. 아들의 정각과 동생의 득남, 정반왕은 정말 뛸 듯이 기뻤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상서로운 날이다. 태어난 아이에게는 아난다라고 이름을 붙여라"〈대지도론 제3권〉

부처님의 정각과 함께 태어나 '환희',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받은 이 아이가 훗날 부처님의 열반까지 그림자처럼 지키며 따른 시자 아난다이다.

왕자들의 출가… 사형이 된 하인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지 6년. 부처님은 승단을 이끌고 고향을 찾았다. 정반왕은 분소의를 입고 걸식을 하는 아들의 겉모습에 실망했지만, 설법을 듣고는 곧 궁으로 초청해 공양을 올렸다.

여덟 살이 넘은 소년 아난다는 마음이 뛰었다.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관계로만 따지면 자신의 사촌 형이었지만 그 거룩한 모습에 어린 마음에도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소년은 다짐한다. 자신 역시 뛰어난 수행자가 될 것을. 그리고 친형 데바닷타, 사촌 아나율, 밧디야, 바구, 우파난다 등 다섯 형제들과 함께 미련없이 출가의 길에 오른다. 이들의 출가에는 이발사 우팔리도 함께 했다.

부처님이 주석하고 있는 숲에 이른 일행은 예배를 올리고 출가를 간청했다.

"세존께서는 사카족에게 자존심의 깃발을 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발사 우팔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시중을 든 하인입니다. 그를 먼저 비구로 만들어주십시오."

왕자들을 칭찬한 부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우팔리를 먼저 출가시켰다. 왕자들도 먼저 출가한 우팔리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표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파격이었다.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던 부처님은 새로운 사문들에게 바른 법과 율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우리 승가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받아드린다. 올바른 법과 율이 있을 뿐이다. 계를 받는 순서에 따라 예를 갖추는 것이지,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음은 없다. 진실하고 성스러운 법과 율을 따르고 절대 교만하지 말라."

아파도 부처님 설법에 집중

출가 이후 아난다는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설법을 꾸준히 들었다. 타고난 총명함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게 했고, 그런 아난의 집중력을 부처님도 수 차례 칭찬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난다는 등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등창이 심해진 것이었다. 몸을 뒤틀며 종기를 참고 있는 아난다를 본 부처님은 빔비사라왕의 어의를 불러 치료를 부탁했다. 아난다의 종기를 본 어의는 먼저 혀부터 찼다. 종기를 도려내야 하는 데 환부가 너무 악화돼 이를 제거하는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 걱정하는 어의에게 부처님은 지금부터 설법을 시작할테니 아난다의 환부를 치료하라고 당부했다.

"아난다야, 고름이 살이 될 수 없듯이 종기는 뿌리를 뽑지 않으면 두고두고 고생하게 된다. 상처가 커져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처님의 설법이 시작되자 아난다에게 통증은 이미 오래 전 이야기가 됐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마음 속에 새기고 있었다.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당히 먹고 입고 자야 한다. 걸식으로 얻는 음식 역시 나의 몸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이며, 행복의 뿌리이다."

부처님의 설법이 이어지는 동안 아난다의 등창은 모두 치료됐다.

출중한 외모… 유혹과 깨달음

아난다는 교단 안팎으로 인기가 많았다. 아난다를 만나면 누구나 그의 이름처럼 환희를 느꼈다. 이런 아난다의 성품에 대해 부처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비구들아 아난다에게는 훌륭한 자질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비구들이 아난을 찾아오면, 그들은 아난을 보고 기뻐한다. 아난이 그들에게 법을 설하면, 그들은 설법을 듣고 기뻐한다."

아난다는 성품만이 아니라 외모 또한 출중했다. 얼굴은 둥근 달과 같고, 눈은 푸른 연꽃과 같았다. 몸은 항시 밝게 빛나 거울과 같았다. 빼어난 외모는 뭇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다.

아난다가 성곽으로 걸식을 나갔을 때 일이다. 승단의 걸식 법도에 맞춰 일곱 집을 도는 칠과식(七過食)을 하던 도중 매염굴을 지나게 됐다. 그곳에는 마등가라는 음술(陰術)에 능한 여인이 있었다. 출중한 외모에 반한 마등가는 아난다에게 자신의 주술을 걸었고, 방으로 유인해 희롱하려 했다.

이를 눈치 챈 부처님은 신주(神呪)를 외우고 문수보살에게 아난다를 구해 올 것을 명했고, 문수보살은 마등가의 주술을 부수고 아난다와 마등가를 부처님 앞에 데리고 왔다.

부처님을 뵌 아난다는 절을 올리고 슬피 울었다. 법문을 많이 듣기만 했을 뿐 아직 마음의 힘을 갖추지 못한 게 한스러워서였다.

상심한 아난다를 위해 부처님은 참다운 마음과 본래의 청정한 실상을 깨우쳐 주기 위한 법문을 설했다. 먼저 부처님은 손바닥으로 한 줄기 광명을 아난다의 오른쪽을 비췄고, 아난다는 머리를 돌려 오른쪽을 봤다. 왼쪽을 비추니 아난다는 머리를 돌려 왼쪽을 돌아봤다.

"지금 네 머리가 어째서 좌우로 흔들렸느냐?"



아난다가 대답했다. "여래께서 미묘한 보배의 광명을 날려서 저의 왼쪽과 오른쪽에 보내시니, 저는 그 광명을 보느라 저절로 머리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다시 부처님이 물었다. "여래의 광명을 보기 위해 머리를 흔들었다고 하니 네 성품이 흔들렸느냐? 나는 손을 스스로 펴고 구부렸을 뿐, 보는 성품은 펴거나 구부리지 않았다. 어찌 너희는 지금 움직임을 몸으로 삼고 흔들림을 경계로 삼아, 성품을 잃어버리고 거꾸로 일을 행하는 것인가?"

부처님의 경책과 같은 설법에 아난다는 자신의 허물을 일순 깨달았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심으로 가득 찼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참고문헌
〈부처님 십대제자(성각 스님著)〉, 〈부처님의 생애(조계종 교육원)〉, 〈능엄경〉, 〈대지도론〉, 〈아함경〉, 〈왕사성 결집을 중심으로 본 아난다의 위상에 관한 연구(정선경, 2004)〉

아난다는
부처님 곁을 늘 떠나지 않으며 보필한 시자로, 부처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어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 칭송을 받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정반왕의 동생 곡반왕의 아들이다. 라훌라와 더불어 동진 출가했다. 출가 후에는 대중들의 천거로 부처님의 시자가 됐으며, 26년 간 그림자같이 부처님과 함께 행동하며 법문을 들었다. 그가 남긴 또 다른 업적으로는 석가의 이모 고타미(Gotami)가 출가를 청했을 때 부처님을 설득해 그녀의 출가를 성사시킨 일이다. 또한 부처님 열반 후 마하 가섭의 지휘 아래 이뤄진 경전 결집에서 경(經)을 송출해 부처님 법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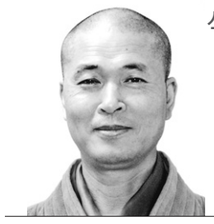
(그림은 조향숙씨의 석굴암 아난다 판화)

since1973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12절 258㎜×265㎜
200부 이상@ 1,000원
3천부 이상@ 800원

호수	품 명	규격/정가	임시할인가
1호	산사로 가는 길	6절 (6종) 1,900원	1,30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1,500원 ※ 3000부 주문시 1,100원
2호	소소달마		
3호	연향이 머무는 곳		
4호	천진미소		
5호	행복한 휴식		
6호	향기가 머무는 곳		
7호	가람의 향기	12절 (16종) 1,600원	1,00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1,200원 ※ 3000부 주문시 800원
8호	관음도		
9호	맑은향기		
10호	물소리 바람소리		
11호	미소달마		
12호	반야동자		
13호	반야심경		
14호	부모은중경		
15호	선의 세계		
16호	세계의 명찰		
17호	아름다운 꽃		
18호	여래의 미소		
19호	여유		
20호	연꽃이 있는 풍경		
21호	염화시중의 미소	12절 (16종) 1,600원	1,000원 (200부 이상)
22호	화선자		
23호	마음이 머무는 곳	미니 (6종) 800원	4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600원
24호	연꽃향기		
25호	정심		
26호	천진불		
27호	행운의 달마도		
28호	향기로운 꽃 ★일반		
29호	나를 다스리는 말	수첩 (5종) 800원	6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800원
30호	선		
31호	우리도 연꽃같이		
32호	천진동자		
33호	꽃이 있는 풍경★일반		
34호	보리심 [한지]	2,400원	1,500원(200부 이상)
35호	마음에 핀 연꽃 [비닐]	차걸이 (4종) 800원	4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600원
36호	마음에 핀 연꽃 [홀더]		
37호	반야심 [비닐]		
38호	반야심 [홀더]		
39호	행복한 하루[탁상]	2,400원	1,500원(200부 이상)
40호	행복으로 가는 길[법보시선물용]	3,000원	2,500원(100부 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금강禪과 죽은 삶

학승이 물었다.
"껍데기를 보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이 원인인가?"

問 不見邊表時如何 師云 因什麽與麽

껍데기는 양변(兩邊)의 세계이다. 상대적인 개념의 세계, 즉 선악, 빈부, 장단, 중생과 부처, 염정 등을 말한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이 양변에 걸린다. 양변은 껍데기의 세계이다. 사물의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양변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양변은 완전히 사라진다. 더 이상 삶에 있어서 양변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누가 이런 경지에 들어갔다면 스승은 어떻게 평할까? 조주 선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반문을 통한 가르침이다.

양변은 알맹이가 아니고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의 주장이 떨어져나간다. 마음은 점점 아무 것도 세우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결국 껍데기를 보지 않고 그 안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그 안은 어떤 곳인가? 그 안은 부처도 죽고 조사도 죽고 천재도 죽고 둔재도 죽는 자리이다.

학승이 물었다.
"맑으나 맑지 않고 흐리나 혼탁하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맑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다."
학승이 물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물었다.
"허, 가련한 인생이로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시방을 관통하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금강선(金剛禪)을 떠나는 것이다."

問 澄而不清渾而不濁時如何 師云 不清不濁 云是什麽師云 也可憐生 云如何是通方 師云 離卻金剛禪

우리의 자성은 원래 맑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다.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다. 마치 허공과 같다. 그래서 중생의 자성을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다. 더 이상 알려하지 말라. 자성을 무엇이라고 단정하면 그 순간 지식의 때가 묻는다. 그러한데 또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 허공이 형체가 있는가? 무엇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가? 굳이 허공을 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대의 환상의 세계일뿐이지 허공의 참 모습이 아니다. 허공은 그리는 것이 용서가 되나 자성을 그리는 것은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금강선은 절대선이다. 깊이 좌선 삼매에 들면 순일무잡한 정신세계에 이른다. 단 한 번의 망념도 없이 일념이 만년(萬年)을 가듯 조용히 흐른다.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한 일이 생겨도 전혀 모른다. 이것을 금강과 같이 단단한 선(禪)이라해서 금강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방을 관통한 大人은 금강선도 버린다. 금강선에 빠져 평생 돌이나 나무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죽은 삶이다. 죽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주머니 속의 보물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싫어하는가?"
학승이 물었다.
"써도 없어지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가(自家)의 보물은 원래 무겁다. 또 이르되 사용하면 무겁고 사용하지 않으면 가볍다."

問 如何是囊中寶 師云 嫌什麽 云用不窮時如何 師云 自家底還重否 又云 用者即重不用即輕

주머니는 몸이다. 몸속에 보물은 무엇인가? 흔히들 마음이나 자성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조주 선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수행자는 좋아하고 싫어함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하거늘 네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한단 말인가?"라는 뜻으로 힐책성 반문을 한 것이다. 보물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도가 깊어지면 대소구별과 안과 밖이 없어진다.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있는가?

뭐라고 이름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고 쓸수록 커지고 무거워진다. 그러나 쓰지 않으면 가벼워서 있는지조차 모른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29〉

탐진치 번뇌의 불 끄고 '苦' 벗어난 상태

사법인-④ 열반적정

세상의 모든 현상법은 생멸변화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도, 소유물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생각하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접하게 된다. 애착하던 것이 변화와 함께 사라져 갈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고(苦)라는 것을 자각할수록 인간은 또한 그 고로 부터 벗어난 세계를 꿈꾸게 된다. 불교에서는 고로 부터 벗어난 상태를 열반적정(涅槃寂定)이라고 한다.

열반은 범어로 니르바나(nirvāṇa)이고 '불어서 끄는 것', 혹은 '불어서 꺼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번뇌의 불을 끄는 것이 열반이다. 여기에서의 불은 말하자면 촛불과 같은 불이다. 양초의 촛불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녹여버리듯 중생의 번뇌라는 촛불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태워 없애버릴 때까지 괴로움 속에서 발버둥 치게 만든다. 그 불을 불어 꺼버리면 안온하고 평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데 그러한 적정(寂定)의 상태가 바로 열반이다.

초기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三毒)이 번뇌의 불에 비유된다.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을 꺼 버리면 그것이 곧 열반이 된다. 열반적정이란 이러한 번뇌가 사라져 안온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으로 열반은 부처님의 죽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 죽음을 입멸(入滅)이라 하고 이 입멸에 대한 경전을 열반경(涅槃經), 입멸에 대한 그림을 열반도(涅槃圖)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의 열반은 반열반(般涅槃)을 줄인 말로 모든 번뇌가 끊기고 육신마저 사라진 후에 얻어지는 완전열반을 가리킨다.

부파불교에서는 이 완전열반을 무여열반(無餘涅槃)이라 하고 이에 대비되는 말로 유여열반(有餘涅槃)을 거론한다. 유여열반은 모든 번뇌를 끊어서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으나 아직 과거의 업과 그 과보로 의지하게 되는[餘依] 육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열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했다. 부처님조차도 육신이 있는 한 늙고 병들어 가는 육체의 고(苦)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여·무여열반에 관한 논의는 외도(外道)의 영향으로 생긴 것으로 본래 불교에는 없는 사상이었다. 니르바나(nirvāṇa)는 고행주의자들인 자이나교 등에서도 궁극의 이상으로서 여겨졌고 오히려 이것이 불교에 도입됐다고 하는 설도 있다. 인도의 많은 종교나 철학에서 열반은 공통적으로 인생의 이상이자 생사를 초월한 것으로 설명되지만 그 내용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학설이 동일하지 않다.

예컨대 대승불교에 이르면 부파불교의 두 열반에 자성청정열반(自性清淨涅槃)과 무주처열반(無主處涅槃)이 추가돼 네 종류의 열반이 언급된다. 자성청정열반이란 이 세상의 모든 마음과 법은 본래 그 자성이 청정한 열반의 세계라는 의미이다. 무주처열반이란 큰 지혜는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큰 자비는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대승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보살은 생사의 문제를 바로 보는 지혜를 통해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해탈을 얻었으나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인해 스스로 번뇌가 소멸된 열반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는다.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이 무주처열반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지향점이자 유일하게 인정된 부처님의 열반이었다.

특히 어떤 종류의 고정된 사상도 논파함으로써 대승의 종조(宗祖)로 불리는 용수(龍樹)는 열반의 세계를 세속에서 번뇌와 함께 살아가는 중생들의 세계와 동떨어진 것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는 삶과 죽음이 곧 열반이라는 관점에서 열반을 일상생활의 실천과 연관 지었다. 그러한 열반적정이야말로 적극적인 이타활동인 보살행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㉞

배운 것은 적어도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 〈앙굿따라 니카야〉

오랜 세월 칠판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절반쯤의 시간은 칠판을 등지고 서있었다. 선생도 해보았고, 학생도 해보았다. 그리고서 얻은, 나의 결론 : 선생보다는 학생이 더 행복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의 하나 : 학생은 아직 자기분열까지 가지는 않았지 않느냐.

선생은? 당연하다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은 불가피하게 자기분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점을 예민하게 의식하는 사람도 있고, 둔감하게 지내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주 소수일망정, 앎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서 자기분열에 빠지지 않은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아직 나는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다.)

나는 자기분열증이 심한 편인데, 이를 치유하는 나 나름의 처방이 곧 글쓰기다. 매일같이 써대는 글들(거의 전부, '써달라'는 데가 없음에도 쓰는 글들)이 나에게는 최고의 힐링(healing)이 된다. 그야말로 다양한 문장 형식의 글을 쓰지만, 특히 나의 깊숙한 상처를 치유해 주는 데에는 시(詩)만한 것이 없다. '아마추어 시인'이 된 까닭이다.

그럼 도대체 내게, 아니 나와 같은 '먹물들'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 에게, 그들의 의식을 분열시켜서 정신건강에 빨간 불을 켜놓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야 물론 앎과 삶의 불일치,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앎·배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알기는 아는데, 그 앎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모순.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가는 데 큰 불편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배움은 그러한 자기의 위선을 예리하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그가 앓는 병의 본질은 "다양한 문장 형식에 따른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폭넓게 알고 있지만, 경전의 글자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참된 지식인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그 건너편에 자기분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니, 하나의 거울로 세워둔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문장 형식에 따른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폭넓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전의 글자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간다."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부처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지식인일 터이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와 유사하게, 자기분열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배움 자체가 아예 적어서, "경전의 글자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 앎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앎 자체가 너무 적어서 자기분열을 초래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기에 이들을 과연 행복하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민이 갈 뿐, 본보기로 삼을 수는 없다. 배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이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기는 배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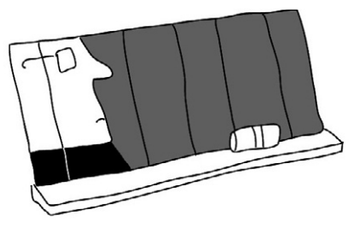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 "다양한 문장 형식에 따른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지만, 경전의 글자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다. 그렇다. 앎은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고, 앎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자기분열증의 지식인들보다는 훨씬 행복한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나처럼 자기분열증에 시달리는 지식인들은 어떻게 할까? 할 수 없다. 앎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 모순과 자기분열을 예민하게 자각할 수밖에. 깨어있을 수밖에, 길이 없다. (일아 편역,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512-513쪽.)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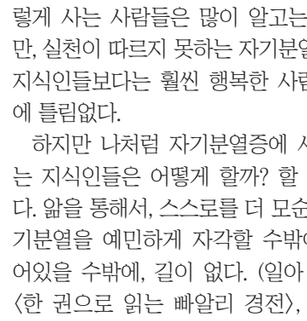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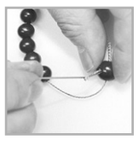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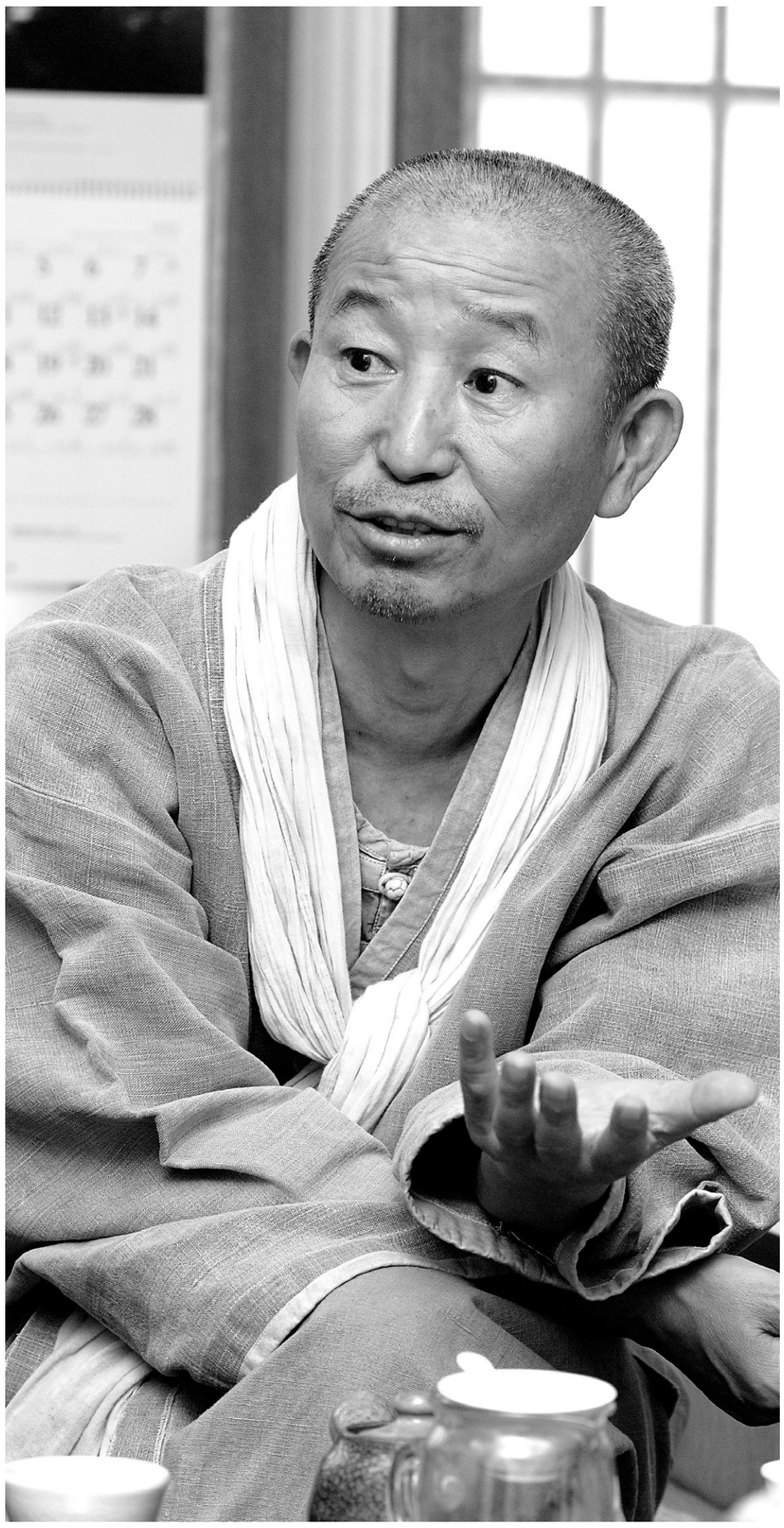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법정 스님 연꽃이라기 보다 난초처럼…”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법정 스님이 해인사 강원에서 ‘부처님 생애’를 가르치셨어요. 제가 스무 살 남짓이었으니까. 한 사십이삼 년 지난일이네요. 해인사 강원에 있다가 하루빨리 참선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에 걷어치우고 도망 나와서 선방엘 갔죠. 송광사 선방에서 살 때 법정 스님이 불일암을 짓고 내려오셔서 다시 만났어요. 만남이라고 해봤자 스님은 불일암에 계시고 저는 송광사 선방에 있었으니까 지나면서 인사나 드리는 정도였어요.” 대한불교조계종화쟁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담담하게 법정 스님과 인연이야기를 꺼낸다.



요즘엔 스님들이 글 쓰는 일이 흔한 일이지만, 오래전 절집에서는 글 쓰는 일이 환영받지 못했다. 도법 스님도 글 쓰는 스님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만은 않았다고 돌아본다. “뭔 중이 시시껄렁하게 글이나 쓰고 있나 생각했어요. 그때 정서로는 용납되지 않았지요. 그즈음 돈점(頓漸)논쟁이 붙으면서 법정 스님도 글로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선명하지 않고, 법정 스님이 자리이타 개념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때는 제가 선(禪) 중심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법정 스님한테 ‘부처님 생애’ 배워
첫 인상 “중이 시시껄렁하게 글 쓰나”
“그때 저는 禪중심 사고 갖고 있었죠”

참선해 깨닫는 것 말고는 다 시시하게 여겼어요. 그런 생각이 들도록 강하게 불을 지핀 분이 성철 스님이죠. ‘부모가 죽어도 쳐다볼 것 없다. 수좌(首座)는 오로지 참선해서 기어코 깨달음을 얻어야한다’ 고 했죠. 그때는 주류가 선방수좌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말석이긴 하지만 어쭙지않게 고무되어 있었어요.” 1981년까지 한국불교는 깨달음과 수행에서 보조국사 지눌 스님 돈오점수 사상을 선불교 핵심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당신 책 〈선문정로〉에서 깨친 뒤에도 계속 닦아야 한다는 돈오점수를 비판하면서 깨달은 뒤에는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고 돈오돈수를 주장해 돈점논쟁 불을 지폈다.

도법 스님은 십여 년이 넘도록 선방에서 정진에 정진을 거듭했지만, 뜻대로 깨달음이 오지 않자 회의가 들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가 싶어 곁을 둘러봤다. 그러나 선배들이나 친구들 또한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별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만 그런가? 해서 봤더니만 비슷비슷해요. 오로지 내 문제에만 골몰되어 있다가 바깥을 보게 되었어요. 둘러보니까 경전에서 배우고 법문을 듣고 전통에서 알았던 내용과 달리 이치에 닿지 않는 점이 많고, 도덕관점으로 봐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합리는 더욱 아니고. 좌절감과 회의가 밀려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내 길을 찾아야하겠다고 나오죠.” 그때 송광사 방장 구산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법 수좌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도법 스님이 선원에서 나와 자기 길을 가겠다며 출가한 절인 금산사로 돌아간다고 하자, 도반 하나가 대뜸 “네 본사를 찾아가 불을 싸질러버릴 테다.”하고 거칠게 나왔다. “분위기가 그랬어요. 허튼 짓거리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길이 으뜸인데, 제법 잘 가고 있다며 기대를 걸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변절이랄까 낙오하는 친구에게 애정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또 제가 지금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단한 선배 한 분은 ‘너, 인생 갈림길에서 빠이빠이 하는 거다 이제.’ 그랬어요.” 고행을 포기한 싯다르타에게 침을 뱉고 떠나간 다섯 비구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다며 떠났는데, 정리하는데 한 오년 넘게 걸렸어요. 논리로도 정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는 점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최근 민족사 윤창화 사장이 ‘경허 스님 무애행 후회’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세상이 떠들썩한데, 법정 스님은 당시 막행막식(莫行莫食)을 하는 일부 몰지각한 승려들은 물론 일반불자들에게도 계정혜 삼학에 따른 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겨 교육제도 개혁에 힘을 쓰는 한편 송광사수련원장을 맡아 불자교육을 이끌어 템플스테이 효시를 이뤘다. 당신 또한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처음 계를 받은 하안거

선방정진 ‘깨달음’ 오지 않아 회의
승가대중단체 ‘선우도량’ 설립
법정 스님은 수련원 열어 불자교육

해제 때면 늘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처음 마음을 돌이켰다.

도법 스님은 모순과 혼란을 거듭하는 한국불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도반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하다가 ‘선우도량’이란 승가대중단체를 만든다. 선우도량은 ‘우리가 한국불교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해서 종도들이 자기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자.’고 결의하고 교육문제에 매달린다. 그때 선우도량에서 준비한 교육 틀이 94년 조계종단 개혁 때 거의 모두 반영이 되었다. “교육문제를 발제하고 토론하면서 법정 스님을 찾았어요. 기조발제를 부탁드리니까 ‘되도 않는 헛짓거리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편지를 하셨어요. 당신도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도 좌절감을 드러낸 말씀이죠. 그 어른도 좌절감 때문에 바깥으로 나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셔서 기조발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생겨 못 오시고 글만 보내셨어요. 한국불교를 참신하고 바람직하게 만들려는 취지에서 같이 살고 살지 않고,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관계없이, 함께 공감하고 같이 가야 할 분으로 신뢰하고 관심을 이어 왔죠. 돈연 스님이 연결고리였어요. 돈연 스님은 오래도록 법정 스님을 모셨으니까요.” 법정 스님은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 법석에서 가까이 있더라도 뜻이 같지 않으면 십만 팔천 리이지만, 멀리 있어도 뜻을 같이 한다면 늘 함께 한다고 말씀했다.

도법 스님은 최근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을 존경하더라도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해야 한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참다운 존경을 하려면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이제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이 남긴 무소유 환상에서 벗어나야할 때라고 했다. 무슨 말씀인가? 이 물음에 도법 스님은 그 어른들 뜻과 상관없이 환상은 만들어진다. 그러나 석가모니부처님이 불교를 한 까닭이 환상을 깨자는데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은 꿈을 꾸자고 하는데 불교진리는 꿈 깨라는 말씀이다. 부처님은 그런 문제의식으로 불교를 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부처님을 가지고 자기 환상을 만들어내듯이,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처럼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어른들 환상도 만들어진다며 운을 뗀다. “불교관 문제라고 봐요. 성철 스님이 갖고 있는 불교관이나 실천론에 저도 한때는 공감했죠. 그것이 한국불교 대세였으니까요. 법정 스님은 건전하고 참신한 지성을 갖춘 불교인으로 이치에 닿는 올바른 수행자로 공감되는 점이 많은 분이었어요.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잖아요. 대승불교 세계관과 정신으로 제시된 불교인상이 보살인데, 대승보살 상징이 연꽃입니다. 연꽃은 피고름이 뒤범벅이 된 진흙탕에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피어내잖아요. 그러면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외려 둘레를 정화시키죠. 그런데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 삶은 연꽃보다는 난초에 견줘야하지 않을까요. 고고하고 향기롭죠. 그러나 대승불교가 가리키는 인간상으로는 어떨까요? 물론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삶도 보살 삶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탐진치라고 하는 피고름이 들끓는 현장에 두 발을 딛고 서서 꽃을 피우면서 탐진치란 피고름을 정화시켜냈다고 하기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두 어른은 연꽃이라기보다는 난초꽃처럼 살아간 분들이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어른들은 그대로 너무 훌륭하고 고맙지요. 그러나 한국불교 현실에서는 연꽃에 견주어지는 불교인, 출가수행자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요.”

도법 스님은 법정 스님이 대중과 부대끼지 않고 멀찌막이 떨어져 살면서 당신이 본 세상이나 생각을 아름다운 글로 풀어냈기 때문에, 수행자 삶은 마치 똥오줌은 없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만 있어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를 대중들에게 품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잇는다. “대중들은 수행자란 추한 똥도 역한 똥냄새도 없이 아름답고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법정 스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글에 드러나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법정 스님만이 진짜 스님이야. 고결하고 향기로워. 스님은 그래야 해’라는 환상이 만들어졌죠. 그 틀에 맞추면 다른 스님들은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불만을 갖고 화를 내잖아요. 성철 스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년 동안 해인사 강원과 선방에서 살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철 스님은 별로 매력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어른이 불교를 보는 안목은 저보다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논리로도 수긍이 가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다만 그 분이 깨달은 어른이고 선지식이니까 비록 제 이성과 사유로 이해되거나 수긍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5년 11월 27일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이 군위 인각사를 향해 가고 있다.

이 가지 않는다하더라도 제 능력으로 볼 수 없는 더 심오한 뜻이 있겠지 하는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승복되지 않는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분은 신화가 되셨잖아요. 세속을 멀리하고 은둔했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 청정하다는 환상이 만들어졌고, 그 어른이 검정고무신과 누더기로 상징되어지는 무소유도 본의가 어찌되었던 대중들한테 비쳐질 때는 법정 스님처럼 고결하고 담백한 꽃으로서 출가수행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환상을 떠올리게 했죠.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어른들도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불도 때고 사셨잖아요. 성철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 사셨고 법정 스님은 송광사, 불일암에 사시다가 길상사에도 계셨는데, 해인사, 송광사, 길상사 이 절들이 돌아가니까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삶이 가능했죠. 그러면 백련암이나 불일암이 돌아가도록 하는 힘은 뭐겠어요? 들여다보면 돈 백 원 벌려고 땡볕에서 땀 흘리고 추위에 떨고, 이른 새벽에서 늦은 저녁까지 사하촌(寺下村) 거리에서 나무 팔고 감자 판돈이 들어와서 절이 운영된다는 말이에요. 또 절을 운영하려고 기복(祈福)이나 상업 수완을 끌어들이잖아요. 이곳을 저는 혼탁한 연못이라고 봅니다. 이 바탕에서 길상사도 돌아가고 불일암도 돌아가고 해인사도 돌아가고 백련암도 돌아가잖아요. 과연 그 분들 고결함과 향기로움이 혼탁함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모든 영광은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한테 가고 모든 비난은 상업화되고 기복으로 몰고 가는 절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만 쏟아지잖아요." 침대에 사람을 맞춘답시고 팔다리를 잘라내는 테세우스 침대처럼, 누구라도 환상으로 만들어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멋대로 재단하고 도리질을 치는 세태를 꼬집는다. 똥냄새 없이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풍겨날 수 없는데, 똥냄새 없이도 꽃이 피고 향내가 날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똥냄새 없이 꽃피고 향내날 수 없어 성철 · 법정 스님의 환상 벗어나 냉철한 비판 · 진지한 존경 함께가야"

지면 결국 실제 삶이 왜곡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판 없는 존경은 맹종일 수밖에 없고, 또 존경 없는 비판은 비난과 매도가 될 위험성이 높아 냉철한 비판과 진지한 존경이 늘 함께 가야만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다.

돈오돈수를 주장해 돈점논쟁을 일으킨 책 〈선문정로〉 윤문을 도왔던 법정 스님은 윤문을 부탁하러 온 원택 스님에게 일점일획이라도 어른 뜻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겠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정작 법정 스님은 '깨닫고 난 뒤에 계속 닦아야 한다.' 는 돈오점수를 주장하는 쪽이었다. 그런데도 윤문을 정성껏 도와드린 까닭은 성철 스님을 존경하기 때문이었다.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과 뜻을 달리한 일이 더 있었다. 1968년 가을, 성철 스님은 해인사 방장이 되고 나서 신도들에게 삼천 배를 시켰다. 한여름 남녀대학생 수백 명이 법당에서 절을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바람에 옷이 젖은 몸에 달라붙어 보기 민망해 하던 법정 스님은 칼럼에 "몇 시간동안 몇 천배를 채우겠다는 기록의식에서인지, 아니면 최면상태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숨 가쁘게 굴신운동(屈伸運動)을 하고 있었다. 하필이면 부처님 앞에서 그토록 경박스런 동작으로 굴신한단 말인가."라고 썼다. 방장스님은 신심을 가지라고 삼천 배를 시켰는데, 꼭 그랬어야 했느냐는 해인사 삼직(三職) 스님들 항의에 법정 스님은 미안하다. 그러나 신심도 없어 보이고 볼썽사나운데, 방장스님이 시킨 일이라고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 소동이 빚어진 일이 있었다. 그 밑바탕에 성철 스님을 존경한 법정 스님과, 존경했기에 건강한 비판을 한 법정 스님이 함께 자리했으리라.

만남이 '부처님 생애' 이기 때문이었을까. 법정 스님이나 도법 스님은 석가모니부처님 말씀을 헤아리는 일이 불교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했다. 법정 스님은 〈불타 석가모니〉와 〈숫타니파타〉, 〈진리의 말씀〉을 간결한 우리말로 번역했으며, 사람 붓다 일대기를 꼭 써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끝내 담아내지 못하고 열반에 들었다. 도법 스님은 〈내가 본 부처〉에 더 불행하기도 어려운 처지에서 스스로 평화가 된, 사람 싯다르타를 담백하고 순도 높게 풀어냈다. 부처님이 당신이 쓰던 말을 버리고 천민들 말로 진리를 펼쳤듯이, 법정 스님도 당신이 즐겨 쓰던 말을 내려놓고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한글로 세상과 진리를 나눴다. 도법 스님 또한 부처님이 49년 동안 한 발 한 발 걸어서 누구하고라도 말씀으로 진리를 나눴던 뜻을 깊이 헤아려 5년에 걸쳐 생명평화순례를 하면서 삼만 리를 걷고 8만이나 되는 사람들과 만나 말씀을 나눴으며, 오늘도 세상을 두루 오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격 없는 말씀으로 세상 멱살을 잡는다.

연재를 마치며, 만 2년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동안 소중한 지면을 선뜻 내어주고 보살펴 준 현대불교 식구들 그리고 솜씨 없는 글을 읽느라 고생한 독자들께 엎드려 고마움을 전한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옥잠화


동국대 명예교수

봉선화가 질펀하게 놀다 간 도량에 옥잠화가 선 보였다. 옥잠화의 잠은 비녀 잠(簪) 자이다. 옥잠화가 피는 계절이 오면 열병을 앓게 된다. 머리속에는 어느새 디카가 자리 잡고 헤일 수 없는 추억의 사진들이 집어등 마냥 꼬리를 문다. 아마 추억이란 꽃말을 가진 마력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꼭 그렇지 만은 않은 듯도 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쪽진 헤어스타일을 두리번거리며 유심히 찾아보려고 하지만 허사다. 추억을 쫓는 길목에서 그만 방향을 잃기도 한다. 어머니의 모습을 찾으려는 시도였었는데도. 어머니는 쪽을 찐 머리에 은비녀를 꽂으셨다. 이따금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참빗으로 머리를 빗곤 하셨다. 그런 날이면 난 옆에 앉아 신비한 경험을 하곤 하였다. 무료해하는 아들에게 뽑힌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비녀의 뭉툭한 곳에 매어 놓고 눈높이로 들어 불면 신기한 소리가 나는 비녀를 귓가에 들려주던 소리가 있다. 비녀가 돌면서 종의 맥놀이 현상이 일어난다. 단순한 맥놀이가 아니라 백만 대군이 진군하는 말발굽 소리가 선연하다.

순백의 옥잠화를 피우기 위해 열 쌍의 맥이 둘러싸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침이 있을까봐 열 쌍의 맥은 좌우로 살피고 상하로 살펴가며 안전하다고 생각한 후 꽃을 피워내는 모습에서 배려와 성찰을 배우게 된다. 라일락 향기 보다 진한 옥잠화 향기는 아마 천상의 향기가 틀림없다.

옥잠화의 전설을 들어보면 더욱 그렇다. 피리를 잘 부는 청년이 있었다. 예전처럼 외딴 정자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다. 아름다운 선율에 끌려 선녀는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와 아름다운 곡에 취하게 되었다. 먼동이 트자 선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날 채비를 하였다. 청년은 이별의 애절함을 달래려고 정표를 부탁하게 된다. 비녀를 뽑아 건내려고 하는 찰나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비녀를 애써 찾으려고 하였으나 비녀는 간데없고 그 자리에 하얀 옥잠화가 피었다고 한다.

몇 일전 앞좌석에 앉은 젊은 아낙이 아기를 품에 안고 앉았다. 이 아기는 뒷좌석에 앉은 내가 신기했던지 아니면 소통이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얼굴을 마주치면 앙글거리고 엄마 품속에 얼굴을 묻었다가 이내 앙글거리기를 연발할 적마다 난 미소를 보냈다. 저 아이는 더 자라면 엄마와 다양한 퍼즐게임도 할 것이고 엄마 손을 잡고 유아원도 가겠지…. 그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목적지에 당도하였다.

예전엔 웬 보부상들이 그리도 많았던지. 이들이 하룻밤 유숙하기를 간청하면 어머니는 거절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집에서 묵을까 염탐할 필요도 없이 어느 동네에 가면 누구네 집에 인심이 후해 묵을 수 있다는 정보쯤은 그들 간엔 잘 아는 터였다. 조붓한 방에 낯선 객이 동침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었겠지만 아무 내색도 없이 거두어 주신 어머니의 품이 퍽이나 넉넉했던 듯 하다. 아침밥까지 한 상에서 나눈다. 지금 세상의 눈으로는 측량하기 어려운 일이다.

옥잠화는 약간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란다. 추위에 견디는 능력도 탁월하다. 항상 지고 살며 양보를 생활화 하며 뒷전이 자신의 자리인 양 늘 그렇게 사신 분이다. 또 기억하고 있다. 땀내가 밴 수건과 옷, 밭에서 김을 매다 내가 다가가면 오이 덩굴을 이리저리 헤쳐 오이를 발견하면 가시 돋친 물외를 따 석세베 치마에 쓱쓱 문질러 손에 들려주던 손길이 그립다. 추억은 이렇게 애절하고 그립기만 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추억마저 없는 사람은 어떨까. 그들도 추억이 없는 것은 아니련만 얕고 순간적인 것들이 아닐까 한다. 나의 추억의 보고 같이 크고 다양함을 찾기란 어려울 것 같다. 추억의 무진장은 그래서 좋다.

자식이 커서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다는 안갚음이란 말도 내게는 사전에나 있는 말이 되고

옥잠화 피는 계절 열병 앓아 추위에 견디는 능력 탁월해

말았다. 무엇 하나 베풀 수 있는 길이 없으니 그렇다. 그리움의 속성은 부재인 듯하다. 유명을 달리한 지금 만나보고 추억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 뿐이다.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것이다. 그 길만이 열병도 작게나마 치유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님. 법계의 유주무주 고혼 애혼들이 이승의 모든 집착과 애욕, 고통을 여의시고, 생멸을 벗어난 절대의 진리를 얻어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기 바랍니다.

정조 이전만 해도 비녀에 온갖 장식이 다르고 종류도 다양하여 사치의 표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정조는 발제개혁을 단행하여 여성의 전유물이 된 쪽 머리는 거센 문명의 물결에 밀려 타래머리와 함께 사극에서나 이따금 볼 수 있게 되었다.

피어 있는 옥잠화의 향기를 만끽하다가 떨어진 꽃에 눈길이 멈춘다. 들추어 보기도 한다. 저 꽃에 긴 머리카락으로 매달아 예전처럼 바람을 불어보고 싶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은 일.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찾을 길 없으니. 가질 수 없기에 허전하고 누릴 수 없기에 허탈한 것이라면 난 그리 순응하고 싶지 않다. 다 갖고 다 누리고 싶다. 추억이란 비행선에 올라 몇몇 세대를 거슬러가다 보면 진짜 누리고자 했던 세계가 나오겠지. 꿈이 아니다. 그곳에는 은비녀의 말발굽 소리가 있고 석세삼배의 내음도 은은할 것이다. 육신에 이별이 있다면 영혼엔 변질되지 않는 추억이 있기에 인간은 지치지 않을 수 있다.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파고다의 황금 빛 파노라마를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5일 (목,토요일 출발) 특가 899,000 (유류세 별도)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짜익티오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7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스님들 추천 상품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 중국 지장도량 (구황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 12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인도성지순례 - 6명이상 출발 가능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9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네팔 인도 불교8대성지 완전정복 13일. 대한항공 직항. 월요일 출발가능 / 요금문의
* 인도상품 다양합니다. 문의주세요
▣[실론티의 나라]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 189만원. 금-일요일 출발
▣라오스 성지순례 6일 / 토요일 출발 /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혜거 합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美 불교성직자, 진화론 서명운동 동참

'성직자 서신 프로젝트' 창시자 짐머만 교수 "환영한다"


美 생물학자 마이클 짐머만(60 · Michael Zimmerman)

미국 기독교, 유대교, 유니테리언 만인구원론자(Unitarian Universalist)교회 등 기독교 계파의 성직자들이 중심이 돼 진화론 찬성에 서명하는 운동인 '미국 성직자 서신 프로젝트(the Clergy Letter Project · 이하 서신프로젝트)'에 최근 불교성직자들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미국 성직자 서신 프로젝트'는 2006년 美 생물학자 마이클 짐머만(60 · Michael Zimmerman) 워싱턴 에버그린 주립대 교수가 창립한 모임이다.

서신프로젝트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theclergyletterproject.org)에는 자신들의 종교적 진리와 현대 과학의 발전이 안정적으로 공생할 수 있음을 믿는 선언문을 게재하고 서명에 동참한 성직자들의 이름과 지역 및 소속교회 등을 함께 싣고 있다.

8월 31일 현재 서명에 동참한 인원은 기독교 성직자는 12816명, 유대교는 494명, 유니테리언 만인구원론 성직자는 260명, 불교는 19명이다.

각 종파의 성직자들은 "종교의식에서 사용되는 경전 및 성서는 적절하게 해석돼야 하며 과학적 진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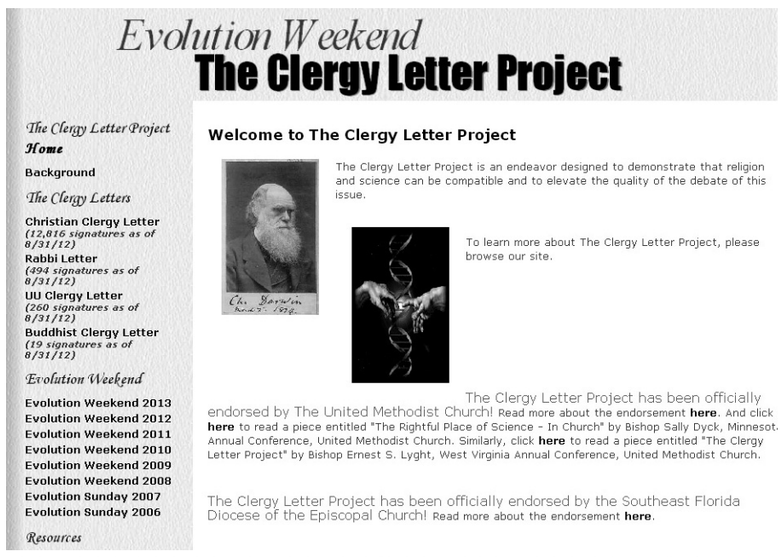
기독교 성직자 모임은 "우리는 진화론이 기초적인 과학적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 진리를 거절하거나 다른 가설처럼 취급하게 되면 과학적 무지를 안고 살아가게 되며, 후세에게 이 무지함을 물려주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우리는 학교 교육 위원들

기독교 성직자 중심 진화론 찬성
근본주의자에 대응해 불교도 참여
불교는 '합리적인 종교' 주장
"부처님 전생담 진화의 은유적 표현"

이 진화론을 인간 지식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 교육 과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과학은 과학으로 종교는 종교로 남을 것을 요구하며 이 둘은 상호보완적인 서로 다른 형태의 진리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유대교 성직자 모임은 "특정종교를 기반으로한 과학과 일반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공립학교의 올바른 역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불교 성직자 모임은 달라이 라마의 "불교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때 우리는 과학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이고 불교의 가르침을 은유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인용문을 언급했다.



마이클 짐머만 워싱턴 에버그린 주립대 교수가 창립한 모임 '미국 성직자 서신 프로젝트(the Clergy Letter Project)'의 공식홈페이지.

마이클 짐머만 교수는 "서신프로젝트 회원들은 미국 불교인들의 서명동참을 환영한다"며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진화론을 널리 알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캄보디아 불교 전문가

세계의 불교학자(31)

이안 해리스 英 세인트 마틴대 교수



이안 해리스(Ian Harris · 60 · 사진) 영국 세인트 마틴 대학 교수는 초기불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불교를 깊게 연구해 윤리학 · 정치학 분야에서 불교적 접점을 찾으려는 학자다.

영국 남부 켄트 지방의 길링함(Gillingham)의 그래머 스쿨(Grammar school)을 졸업한 해리스 교수는 랭카스터대 종교학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비교종교학의 중심지역할을 하던 랭카스터대에서 해리스 교수는 테라바다 불교를 중심으로 초기불교를 연구하다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남편인 마이클 아리스(Michael Aris)를 찾아 옥스퍼드대로 향했다.

마이클 아리스는 옥스퍼드에 티베트학 연구가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한 영국인 티베트 학자로 해리스는 마이클 아리스 가족과 인연을 맺고 동남아시아 불교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은 해리스 교수는 1985년 랭카스터대학 종교학과에서 초기불교철학의 역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영국남부 그래머스쿨에서 종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1987년부터 랭카스터의 세인트 마틴대학에서 종교학과 강사로 재직하게 된다.

당시 불교윤리학(Buddhist Ethics)분야에서 주로 활동한 해리스 교수는 불교와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으며 데미언 키온(Demian Keown · 런던 골드스미스대 인도종교학과 교수)와 〈불교윤리학 입문(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의 저자인 피터 하비(Peter Harvey · 英 썬더랜드대 교수)와 교류하면서 불교윤리학이 불교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정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해리스 교수는 영국불교학회(UK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의 창립멤버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불교윤리학회(Journal of Buddhist Ethics)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9년 해리스 교수는 영국연구원(British Academy)으로부터 캄보디아 현지조사를 위한 연구기금을 받아 2002년까지 4회에 걸쳐 캄보디아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미얀마 · 태국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캄보디아 불교를 현지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그는 美 하와이대 출판부에서 〈캄보디아 그 역사와 실천(Cambodia Buddhism: History and Practice)〉이라는 책을 출판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당시 캄보디아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한 개혁의 바람이 불던 때로 크메르 루즈의 탄압으로 파괴됐던 불교가 새로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책에서 그는 앙코르 문명의 쇠퇴와 함께 테라바다 계열의 남방불교가 캄보디아에서 점차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풍부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다.

테라바다 중심 초기불교 연구
아웅산수치 부부와 인연
동남아 불교에 관심가져
윤리 · 정치학과 불교 접점찾아

또한 그는 책에서 크메르 루즈에 의해 거의 파괴됐던 캄보디아 불교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2005년 세인트 마틴대 종교학과 교수로 임용된 해리스 교수는 불교와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갖고 〈불교, 권력 그리고 정치질서(Buddhism, Power and Political Order)〉라는 책을 출판했다.

책에서 그는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불교가 정치권력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교류해 왔는가를 살피면서 종교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밖에 해리스 교수의 대표적 논문으로는 대표적인 논문으로 '불교는 얼마나 환경친화적인가?(How Environmentalist is Buddhism?)', 'Religion XXI(1991)', '불교환경론 첫걸음 : 임시적 유형(Getting to Grips with Buddhist Environmentalism: A Provisional Typology)', 'Journal of Buddhist Ethics(1995)', '불교와 생태학(Buddhism and Ecology)' 'Contemporary Buddhist Ethics, ed. Damien Keown, Curzon (2000)' 등이 있다.

이나은 기자

"中 신화통신, 달라이 라마 감시한다"

캐나다 언론인, 인터뷰서 폭로

"중국 국영 통신사 신화통신이 달라이 라마를 감시한다."

캐나다 출신 프리랜서 기자인 마크 부리(Mark Bourrie · 55)가 "중국 국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이 달라이 라마를 감시하는 것을 보고 일을 그만뒀다"고 폭로했다.

마크 부리씨에 따르면 신화통신 캐나다 오타와 지국은 4월 27~28일 오타와를 방문한 달라이라마의 주요 활동에 대해 비디오 촬영과 기록을 했다.

그는 "4월 27일 달라이라마가 회의장으로 들어설 때 신화통신 기자들은 언론인으로서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하는 것이 확실했다"며 "당시 내가 신화통신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 마치 중국의 스파이로 느껴져 달라이 라마의 연설이 끝나자 마자 집으로 돌아가 오타와 지국에 일을 그만두겠다는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마크 부리의 주장에 대해 신화통신 오타와 지국은 강력히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 9월 초 캐나다 국회의원이자 외교부장관의 국회비서인 밥데커 의원과 토론토 주재 중국 관영신화통신의 스룽(施蓉) 기자의 스캔들이 폭로된 적이 있다.

당시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은 "중국은 줄곧 해외에서 정보를 적극 수집해왔다"며 "작년에는 캐나다 안전정보국(CSIS) 국장 리처드 패든이 중국 특무(스파이)가 이미 캐나다 정 치인들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고 경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리씨의 주장으로 중국 언론 해외 주재 사무실이나 특파원들이 중국 정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오래된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나은 기자


중국 신화통신의 달라이 라마 감시활동을 폭로한 캐나다 출신 프리랜서 기자인 마크 부리(Mark Bourrie)

말레이시아, 세계불교회의 개최

소승 · 대승 불교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웰빙의 삶을 사는 방법을 토론하는 세계불교회의(World Buddhist Conference)가 말레이시아에서 11월 3~4일 개최된다. 쿠알라룸프루 이스타나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부정적인 감정 초월하기-행복한 웰빙의 삶 창조를 위해'를 주제로 한다.

기조연설을 맡은 타이 시투파 린포체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을 주제로 의 개발을 위해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페낭에 위치한 단향사 주지 웨이우 스님은 유치원 고아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불교의 보리심을 어떻게 사회에 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이 밖에 쁘라 수간다, 게쉬 다둘 남걀, 툽텐 쵸기 등 세계 저명 학자들이 나와 발제를 맡는다. 참가 희망자는 www.wbc.my 는 방문하면 된다.

이나은 기자

두타선원(頭陀禪院) 文化센터 수강생 모집

【수류도, 참선, 불교교리, 사경, 사불, 서각, 한국화】

개강 : 2012년 9월 3일 월요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상임을 알아야 성품이 보이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금번 두타선원 문화센터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생활속에서 간화선과 자연과 하나 되어 수류도(水流道)의 몸수련, 마음수행을 동시에 이루고 유식 30송의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과 사경을 통해 혜안을 통투하고 한국화와 서각을 통하여 작품세계에 깊이 몰입하므로 견성을 체험하시어 깨달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강의내용과 시간표】

	오후 2시 ~ 4시	저녁 6시30분 ~ 9시30분
월	불교입문 교리 및 경전강의 동국대 박사과정수료 〈정화스님〉	수류도법 지도자 과정(스님들 포교에 도움) 몸수련, 마음수행, 몸과 마음은 하나 〈본선원장 법헌스님〉
화	간화선 생활수행 네가있어 내가 존재한다 〈무아선원장 혜원스님〉	유식 30송 불안, 걱정 제거법 수행 〈무아선원장 혜원스님〉
수	수류도법(水流道法)수련 몸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휴면 근육재생 및 호흡법 〈법헌스님〉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32체 〈법헌스님〉
목	서각 및 목공예. 기초-작품까지 대한민국 미술대전초대작가 〈대한명인심사위원 죽허 김정규〉	한국화, 문인화(사군자)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 〈심사위원 송원 이연재〉
금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 32체 〈법헌스님〉	수류도법(水流道法) 허상의 관념관습을 버려야 참마음을 알게된다 〈법헌스님〉

전화 02)747-4268. 010-4413-4268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6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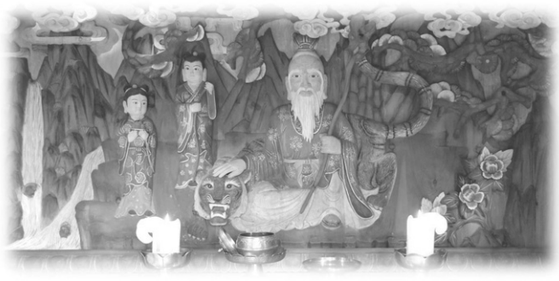
* 종무직 봉사자 모집 (혜택 : 수강하고자하는 과목 모두 무료)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4,5번 출구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치아사리 봉안 사찰

봉 금강산 건봉사 가을 산신대재 행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석가세존 진신 치아사리 봉안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에서는 모든 이들의 안녕과 흥복을 기원하는 산신대재를 매년 지내왔습니다. **산신신앙은 자식과 재물을 기원하는 민간의 고유 신앙이며 산신대재는 불교에 수용된 한국 종교 특유의 기원재입니다. 득남득녀, 건강발원, 좋은인연, 시험합격, 사업번창 등 소원을 속히 성취**시켜주시는 호법신장님이 바로 산신님입니다. 올 가을에도 변함없이 여러 불자님과 더불어 힘든 우리들의 삶을 금강산 산신님의 위신력으로 풀고 삶의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산신대재를 전통의식으로 여법하게 봉행하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고 스님들의 독송이 온 산에 울려 퍼질 때 금강산과 하나 되어 건봉사 산신님의 크신 원력을 체험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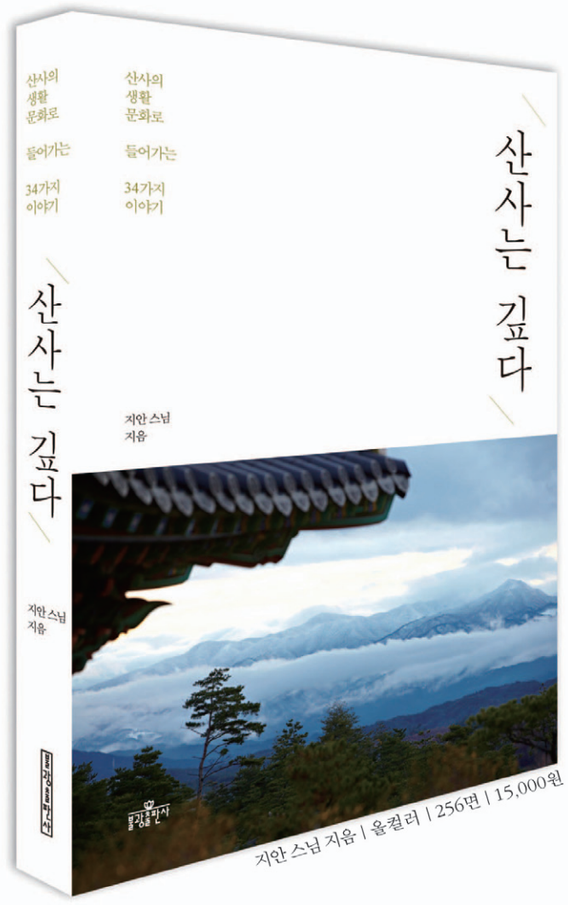
일 시 : 불기 2556년(2012년) 10월 6일 (토) (음 8.21) 오전 10시
장 소 : 금강산 건봉사 산신각
기도동참금 : 5만원 (당일 포함 7일간 축원)
계 좌 번 호 : 농협 247-01-251767 예금주: 건봉사
접 수 문 의 : 전화 033)682-8100-2 FAX 033)682-5994
차 량 문 의 : 서울 _ 건봉사 종무소 033)682-8100 (VIP관광)
부산 _ 불광회 박길하 거사님 011-855-8741
충청 · 대전 _ 불자회 011-9415-8717
전남 · 광주 _ 정길태 011-604-2377 (에버그린 관광)
건봉사 서울포교당 벽운사 _ 02)979-0108

당일은 혼잡하니 미리 종무소로 전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은 각 지역별로 접수, 출발하고 서울은 10월 6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033)682-8100-2

소임
기침
도량석
종송
예불
공양
간경과 논강
운력
염불
기도와 정근
취침
출가
삭발
수계
법명
가사
총림
안거
용맹정진
포살과 자자
대중공사
경행
시봉
만행
토굴
다비와 사리
법회와 재일
시다림과 49제
시식
축원
방생
관불과 엄등
우란분절
보살계



우리 산사의 진면목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풀어낸 적이 있었을까!

지안 스님의 40년 절집 생활에서 걸러낸
산사 생활의 정수

지안 스님 1970년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정법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 조계종 승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이자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t@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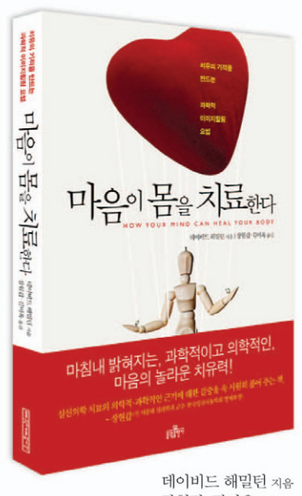
HOW YOUR MIND CAN HEAL YOUR BODY

놀라운 치유의 기적,
이제 당신도 느껴 보라!

교보문고 YES24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치유의 기적을 만드는
과학적
이미지힐링 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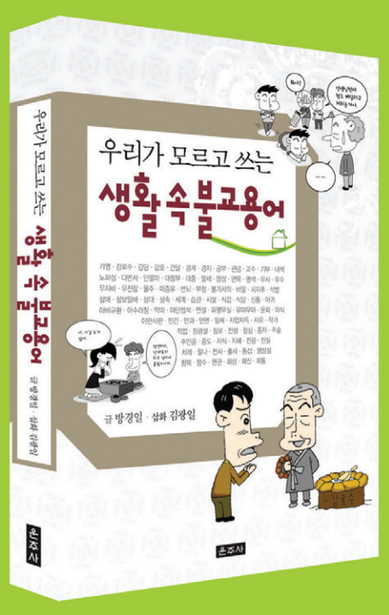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데이비드 해밀턴 지음
장현갑·김미옥 옮김
372면 | 17,000원

심신의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해밀턴 박사가 내놓은 이 획기적인 책은 이미지힐링과 믿음, 긍정적 사고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다. 저자는 혁명적인 '양자장 치유법'을 언급하면서 상상력과 사고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방어 기제와 치유 시스템을 강화시켜 각종 질병을 물리치는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방경일 글/김광일 삽화/국판변형/256쪽/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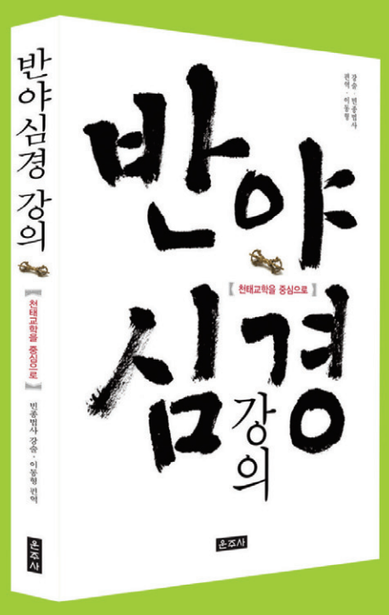
아하, 이것도 불교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 중에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가려뽑아 그 용례와 현대적 쓰임새, 불교적 의미와 기원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천태교학에서 바라본 반야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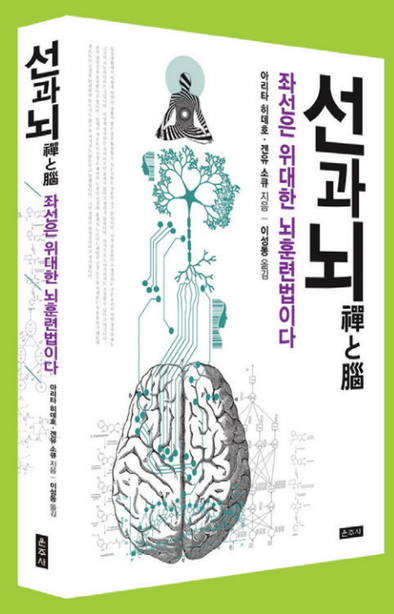
고도의 불교교학이자 실천체계를 겸한 천태교관에 입각하여 『반야심경』을 진공실상과 지관수행이라는 이론과 실천의 두 줄기로 정리한 명저!

반야심경 강의



빈종법사 강술/이동형 편저/신국판/354쪽/15,000원

선과뇌



아리타 히데호 · 겐유 소큐 저/이성동 옮김/국판/252쪽/13,800원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임제종 승려가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좌선과 명상의 효과!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 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구단구궁법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완벽함은 시기와 질투 불러"

공중사리탑 청동함의 비밀



낙산사에서 발견된 공중사리탑 청동함(보물 1723호)

2011년 11월에 양양 낙산사에서 발견된 공중사리탑 내의 사리장엄구가 보물 1723호로 일괄 지정됐다. 당시에 거센 해풍과 낙산사의 화재로 인해 탑신이 약간 기울어지면서 수리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6년 4월 28일 기울어진 탑신을 제거하고 공중사리탑(空中舍利塔)을 보수하던 중, 탑신석 상면 중앙의 원형사리공(직경 23cm, 깊이 17cm)내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공중사리탑이란 명칭을 지닌 유일한 문화재가 '공중사리탑'이다. 그 연유는 조선 중기에 홍련암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자세히 들어보니 부처님의 사리 한 과를 내리니 소중히 보관하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나서 홍련암 천정 아래로 갑자기 사리 한 과가 떨어져 내리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 기이하게 여긴다. 당시의 양양부사에게 이를 알리니 그가 조정에 알려 많은 내명부

양양 낙산사 공중사리탑
찌그러진 사리함 뚜껑 '눈길'
마구니 질투 막기 위한 방편

의 비빈들이 다투어 보시를 하여 세운 탑이 공중사리탑이다.

한국 불교 석탑의 최고 권위자인 정영호 교수님에 의하면, 이 공중사리탑은 1692년이라는 정확한 건립연대가 밝혀져 비슷한 시기의 여러 탑들과 관련 석조물의 편년에 소중한 근거가 되고, 또한 매우 드문 경우의 승탑형 불사리탑의 새로운 실례라고 한다.

셋째로는 양식사적으로나 세부사항에 있어 조선시대왕릉의 장명등과 유사하여 왕실 석조물과 그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으며, 인위적인 손상없이 사리병-금합-은합-청동합의 순서로 전통적인 사리장엄구 방식이 유지되고 있는 실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이다.

특히 완벽한 보존상태와 사리탑, 사리비, 사리장엄구가 모두 완벽하게 보존된 희귀한 사례에 속하며, 특히 함께 발견된 비단보자기류는 한국의 직물사에 큰 획을 긋는 작품로 금실과 은실과 각종 색실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모습은 실로 감탄을 금치 못한다.

비단보자기는 총 11점이 나왔는데 모두 복원을 거쳐 정리해 함을 만들어 양양에 있는 구석기유적박물관 수장고에 맡겨놨는데 열어 살펴보니 그 아름답고 정교한 문양과 비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사리를 실제로 보니 콩알만한 크기에 하얀 상아빛의 동그란 사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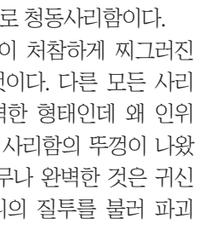
그 안에서 경면주사(鏡面朱砂)를 갈아서 쓴 발원문과 시주자들의 발문이 적힌 많은 문서들이 함께 나왔다. 금사(金絲)로 부처님의 명호를 짜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상문을 새겨 넣기도 하였는데, 지금 아무리 뛰어난 직물전문가의 솜씨로도 그런 정교한 문양을 짜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 사리장엄구는 우리나라 사리장엄구 가운데서도 보기 드물게 완벽하게 잘 보존된 일괄의 사리구로 보물로 지정됐다. 그런데 여기에도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동사리함이다.

사리함의 뚜껑이 처참하게 찌그러진 형태로 발견된 것이다. 다른 모든 사리구들이 모두 완벽한 형태인데 왜 인위적으로 찌그러진 사리함의 뚜껑이 나왔을까? 그것은 너무나 완벽한 것은 귀신의 시기와 마구니의 질투를 불러 파괴될 가능성이 많아서다.

너무 완벽한 존재는 지나친 오만함과 교만으로 머지않아 많은 장애와 반발로 쉬 무너지는 경우를 보아왔다. 이 사리함의 뚜껑도 그런 이유로 해서 일부러 훼손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래된 도자기나 명품도자기도 그대로의 아름다움도 좋긴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깨지는 경우 그 조각을 잘 붙여 복원한 것은 너무나 아름답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다. 서로 서로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돕고 사는 사회가 바로 인간사회이다.

또 부족한 사람은 겸손해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동사리함의 찌그러진 뚜껑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펜화로 되살아나는 신라 다보탑의 '美'

김영택 경주시 초청 특별 기획전
8~23일, 경주 예술의 전당



'인간 시각 표현법' 화법 개발
10개국 문화유산 화폭에 기록
78차 국제 펜 대회와 함께 개최

"펜화로 그린 우리 문화유산은 한국문화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사물을 표현해 내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 등의 첨삭과 삭제를 통해 사물을 복원하고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펜화는 그 어떤 작업보다 매력적이라 할 수 있죠"

김영택 작가의 특별기획전이 9월 8~23일까지 경주시 예술의 전당 4층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김 씨는 20여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10여 개국의 문화유산을 펜화로 그린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경주시에서 주최하는 제 78차 국제펜대회와 함께 개최돼 눈길을 끈다.

김 작가는 "이번 국제 펜대회는 103개국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시로 경주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의 제의를 받아 대회 기간 동안 대규모 전시를 함께 열게 됐다. 평생 동안 그린 펜화가 대거 전시되다 보니 나 스스로도 무척 긴장되고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경주시의 초청을 받은 전시인 만큼 풍성한 불교 문화재 작품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는 불국사 다보탑 복원도, 불국사 전경, 황룡사 복원도 등 경주의 문화재를 담은 작품들이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작품 역시 김 작가 작품의 특징인 '인간 시각 표현법'이 도입됐다.

"제 펜화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시각을 거치고 고증을 거쳐 축소 확대 변형해 재탄생한 것입니다. 사진은 일종의 원근법에 가깝지만 사람의 눈은 한 덩어리의 이미지로 풍경을 기억하죠. 이처럼 인간의 시각화된 이미지에 동양화적 기법과 감성을 불어 넣은 것이 제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는 서구 그림의 원근법이 인간의 시각과 크게 다른 점에 착안해 '인간시각 표현법'이라는 저만의 화법을 개발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보탑 복원도 역시 현재 사라져 버린 탑 난관과 일제시대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자상 복원에 공을 들였다. "현재 남아 있는 구멍 등으로 보아 다보탑에는 분명 난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 작품에 반영했죠. 또한 현재 탑에 남아 있는 사자상은 하나지만 사면에 다 배치돼 있었을 것이라 학자들이 추정해 이 또한 복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 남은 탑 중간 사자상의 배치가 틀렸다는 논란도 있지만 난관을 복원해 보면 탑신부를 지키는 사자상의 위치가 바로 중앙이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김영택의 '다보탑'. 난관과 사자상 등을 복원해 옛 모습을 살렸다.

김 작가는 2001년부터 중앙일보에 김영택의 펜화기행을 연재 상상력을 발휘한 역사적 고증으로 10여 개국의 다양한 문화재를 작품으로 펼쳤다. 부석사 무량수전, 경복궁 향원정, 쌍봉사, 광화문, 숭례문, 기념비전, 서대문, 서소문, 경복궁 서십자각, 영은문 등 국내 건축물은 물론 일본 나라 호류지의 금당과 5층탑,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과 판테옹 등 다양한 세계 건축문화재의 복원도를 그려왔다.

"산업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유럽에서 본 펜화를 보고 그때부터 펜 작업을 시작했죠. 평소 건축 고고학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공부한 것들이 현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작품은 단순한 사실 기록화가 아니라 복원 과정을 통해 문화재의 원형을 찾아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씨의 작품은 인천 공항 입국장 통로에 6점이 기재되는 것은 물론 2013년도 발간 예정인 교학사의 중등미술교과서에도 실린다. 펜화장르의 개척자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이번 전시가 끝나면 내년 일본 전시를 통해 한국 펜화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해인사, 서산마애불… 한국인이라면 가보세요

문화부, '한국인이 가봐야 할 관광지 99선' 선정

'한국인이 꼭 가봐야할 국내 관광지 99'에 선정된 서산 마애삼존불. 99곳의 명소 중 불교 관련 명소는 9곳이 선정됐다. 속리산 법주사, 합천 해인사, 서산마애삼존불 등이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를 선정 · 발표했다. 사찰 등 불교 관련 명소로는 평창 월정사 전나무 숲길, 속리산 법주사, 서산마애삼존불, 정읍 내장사, 고창 선운사, 경부 불국사, 경주 남산, 영주 부석사, 합천 해인사 등 9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명소들은 대중적 인지도와 전문가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으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여행지 검색 결과와 전문사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별됐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정 명소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경에는 명소들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도 구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를 실제 방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1박 2일, 2박 3일 등 일정별로 다양한 여행 코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또한 국민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서산마애불

보현사 '가족찬불가대회'

2012 전국 가족 찬불가 경연대회'가 10월 21일 대구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지성스님)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 예선을 통과한 본선진출팀을 대상으로 한다.

각 참가부분 독창(성악 전공자 제외), 중창은 최소 2인에서 최대 12인까지 가능하며 참가곡은 찬불가, 찬불가요, 찬불동요에 국한한다. 예선일정은 서울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예술공연장(9월 23일), 부산 조계종부산연합회교육관(9월 15일), 대구 한국불교대학 옥불보전(10월 6일), 대전 대전동학사문화관(10월 7일), 광주 무각사(9월 22일) 등에서 이뤄진다. (053)582-0757

승광불교미술원



⦿ 불상 : 원형조각, 전문 동불 특수불 각종불상
⦿ 개금 : 벗겨지지 않는 순금개금 개발
⦿ 개채 : 석채 및 유미라이트, 각종안료, 개채
⦿ 탱화 :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 선택 (먹탱화, 홍탱화, 채색)
⦿ 현재 : 종종사 이사. 범종불사
⦿ 불사 상담 ⦿ 불교용품점 운영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8 031)591-7478
원 장 011-226-5336 공방장 010-3179-6561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 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온라인통장(농협) : 227027-51-090791 · 예 금 주 : 남궁성균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이오칼라지붕공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민족 대통합 염원 乾坤坎離로 펼쳐내”

건 곤 감 리

김영옥 ‘아리랑 숨결’展

“세상은 온갖 문제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며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죠. 대통합을 의미하는 아리랑을 통해 세상의 화합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소리 밝은 소리 모두를 담아 하나되는 상생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죠”

김영옥 작가(만다라 미술심리연구원장)의 ‘아리랑의 숨결’展이 9월 25일까지 ‘갤러리 통큰’에서 열린다. ‘건·곤·감·리로 몸과 마음 치유로 다가오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전시는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통합과 화합의 세계를 표현했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우주의 원리와 연기법 등을 민족적 정서로 표현해냈다. 겨울(건乾)-빛을 뿜어내는 영원한 우주 공간의 중심-봄(곤坤), 생명을 잉태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여름(감坎), 생명을 키우는 에너지가 왕성한 세상-가을(리離) 아픔이 치유되어 결실을 맺는 세상 등을 표현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 속에 이미 배어있는 가락이자 음률입니다. 이런 아리랑을 통해 민족의 대이동, 활기, 생동, 신명, 합창, 변화 등의 주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족의 정서와 역사를 하나로 묶는 아리랑을 화폭에 그려냈죠”

이런 대통합을 향한 작가의 바람은 통일의 염원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여름을 상징하는 그의 작품 ‘감’은 괘를 나누어 작업하고 다시 하나로 잇는 작업을 통해 통

민족의 역사와 개인 내면에 착안
현대인들의 상처와 고통 어루만져
9월 25일까지 ‘갤러리 통큰’서

일의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민족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통일입니다. 작은 생각부터 통일에 대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젖줄을 다시 잇는 꿈을 실어 작업에 임했죠.”

김 씨는 지금까지 ‘만다라 새김전’-‘인드라망의 빛’-‘숭례의 문’-‘붉음의 화두’



김영옥 작가의 ‘아리랑 숨결’전이 9월 25일까지 갤러리 통큰에서 펼쳐진다. 그림은 여름을 표현한 ‘감’으로 통일의 염원을 담았다.

등을 통해 내면세계의 지도 그리기를 해왔다. 이런 일련의 주제를 통해 물질의 세계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현대인들의 내면 치유를 시도해 온 것이다.

“제 작품이 의식에서 무의식 세계로 파고 들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 그림을 보는 이들은 물질의 세계를 잊고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국민 첫사랑’ 수지도 반한 템플스테이

KBS ‘청춘불패2’ 템플스테이편 1일 방영

대부도 쌍계사서 촬영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며 인기 몰이 중인 미쓰에이의 수지가 맛깔 나는 사찰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9월 1일 방송된 KBS 2TV ‘청춘불패 2’에서는 바쁜 스케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떠난 템플스테이 여행을 통해 ‘폭식돌’, ‘국민 첫사랑’ 등 대세 아이돌로 불리는 수지의 다양한 매력이 공개됐다.

대부도 쌍계사에서 진행된 촬영장은 수지, 개그우먼 김신영, 그리고 게스트로 출연한 비스트의 용준형, 장현승 등 멤버들이 출연했다. 방송에는 사찰음식 전문가인 대안스님과 함께 사찰음식 만들기, 명상, 참선, 힐링체조 등 절 체험을 하며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가감없이 포착됐다.

대안스님이 차려낸 사찰음식을 맛본 멤버들은 밖에서 먹는 음식과는 다른 건강한 맛에 “맛있다”를 연호하며 음식이 담긴 그릇을 싹싹 비우는 등 왕성한 식탐을 보였다. 특히 대세돌 수지는 촬영 도중에도 스님에게 사찰음식의 레시피를 꼼꼼히 물어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참선 촬영에서는 난생 처음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키는 것



‘청춘불패2’에 출연한 수지와 대안스님

에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는 듯 했지만 이내 깊은 명상에 빠져들며 바쁜 일정 속에 소홀했던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힐링체조를 가르쳐 주는 스님에게 즉석에서 ‘침묵의 007’ 게임을 제안한 멤버들은 아이돌다운 유쾌한 모습과 패기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기도 했다. 게임 벌칙으로 멤버 전원이 돌아가며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진광경이 연출돼 재미를 선사했다.

대안스님은 “바쁜 스케줄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잠깐의 시간이나마 진정한 휴식을 선사하고 싶다”며 손수 준비한 음식과 차를 대접하는 정성을 보였다. 스님은 “이 곳에서 배운 힐링의 시간을 마음에 새겨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나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제국 영사관 환수는 국민의 힘”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나는 뗏놈이여” 102년 만에 미국 워싱턴 소재 대한제국공사관을 되찾은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 이사장〈사진〉은 8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첫 마디를 던졌다.

김 이사장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뗏놈)이 번다’는 우리 말에 빗대어 겸손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자리에 앞서 공사관 매입은 정부와, 정치권, 또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8월 21일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은 1910년 일제가 강제 매각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매입했다. 백악관에서 차로 북동쪽 방향 10분 거리에 있는 로간서클역사지구(Logan Circle Historic District)에 소재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이다.

1891년 11월 조선왕실이 2만 5000달러의 거금으로 매입해 대한제국 말까지 사용한 이 건물은 1882년 열강들의 압박에 맞서 대한제국이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는 등 자주외교를 펼친 상징이기도 하다.

대한제국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공사관은 그로인해 모진 풍파를 겪었다. 일제는 이 건물을 1910년 6월 을사늑약을 2개월



앞두고 단돈 5달러에 강압적으로 뺏는다. 이후 일제는 공사관을 10달러에 재매각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공사관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고, 재미교포사회나 정부에서도 매입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교민사회의 여론을 모으고 정부가 나서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고리에는 3200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민신탁이 있었다.

김 이사장은 향후 공사관을 한국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연내 정밀조사가 실시되고 교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장도 마련된다.

“한국전통과 한류 등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한민족의 기상을 알릴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 환수 및 보존활동도 힘 닿는데 까지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간 굴레와 고통 한국적 정서로 승화”

김복희 교수의 무용 ‘다시 새를…’

불자 무용가인 김복희 교수(한양대 예술학부장)가 9월 7일~8일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서 현대무용 ‘다시 새를 날리는 이유’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에 김 교수는 안무는 물론 직접 무대에 올라 춤을 선보여 다시한번 그의 열정을 펼쳐 보인다.

“항상 무대에 오른다는 마음으로 늘 준비를 하고 있어요. 1년에 한번 정도 공연에 오르는데 항상 이날을 위해 연습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 작품은 모던한 분위기로 연출됐지만 결국은 상처의 치유 그 회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자비 정신과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죠.”

김 교수는 이번 작품의 모티브를 199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토니모리슨의 소설 〈재즈〉에서 얻었으며 이를 한국적 정서로 풀어냈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머니에게서 버림 받은 한 50대 남성이 10대 소녀를 사랑하면서 벌어지는 애욕에 관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펼쳐진다.

“어떤 성격을 가졌든 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시대를 살든 결국 인간은 인간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 삶의 궤적을 따라 돌고 있습니다. 마치 선로 위를 달리는 한 열차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과 차별과 아픔이 그들의 것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 한국인의 아



김복희 교수가 연출하고 출연하는 무용 ‘다시 새를 날리는 이유’

픔이고 경험입니다. 이를 작품으로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김 교수는 십우도 원효대사 등 불교적 정서를 작품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효봉 스님 법정 스님 성철 스님 등과 인연이 깊었고 늘 불교는 내 삶과 작품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왔다. 이번 작품 역시 인간의 탐욕과 갈등의 관계를 파헤치고 그 상처를 회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불교의 자비 정신이 반영됐다”고 설명한다.

현재 김복희 교수는 한양대 예술학부 학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작품으로는 ‘법열의 시’ ‘요석’ ‘신라의 외출’ ‘石女’ 등이 있다. 공연 시간은 7일 금요일 저녁 8시, 8일 토요일 오후 5시다. (02)440-0500

정혜숙 기자

지역민과 함께 문화의 장 펼쳐

백락사…환경설치미술전

백락사와 강원환경설치미술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12강원환경설치미술초대작가전’이 9월 22일까지 백락사 경내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원환경설치미술초대작가전은 물론 기념음악회, 천등제, 미술사생대회 등도 더불어 개최된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한다.

전시는 강원도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작품을 설치, 홍천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새로운 문화의 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백락사는 “마을 주민과 함께 미술품을 제작해 지역의 정서를 작품에 반영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고자 했다. 대중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여느 미술전보다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광흥사 가을 음악회…8일

찬불가 국악 공연 등 펼쳐져

경북 안동 광흥사(주지 범종)가 9월 8일 2012년 가을음악회를 실시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재즈 찬불가 가요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선보여 깊어가는 가을밤을 장식할 예정이다.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은 “광흥사는 세종대왕부터 영조 대왕까지 왕실 원찰로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500년 넘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가을의 소리를 펼쳐보이고자 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해 성대한 음악회를 여니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길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공연은 ▷법문 ‘법성과 함께하는 부처님 소리’ ▷재즈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앙상블’ ▷바우솔 김진호 훈민정음 퍼포먼스 ▷찬불가 ▷도살풀이▷회심곡, 장타령 ▷판소리, 국악 등 으로 구성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좋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고독,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인 순간 나를 만나다
코이케 류노스케 · 미야자키 테츠야 지음
유윤한 옮김
21세기북스 펴냄
1만2천원

〈버리고 사는 연습〉, 〈화내지 않는 연습〉, 〈생각 버리기 연습〉등을 통해 따듯한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왔던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평론가 미야자키 테츠야와 함께 인간의 본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독'에 대해 이야기 한다. 특히 연애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의 고독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를 밝힌다.


고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독은 인생을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변한다.

고독이란 무엇인가. 책은 코이케 스님과 미야자키의 문답으로 풀어간다. "개인이 중시되고 타인과 경계선을 뚜렷하게 긋고 사는 요즘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메일이나 문자를 주고받으며, SNS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려는 것일까? 쓸쓸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고독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늘 연결되어 있다. 문자 메시지나 미니홈피 등을 통해 사람들과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고 의미 없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고독해질 뿐이다. 그 이유는 인간은 늘 기쁜 감정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기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뇌 속에서는 쾌감을 느끼는 도파민이란 물질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데, 특히 현대의 인류는 끊임없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쾌감 자체는 괜찮지만 문제는 이런 쾌감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 마음이 조용하게 가라앉을 틈이 없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말로 연결되는 기쁨은 자주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편지를 기다리는 동안에 맛보았던 쾌감이 빠져나가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문자를 입력한다. 문자는 그때마다 뇌 속에 언어의 형태로 한 줄 한 줄 입력되어, 뇌 속 마약이라 할 수 있는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도록 자극한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연결' 데이터가 끊임없이 입력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뇌 속 신경회로가 늘 도파민의 자극을 받는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도파민 중독' 위기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 분비에서 오는 쾌감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또 다른 자극을 찾는다. 하지만 매순간 새로운 자극을 받아 끊임없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점점 내성이 생겨 효과가 떨어지고 마음은 문란해진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심화되면 어느새 불행해진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고독해지는 것이다.

인류에게 고독은 숙명
벗어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책은 고독의 근원과 고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이후의 문제들을 이야기한다. 고독이 인류의 숙명이라면 그 숙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독을 지워버려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점점 더 큰 쾌감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뇌가 쾌감 도파민으로 넘쳐나 마음이 분별력을 잃게 된다." 책은 고독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받아들이는 순간 고독은 인생을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고독으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다. 숙명과도 같은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 쓸쓸함을 지우고 싶어 한다. 코이케 스님과 미야자키는 이처럼 쓸쓸함을 잊기 위해 부질없는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고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한다. 미야자키가 대담하고 날카롭게 '고독'의 근원을 파헤치며 냉철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코이케 스님은 한층 부드럽고 유연하게 고독을 들여다보고 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한다. 고독에 귀를 기울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독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쓸쓸한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는 동시에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전해줄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종교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종교

원불교, 인권을 말하다

정상덕 · 김기남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4천원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과 원불교인권위원회를 이끌어온 정상덕 교무와 김기남 변호사가 종교와 인권의 관계성을 조명하고 인권이슈에 대한 원불교적 이해와 대안을 제시한다.

책은 역사적으로 종교간 전쟁 또는 종교가 원인이 된 무력충돌이 극심한 인권침해로 이어졌던 사실을 고백하며, '인권'의 신장이어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인권에 소극적이었음을 자성한다. 또한 종교를 인권의 시각으로 그리고 인권을 종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인권논의를 풍부하게 하여 인권의 보편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궁극에는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의 종교인 원불교가 인권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선도하는 종교가 되고자 함이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책은 우선 1장에서 종교와 인권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인권 개념에 생소한 독자를 위하여 인권의 역사를 소개하고 기성 종교의 교리에서 인권의 개념을 발견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아울러 인권체계 속에 종교는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소개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역사적으로 인권활동을 어떻게 해 왔는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각 종교별로 살펴보았다. 또 종교가 인권 유린의 원인이 되었던 현실을 분석하고, 수단의 종교분쟁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와 인권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했다.

2장에서는 원불교의 핵심교리인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요(四恩四要) 사상을 인권적으로 해석하여 원불교가 인권 친화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논란이 되었던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하여 원불교의 평등사상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3장에서 5장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원불교적 관점을 제시하여 인권담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3장은 주로 생명권을 다루고 있는데, 생명복제, 낙태, 안락사, 사형제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먼저 개별 주제에 대한 현황, 개념, 법적 체계, 인권이슈를 다루고 다음에 원불교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4장은 사상의 자유를 다루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슈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인권의 이슈를 밝히고 원불교 도라면 고민해야 할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5장에서는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적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한 차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차별받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소개한 다음, 원불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6장은 원불교의 성직자인 교무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현직 교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교무의 평등권, 근무 여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2~8/2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산사는 깊다	지안	불광출판사
5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8	자기치유 (YOUNG OLD와 함께하는 몸과 마음 이야기)	조순희	정우서적
9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주경	마음의숲
10	선과 뇌(좌선은 위대한 뇌 훈련법이다)	이리타 히데오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사랑하지 말자

도올 김용옥 지음 | 통나무 펴냄 |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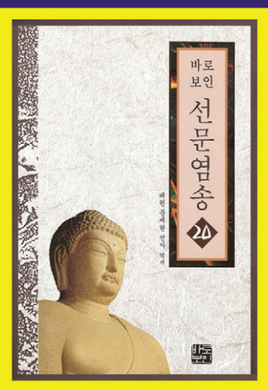
도올 김영옥의 철학 에세이다. 특히 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생각하고 쓴 에세이다. 어느 날, 산책하고 있는 저자에게 한 젊은이가 다가와 도무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책을 써줄 것을 청했다고 한다. '학동'으로 설정된 질문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씌어진 〈사랑하지 말자〉는 '청춘'과 '역사', '사랑' 등 아홉 개 테마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제가 살고 느끼고 있는 이 우주가 무엇인지, 그 본원적인 문제부터 여쭙고 싶습니다만 우선 제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주제로부터 접근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청춘의 피가 끓고 있습니다. 이 혈맥의 에너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청춘이 무엇입니까?" 질문들은 모두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청춘은 무엇인지, 역사는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테마들의 사전적인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아홉 개의 테마들이 이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것이다. '청춘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 시대에서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이다. 이 책의 엔진은 그 근원적인 '질문'이다. 방황하는 젊은이를 비롯해 이 시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물음들이 저자의 머리와 가슴을 오간다.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앞선 세대가 제시하는 '비전'은 최근 출판계의 유행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랑하지 말자〉는 그 보다 도올 자신의 단상을 달변으로 풀어놓고 있다. '청춘', '사랑', '천지' 등 가슴으로부터 나온 물음들도 있지만 '조국'과 '대선' 등 차가운 머리에서 나오고 대답해야 할 물음들도 있다. 저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 행적을 서술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그의 딸 박근혜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2012년 대선에서의 가능성, 그 대항마로 거론되는 안철수. "안철수는 이 시점에서 한 민족에게 내려 주신 하느님의 축복이다. 안철수는 우리 민중의 진실 표출의 상징이다. 안철수는 하늘이다." 사상가로서의 시선으로 본 대선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흥미로운 부분이며, 책은 서구적 가치에 편향된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상생의 의미를 저버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을 꼬집고 있다.

여덟 번째 테마 '사랑'편에서는 책 제목에 걸린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한다. "현대어의 '사랑한다'와 한문의 '愛(애)'는 전혀 다른 의미다. '애'는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이낀다'는 뜻이다. 절약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귀하게 여긴다, 보호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며 저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을 서구적 가치의 총화라고 규정한다. "사랑은 조선시대에 없었던 단어는 아니지만 조선 말기에나 유행한 단어로서 기독교 경전이 유입되면서 크게 의미가 왜곡됐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 생겨난 '사랑'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일상적 가치를 왜곡하고 있고, 그것으로 많은 정신질병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한다.

책은 한자문명권에서 성립한 '천지코스몰로지'를 소개하면서 그 틀에 따라 청춘의 의미, 그리고 섹스, 사랑, 일상적 삶의 방식, 음식에 관하여 매우 자상하게 그 물음의 처방을 소개한다. 인간이 웅혼한 생명의 존엄성을 깨달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터득케 해준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20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20권 출간!
설봉선사, 암두선사, 고정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생사 문제' 해결해
누리의 주인으로 살라!"


《허공의 주인공》
–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 선어록
청봉 전근홍 엮음
46판 | 흑백 | 360쪽 | 10,000원

허공성이 바로 '나'니 부처행 하며 살자!
생활인에게 맞는 '새로운 화두(새말귀)' 공부법

20세기 '한국의 유마'로 추앙받는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생생한 법문과 언행을 기록한 책.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절망적이었던 청봉 거사(보림선원 서울선원 원로회 예백실장)가 스승의 설법과 수행 방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접 듣고 느꼈던 법문 내용을 소개해 재가 수행자들의 발심과 공부를 돕는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마음 아픈것 모르면 중생 허물 못 벗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인이 되면
월도 지음
문학스케치 펴냄
1만4천원

"고통은 나쁜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필요한 것이며 감사한 것임을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어서, 하는 일도 잘 안 풀려서, 뚱뚱해서,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고민하고 고통 받는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현실도 달라질 수 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이 '힐링 메시지'를 담은 신간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인이 되면〉을 보면 마음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스님은 "육신이 아픈 것도 병이지만 마음이 아픈 게 더 큰 병"이라며 "우리는 모두 고통과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라고 책에서 말한다. 무명의 세상을 헤매면서도 오히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마음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마세요. 마음이 아픈 것도 모르면 중생의 허물을 벗을 수 없어요."

스님은 가끔 "법문을 들으면 그때는 마음이 편안한데 돌아서 나오면 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들으나 마나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순간순간 하다 보면 영원으로 쌓여가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인생을 사는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청소년들에게 스님은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한번 가보라며 권한다.

응급실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곳이다.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한다. 또한 의식을 잃은 환자 앞에서 애타게 발만 동동 구르는 가족들은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중생은 모두 고통과 더불어 함께 존재
고통에 감사하면 자유로울 수 있어

바란다. 이것이 중환자실과 응급실 풍경이다. 그것을 청소년들이 지켜본다면 아마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 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게 스님의 생각이다.

스님은 "불행을 지혜롭게 대처 못하면 또 다른 불행을 만들게 된다"며 "고통에 감사하고 고통에서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이 책은 스님이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한 삶을 살도록 조언하기 위해 엮은 글이다.

백 년도 못 되는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들로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보니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돈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져야 할 텐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보니 절에서 법문 할 때도 자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군요. 눈만 뜨면 마주하는 남편과 아내, 이보다 더 지중한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이보다 감사한 인연이 또 어디 있겠어요? 가족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가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생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차피 함께하는 세상,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것이지요."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점(點)이 모여 선(線)이 되고 선이 모여 면(面)이 되지 한꺼번에 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순간순간 감사한 마음을 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인생은 철저하게 셀프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올 때도 그렇게 왔듯이, 살 때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한 갈 때도 그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지요."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월도 스님은?

소백산 구인사로 출가한 스님은 대충 대종사를 수년간 시봉했다. 이후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 등 여러 천태종 사찰의 주요 소임과 주지. 종단의 총무부, 교무부, 사회부 국장, 복지재단 이사, 강원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는 분당 대광사 주지를 맡고 있다.

죽음에 대한 166가지 사례 소개

왕생집 죽음너머

운서주굉 엮음 | 연관 옮김 | 호미 펴냄 | 2만원



가치있게 살자는 '웰빙'과 함께 '웰다잉'도 중요한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죽음 또한 삶의 한 부분인 만큼 삶의 문제와 긴밀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두렵기 짝이 없는 죽음의 문제는 인류에게 가장 근본적이면서 오래된 화두다.

불교는 생로병사를 네 가지 큰 고통으로 꼽는다. 이렇듯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부터 고통이라 하는 불교는 그래서 삶이라는 고해를 건너는 죽음을 열반의 기쁨으로 승화한다.

곧 스스로 닦아 깨달음에 이르는 자력 신앙을 통해 나고 죽는 윤회의 굴레서 벗어나서 해탈하고 정토에 왕생하는 즐거움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노정하는 것이다. 참선 수행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염불수행은 부처님 명호를 일심분란하게 염불하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죽음에 이르러 부처님 나라에 왕생하는 열반을 얻는다는 것이다.

운서 주굉 스님이 지은 〈왕생집 죽음 너머〉는 중굉 스님 이전 시대 사람들이 실제로 정토에 왕생했다고 전하는 이야기를 모아서 엮은 '왕생사례집'이다. 명나라 4대 스님으로 이름을 떨쳤던 주굉 스님. 그는 염불수행이야말로 "말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비한 영약"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왕생 사례를 보이는 대로 적으며 갈무리하기를 11년에 걸쳐 지속한 끝에 1,100여 가지 왕생사례를 모았다. 그 가운데서 다시 166가지 사례를 추려서 책을 엮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내용은 왕생한 주인공들 신분에 따라 여덟 편으로 나뉘어 있다. 승려, 임금과 사대부, 부녀자 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 정토에 왕생한 이야기를 엮으면서 흥미를 더 한다. 또한, 각 편마다 전체의 뜻을 결론 지어 총평을 더해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로 눈 앞에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편마다의 이야기가 감응이 커서 깨달음을 얻어 생사의 업을 끊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불심을 가다듬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 같다. 더불어 166편에 걸쳐 되풀이 되는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

김주일 기자

불교서 유래한 일상용어 설명

생활속 불교용어

글 방경일 | 삽화 김광일 | 운주사 펴냄 | 1만원



"면목이란 무엇일까?"

"면목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7세기 중반 무렵부터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면목은 일반인들 사이에 사용되면서 '본래의 모습'이라는 의미보다는 '얼굴(체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장로, 천사, 천당 등 지금 기독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이 원래 불교용어라는 것은 웬만큼 불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불교의 대명사인 '대자대비'라는 말이 현재도 기독교에서 가끔 사용되고 있다면 대부분 깜짝 놀랄 것이다. 게중에는 이렇게 기독교에서 불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불교가 그 만큼 뛰어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자가 보기에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비록 불교서 시작된 용어라도 기독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어느새 그 용어는 기독교 용어가 돼 버리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정신문화도 함께 넘어가 버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불자들이 불교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를 지키고 가꿔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다.

〈생활속 불교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 중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가려뽑아 그 용례와 현대적 쓰임새, 불교적 의미와 기원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한 교양서이다. 불교용어는 한자어가 대부분이다. 불교가 동북아시아로 들어 올 때 한문으로 번역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시각으로 본다면 다소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불교용어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장자〉 심도있게 해설해 놓아

장자, 그 선의 물결

감산덕청 원저 | 심재원 역해
정우서적 펴냄 | 2만5천원



전작 〈노자, 그 선의 향기〉의 후속작인 이 책에서는 장자에 대한 감산의 주와 해설에 역자의 번역과 해설을 곁들여 장자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노자 전공자인 역해자는 원문을 탑재하고 장자만 읽고자 하는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자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역자 고유의 해설을 곁들이는 한편, 역해의 초점은 노장사상의 몰이해에 대해 자상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곤·붕 이야기에는 창조주가 없다. 창조주를 끌어들이지 않고 이 우주와 만물의 발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우주안에 존재하는 개체들을 노장은 '물(物)'이라고 하는데 대개 '사물'이라고 번역한다. 내가 보기에 좋은 번역이 아님에도 나 또한 별다른 번역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냥 그냥 '사물'이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 우리가 쓰는 물질로 된 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개체를 말한다.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존재하는 모든 개체를 '사물'이라고 한다.

노장에게 있어서 사물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성된 것이다. 생성된 사물은 어떤 신적인 최고 존재자인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성되었을 뿐이다. 생성되었다는 것은 사물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노장은 '자연(自然)'이라는 표현을 쓴다. '自然'은 번역하면 "스스로 그러하다"이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nature'라는 뜻으로 쓰는 '자연'이 절대 아니다. 자연도 스스로 그러하게 생성된 것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다. 모든 사물은 절대 타자인 창조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물 스스로 생성된 것이다.

김주일 기자

더위도 잊게하는 한시 읽기

한시마중

이종묵 지음 | 태학사 펴냄 | 1만5천원



십 몇 년 만에 찾아왔다는 무더위, 유난하게 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이 폭력과도 같은 계절을 어찌 견뎠을까 궁금해진다면 한시(漢詩)를 읽어보자.

차가운 샘물에 국수 말아 먹고, 더위를 잊고자 밤낮으로 주연을 여는 선비들의 풍경이 떠오르는 한시에는 계절을, 세월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삶이 베어있다.

"세월은 어찌 이리 급하게 달리는가…잠자리는 저녁 햇살에 어지러운데/ 귀뚜라미는 시원한 소리를 보내오네…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가장 좋으리니/ 어쩌자고 명성을 차지하려 들겠는가"

조선 전기 학자 서거정(1420~1488)은 한시 '가을생각(秋懷)'에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낙향하고 싶은 소망을 비친다. 입추를 넘겨 날아온 잠자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에도 날아든 것이다.

이종묵 서울대 국어국문과 교수가 철 맞춰 어렵지 않게 읽기 좋은 한시들을 '한시마중'에 모았다. 봄꽃이 피고 단풍이 들 때의 정취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계절별로 묶였다.

이 교수는 서문에서 "예부터 한시는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처럼 일상의 다반사 중 하나였고 그래서 한시는 더욱 아름답다"며 "이제 범상한 일상을 한시로 읽고자 한다"고 썼다.

김주일 기자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기념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움직이거나 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퓨전치유

양자치유+氣치유+레이키치유+두개천골+이미지힐링 등의 통합응용입니다.

당신도 지금 훌륭한 치유의 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치유기법과 만나십시오.

퓨전치유.com 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강 : 2012년 9월 16일(일요일) 오후 2시
장소 : 세계자연치유학회부산지회
문의 : 010-6521-7090
051)527-7090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진표가 간자(簡子)를 전한 까닭은?

치열한 참회… 미륵·지장의 계법 유포

1. 금산사와 변산 부사의방

경덕왕 대의 진표(眞表)는 대중불교의 또 다른 선구자였다. 그는 혜숙과 혜공 및 대안과 원효와 달리 망신참법(亡身懺法)과 점찰법회(占察法會)를 통해 불교의 지평을 넓혔다. 『삼국유사』「의해」편의 14 조목은 '이혜동진'과 '현유가 해화엄' 조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한 인물의 행장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진표는 14조목 중 2 조목에 걸쳐 다뤄지고 있다. 물론 '진표전간'(眞表傳簡) 조목 뒤의 '관동풍악발연수석기'(關東楓岳鉢淵藪石記)는 사주(寺主) 영잠(榮岑)이 승안(承安) 4년에 세운 비석의 기록이고 이것은 '진표전간'에 부속된 글이다. 그리고 '심지계조'(心地繼祖)는 심지가 영심(永深) 대덕을 통해 진표 조사를 잇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삼국유사』 내에는 자장(慈藏)과 원효(元曉)와 의상(義湘)과 같은 대중적 인물은 여러 편과 조목에 걸쳐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진표는 「의해」편 내의 몇몇 조목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유적은 곳곳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치열한 수행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준 '넘치는 인간미'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전주 벽골군(碧骨郡) 나산촌(那山村) 대정리(大井里)에서 태어난 진표는 열 두 살 때에 출가할 뜻을 가졌다. 아버지의 허락으로 금산수(金山藪)의 숭제(崇濟, 順濟)법사에게 가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숭

지장과 미륵이 간자 전한 설화
금산사 등 각지 미륵사찰 창건

제법사는 일찍이 당나라에 건너가 선도(善導)삼장에서 수업한 뒤에 오대산에 들어가 문수보살의 헌신에 감응되어 오계를 받았던 고승이었다. 순제법사는 진표에게 『사미계법』(沙彌戒法)을 주고 『공양차제비법』(供養次第秘法) 1권과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 2권을 전해 주며 말하였다.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彌勒)과 지장(地藏) 두 보살 앞에서 정성으로 참회하여 직접 계를 받아 세상에 전하라." 진표는 가르침을 받들고 물러나와 명산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의 나이 27세가 지나자 상원(上元) 원년 경자년(760)에 쌀 20말을 쪄 말려 식량을 만들어 가지고 부안의 보안현으로 가서 변산의 부사의방(不思議房)에 들어갔다. 하루의 식량을 5홉으로 정하고 그 중 1홉은 쥐를 먹이기로 했다. 그가 미륵상 앞에서 부지런히 계법을 구했지만 수기(授記)를 얻지를 못했다. 의분한 마음에 바위 아래로 몸을 던졌다.

갑자기 청의동자(靑衣童子)가 손으로 받아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진표가 다시 발분하여 삼칠(3*7=21) 일을 기약하고 밤낮으로 수련하였다. 돌로 몸을 치며 참회하기 사흘 만에, 손과 팔이 부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7일 밤이 되자 지장보살이 와서 손으로 금석장(金石杖)을 흔들며 가지(加持)를 주니 손과 팔이 회복되었다. 보살이 가사와 바리때를 주었다. 진표는 그 영험에 감격하여 두 곱 절 더 정진하였다. 삼칠 일이 되자 곧 세상을 보는 눈[天眼]을 얻어 도솔천의 무리가 와서 예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앞에 나타나더니 자씨(미륵)보살이 그의 이마를 만지며 말하였다. "장하다. 대장부로다! 이렇듯 계를 찾아 몸을 아끼지 않고 지성으로 참회하는구나." 그리고 지장보살은 『계본』을 주고 자씨보살은 다시 두 개의 나무 간자[木簡]을 주니, 하나는 9(九)라 씌어 있고, 또 하나는 8(八)이라 씌어 있었다. "이 두 간자는 내 손가락 뼈이다. 처음(始)과 근본(本)의 두 깨달음을 비유한 것이다. 또 9란 것은 법이요, 8은 새로 만들어져 부처를 이르는 종자이니, 이것으로 인과응보[來報]를 알 것이다. 네가 현세의 몸을 버리고 큰 나라 왕의 몸을 받아, 그 후에는 도솔천궁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마치고 두 성인은 사라졌다. 그 때가 임인년(762) 4월 27일이었다.

진표가 교법을 다 받고는 금산사를 창건하려고 산에서 내려와 대연진(大淵津)에 이르렀다. 홀연히 용왕이 나타나 옥가사를 드리고 8만의 권속을 데리고 금산사 숲으로 왔다. 사망에서 사람들이 모여 며칠 만에 금산사를 완공하였다. 다시 자씨보살이 감응하여 도솔천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율사를 위하여 계법을 주자, 이에 율사가 불도들을 위하여 미륵장육상(彌勒丈六像)을 주성하였다. 다시 계법을 주던 모습을 금당(金堂)의 남쪽 벽에 그렸다. 불상은 갑진년(764) 6월 9일에 주성하여 병오년(766) 5월 1일에 금당에 봉안하니 이 해가 대력(大曆) 원년(766)이었다.

2. 길상사와 점찰법회

진표가 금산사에서 나와서 속리산으로 가는 길에 소달구지를 타고 오는 이를 만났다. 그 소가 그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달구지에 탄 사람이 내려와 물었다. "무슨 이유로 이 소가 스님을 보고 웁니까?"진표가 대답하였다. "나는 금산사의 진표라 합니다. 일찍이 변산의 부사의방에 들어가 미륵과 지장 두 보살 앞에서 계법 진생(戒法眞生)을 받았습니다. 이제 절을 창건하여 길이 수도할 절을 찾고자 합니다. 이 소들이 겉으로는 어리석지만 속으로는 슬기로워 내가 계법 받은 것을 알고 불법을 존중히 여겨 무릎을 끓고 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짐승도 오히려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람이 되어 어찌 믿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는 낫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진표가 자비심으로 다시 그의 머리를 깎아 주고 계를 일러 주었다.

진표는 속리산 골짜기에 이르러 길상초가 난 곳을 표시해 두었다. 다시 명주(강릉)으로 향하여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다. 물고기와 자라들이 바다에서 나와 그의 앞으로 모여 육지처럼 이었다. 진표는 그것을 밟고 바다 가운데로 가서 계법을 외워 주고 다시 나와 고성군(高城郡)에 이르렀다. 그는 개골산(금강산)에 들어가 발연수(鉢淵藪)를 세우고 점찰법회를 열어 7년을 거주하였다. 그 때 명주 경내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때문에 진표는 그들을 위하여 계법을 강설하자 사람마다 받들어 간직하며 삼보(三寶)를 공경하였다. 얼마 뒤 고성 해변에 무수한 고기들이 저절로 죽어 나오므로 백성들이 이것을 팔아 양식을 마련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진표는 발연수에서 나와 다시 부사의방에 이르렀다. 뒤이어 그는 고향 집에 가서 어버이를 만나 뵙고 진문(眞門) 대덕의 방에 나아가 거주하였다. 그때 속리산의 영심(永深) 대덕과 융종(融宗) 대덕과 불타(佛陀) 대덕 등과 함께 율사의 처소에 와서 간청하였다. "저희들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와서 계법을 구하오니 바라건대 법문을 열어 주소서." 진표는 묵묵히 앉아 답을 주지 않았다. 세 사람이 복숭아 나무에 올라

금강산서 7년 점찰법회로 참회
제자들 참회법회 풍토 확립

가서 거꾸로 땅에 떨어지며 힘써 참회하였다. 진표는 그제서야 가르침을 전하며 이마에 물을 뿌리는 의식[灌頂]을 베풀고, 가사와 바리때, 『공양차제비법』(1권)과 『점찰선악업보경』(2권) 및 간자 189개를 주고 다시 미륵진생 9와 8을 주며 경계하여 말하였다. "9는 법이요, 8은 새로 만들어질 부처가 되는 종자이다. 내가 이미 부탁했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속리산으로 가서 길상초가 나는 곳에다 절을 짓고 이 교법에 따라 널리 인간 세상을 제도하여 후세에 유포하라."

진표에게서 법을 얻은 고족으로는 영심(永深)·보종(寶宗)·신방(信芳)·체진(體珍)·진해(珍海)·진선(眞善)·석충(釋忠) 등이다. 이들은 모두 일가를 이루어 저마다 산문의 조사가 되었다. 특히 영심은 가르침을 받들고 바로 속리산으로 갔다. 그는 길상초가 나는 곳을 찾아 절을 세우고 길상사(吉祥寺)라 하였다. 영심은 진표에게서 간자를 전해 받고 속리산에 머물면서 점찰법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영심은 진표의 법통을 이어나갔다.



진표율사는 금산사 미륵불상 외에도 금강산 발연사와 속리산 법주사 등에 총 3개 미륵도량을 세웠다. 사진은 진표율사가 신라 혜공왕 12년 최초 조성했던 법주사 미륵대불.

3. 금강산 발연수와 탑참법

진표는 부친과 함께 다시 발연수로 돌아왔다. 그리고 도업을 닦으며 부친에게 효행을 다하였다. 그는 천화(遷化)가 가까워지자 절의 동쪽 바위에 올라 입적하였다. 제자들이 시신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공양하다가 뼈가 산화할 때에 이르러 흙으로 덮어 무덤을 삼았다. 그곳에서 소나무 한 그루가 곧 돋아나왔다. 오랜 세월 뒤에 그 소나무는 말라 죽었다. 다시 소나무 한 그루가 나고 뒤에 또 한 그루가 났는데 그 뿌리는 하나였다. 이 두 그루 소나무는 고려 후기까지도 서 있었다고 전한다. 일연의 제자인 보감 무극(寶鑑無極)은 "무릇 경의를 표하는 자들이 소나무 밑에서 뼈를 찾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였다"고 했다.

무극은 일연이 찬술한 『삼국유사』의 5권 9편 138 조목 중 두 조목에 자신의 기록을 덧붙여 놓았다. 그 하나가 바로 이 조목이다. 무극은 영잠(榮岑)이 세운 비석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영잠)가 성골(聖骨)이 인멸할까 염려하여 정사년(897) 9월에 소나무 밑에 가서 뼈를 주워 통에 담으니, 세 홉 남짓 되었다. 바위 위의 두 그루 나무 아래 비석을 세우고 뼈를 봉안하였다.' 이 기록에 기재된 진표율사의 사적은 「발연석기」와 같지 않은 데가 있으므로 영잠이 기록한 것을 발췌하여 기재했으니 뒤의 어진 사람들은 자세히 살피도록 하라. 무극이 기록한다."

점찰법회를 시설하기 위해 단(壇)을 꾸미는 형식은 육륜(六輪)과 조금 달랐다. 하지만 수행 방법은 산중에 전하는 법규와 같았다. 그런데 당시에는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다. 즉 진표와 영심 등이 시설한 『점찰경』에 의거한 탑참법(塔懺法)에 대하여 『사리불문경』에 의거한 참회법에 기초했던 법경(法經)과 언종(彦琮) 등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탑참법'과 '박참법'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는 곧 왕실에까지 알려졌다. 왕은 내사시랑 이원찬(李元撰)에게 명하여 대흥사에 가서 대덕들에게 묻게 하였다. 그곳에 머물던 대덕 법경과 언종 등은 "『점찰경』은 현재 두 권이 있는데 제목에 보리등(菩提燈)이라 한 것은 외국에서 번역한 가리킵니다. 그것은 근래에 간행된 것 같으며 또한 사본으로 전한 자도 있으나 여러 기록을 조사해 보아도 정확한 이름, 역자, 연대, 장소가 없고, 탑참은 여러 가지 경과는 다르니 여기에 의거하여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왕은 칙령으로 금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일연은 광주(廣州)의 한 승려가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참회방법인 박참법(撲懺法)을 행한 것에 대해 청주(靑州)의 관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것을 요망한 짓이라 한 『당승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점찰경』의 탑참법을 비판한 법경과 언종 등에 대해 '청주의 거사들이 한 탑참 따위의 사건을 마치 대유학자들이 시서(詩書)까지 읽고도 남의 무덤파는 것과 같으니, 마치 ' 범을 그리다가 개를 그린 것 '과 같다고 하였다. 부처가 예방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지만, 『점찰경』에 번역자나 연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의심스럽다 하면, 역시 삼[麻]를 취하고 금(金)을 버린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 경문을 자세히 보면,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는 설법이 깊고 빈틈이 없으며, 더러움을 씻어 버리고 게으른 사람을 깨우쳐 주기가 이 책만한 것이 없기 때문

참회법 두고 언종 논쟁 제기
왕 칙령으로 진표의 참법 인정

이다. 그러므로 대승참(大乘懺)이라고도 하며, 또한 육근(六根) 중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점찰경』에서 윤(輪)을 던져 상(相)을 얻는 것이 『사리불문경』의 참회법과 어찌 다르겠느냐고 역설하였다. 일연은 미륵보살에게서 진표가 참법을 일으켜 친히 간자를 얻었으며 법문을 듣고 부처를 보았다며 진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반면 언종의 무리는 '금을 훔칠 때 사람은 보지 못한 것'과 같다며 독자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고영섭,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한길사, 1997; 2002; 2009).
고영섭, 『원효탐색』(연기사, 2002; 2010).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다음 네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둘째, 지금은 부귀하더라도 곧 가난하고 천해질 수 있다.
셋째, 무엇이든 모이면 반드시 흩어진다. 넷째, 아무리 건강한 육신을 가진 이도 죽는다

-출요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초 능 력 개 발

초능력 개발 비법 전수
- 초능력 개발사업 하실 분에 한함
- 신내림에 실패하신 분에 한함
오십견 치료 (1~5회 완치)
치료비법전수
010-5822-076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통증 해결

무릎 관절
중풍, 허리
부산. 덕운 합장
010-4411- 6636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적은 보시금으로

의식에 필요한
사물 다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법고,태징,북,목탁,요령 등
010-3657-6302

계룡산 천황사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무병,정신병,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41)855-3492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큰 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되게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 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 뵙겠습니다

010-3854-8107
네이버, 구글, 유투브 비구무불 검색
트윗 kangmubul 검색
영축산 토방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번뇌의 굴레에서 해탈을 생활의 고통을 벗어나는 생명의 글문 비방

- 불치병상담(병명이 안나오는병)
- 야토피 질환 해탈법 • 산소탈이나 풍수탈 해탈
- 사업성취, 소원성취 상담 • 가정사 상담
- 생활속에 활력을 찾는 달마상

(작은곳에서 큰 희망의 기쁨을 안으시길)
대한불교 불정사 도정스님
051)558-5585
010-4593-2918

천도재, 49재, 바라무, 점안식 등 아주 저렴하게 집전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010-4193-1707
철학 1개월 수강으로
개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함.

기도 스님 모십니다

(경북 김천)
011-9317-9181

기도스님 모십니다

50세이하, 비구스님
(부산)
010-9332-171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0-7139-8631
010-9127-633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919-04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799-42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영천시 개원사)
010-2828-066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 주)
017-206-0113

심 와 기 도

• 소원을 성취시키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연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합천)
010-9506-570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팔공산)
010-3189-87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주)
010-3691-58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1-764-3661

모 든 통 증 해 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 010-9243-0113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불 사 안 내

관음전불사에 설판하여 주시는 분에게 경봉 큰스님 반야심경과 월하, 일붕, 석주, 일타 큰스님 친필글씨를 드리겠습니다. 무량복덕의 인연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경북 만허 합장
010-9890-1237

주 지 구 함

스님이 없는 절이나 가난한 사찰을 무보시로 도와드립니다
(사주,관상,주역 능통한 63세 비구스님)
010-3895-4858
탄성스님

불교전문 교정인을 찾습니다

불교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교정, 윤문 전문인을 모십니다. - 재택근무 -
간단한 테스트 후 교정료 결정
전문가로서 경험있는 분만 전화 요망
한국불교대학 부속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납골당 신축, 증축 전문 시공사

- 결로방지 100%. 온난방 100% .환기 100% . 인테리어 100%

안치대 설치 전문 업체

- 황금색 스텐 안치대. 원목 안치대. 주물 안치대 . 강화유리 안치대 .

성심 시공사의 안치대 명성

- 성심시공. 믿음시공. 완벽시공. 심플시공 . 엄숙경건. 최상의 인테리어
※ 꼼꼼한 판단과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010-3390-116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10-3618-6061

풍수지리 명사

(샛별을 보고득력) 명당은 땅 팔자 사람 팔자가 많아야 발복이 됩니다. 음택, 양택 땅 사기전, 묘 쓰기전, 이사 가기전에 좋은 꿈을 꾸어야지 명당입니다. 아파트도 명당이 있습니다.
사업 안되는 분, 건강이 안 좋은 분, 자녀 진로 선택, 상호 이름을 지어 주며는 본인이 좋은 꿈을 꿉니다. 기도는 본인한테 맞는 기도를 해야지 효과가 빠릅니다. 명당을 잡아 준 사람은 모두 다 좋은 꿈을 꿉니다.
소백산 스님 018-413-3377 (명당 다량 확보)

강 화 고 려 사

■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 / 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과정 : 1년 (서울, 경기 의식 기준)

1.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 천도의식 : 49제,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3. 각종 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 개강일 : 2012년 10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1.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경우에 따라 요일 변경)
2. 수 업 료 : 매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3. 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4. 접수 연락처 : 054)762-5888 / 팩스 054)762-5889
5. 강주스님 : 현공스님 (010-4783-0077)
6. 접수기간 : 상시모집 (전화접수 가능)
7. 자 격 : 종단, 승속 관계 없이 가능

한 국 불 교 태 고 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 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1) 9월 7일 (금) 오후 2시
(2) 9월 8일 (토) 오후 2시
- 대 상 - 역학 왕초보자, 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기 초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딛히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통신반 모집

지방거주나 시간이 없는 분 - 공개강의를 1번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교재로 통신강의와 동영상강의 예정)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은행) 옆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76평
- 요사 : 146평
- 부지 : 510평
- 가액 : 15억

- 위치 : 경남 울주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12억5천

- 위치 : 전남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 7억 (은행 3억 가능)

아름다운 대사찰

- 총부지 : 약 4700평
- 목조법당 42평(목조 와가건물 8동)
- 명부전, 나한전, 산신각, 요사책
- 대종각, 대법고, 주차장 500평
- 총가액: 30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 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10-9373-3778
경남남부지사	청운스님	011-870-0021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 홍천읍에서 5분거리
- 425평, 건물 45평
- 토굴 기도처로 적합
- 가액: 7500만원

010-8983-525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및 사용면적 약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 국가지정 문화재 거대 마애불(보물)
- 시내중심 최상의 불사조건
- 영험한 마애불상 주변 평지 같은 임야 8500평 중 잡종지로 전환 가능한 땅1000평
- 가액 : 20억

010-5012-2238

사 찰 안 내

- 위치 : 국립공원(유달산) 내
- 별장식 암자 • 평수 200여평
- 시문화재 등재
- 특징: 전설과 영험이 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5천만원(조절가능)

011-623-4487
011-229-41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및 사용면적 약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및 사용면적 약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및 사용면적 약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및 사용면적 약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및 사용면적 약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사찰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유원지 부근
- 임야 : 3만 5천평
- 현재 한옥 2채 현재 임법당 운영
- 사찰 및 연수원 양로원 적합
- KT서원주역 10분거리 청량리역에서 30분거리 • 통신광케이블 도로포장
- 평상 7만원 절충가능

010-2554-672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청양
- 법당 (종교집회장 25평, 요사 (한옥1동)25평
- 산신각 5평, 공양간 20평 (조립식) , 심야보일러
- 용궁있음, 법당, 요사 등기필 (공시지가 2천 8백만원)
- 사용대지 약 3천평 (연 임대료 60만원)
- 가액 : 4천 7백만원

010-6470-14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 평수 226평, 법당 15평
- 요사채 20평
- 가액: 7500만원

010-4536-8175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 밑
- 대지 195평, 도심 포교 최적지
- 법당 40평(장엄완벽) 방3개
- 후원채 20평, 화장실 따로
- 보증금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4천만원(1억 들었음)

010-7181-6794

포교원안내

-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 대지 : 98평
- 요사채 :방3칸 거실:1 화장실 :1
- 법당 :30평
- 보증금: 500 월세: 30만
- 시설비 :2,000만원 (절충가능)

010- 4753-8289

토 굴 안 내

- 청청바다가 보이는 토굴
- 위치: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 삼존불, 각단탱화, 공양간, 산신각
- 현재 운영중
- 가액: 8천 5백만원
- 평수 약 130평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포동 위치한 사찰
- 지하철 3분거리 버스정류장앞
- 대지 : 178평, 건물 : 113평
- 요사채, 방4, 화장실3, 공양간, 응접실, 찻방
- 가액: 7억 3천만원 (은행 3억)

010-5346-4138

사 찰 안 내

- 지리산자락 35년역사, 아름다운곳
- 부지: 약 2,000평
- 계곡내 마르지않는 석간수
- 법당25평,수선당18평
- 산신각6평, 독성각 2평,요사채60평
- 시설: 심야전기보일러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싫은 너무나 포근한곳)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코자함
- 가액: 2억 9천 5백만원

010-4708-1533

토굴 임법당(급)

- 위치 : 경북 의성 IC 10분거리
- 대지 93평, 방2, 법당, 공양간
- 황토 목조(약 100년 보수완료)
- 집기일체 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4천 5백만원

010-4113-108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5층 90평, 6층 90평, 옥상 80평
- 6층 법당, 스님 친견실
- 5층 공양실, 방6개
- 보증금 1억, 월세 150만원 시설비 약간

051)973-0340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광명고 건너편, 봉래산 자락 100년 역사. 바다가 보이는곳(영험)
- 촛불기도, 굴법당 2동, 요사채3동 법당 2동 25평, 녹지 1500평
- 주차 10대 이상가능
- 보증금 6천5백만원, 월150만원 시설비 협의

010-2637-614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상리 소재
- 옆개울과 연못이있는 청정지역 총 1,000평(대지 포함)
- 매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도 있음
- 가액 : 3억 (꼭 필요한분만에게 가격조절 가능)

011-861-625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산 마산
- 산밑 단독주택 (마산시내 훤히 보임)
- 보증금 : 100만원(월 15만원) 시설비 : 2500만원 (3000만원 들었음)
- 양도도 가능 : 5,000만원 (대지40평), 사용공간 100평

010-7264-8474

사찰,복지시설터 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상리면
- 산자락 밑 밭 6000평
- 물좋고 산세가 수려함
- 가액: 3억(3년전 금액)

010-3540-019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 대지 : 47평, 건평 :120평 3층건물
- 1층 : 용왕당 방1칸
- 2층 : 요사채,방2개 욕실,내부 외부 화장실 2개
- 3층 : 법당 주지 (친견실)
- 개금3존불 ,원불 ,법당 종 30관
- 심야전기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평당 : 380만원

010-4561-562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 대지 : 2,000평
- 건평 : 40평 (산신각 : 8평, 해수관음, 달마포상 5자)
- 건물양도: 1억 (답사후 결정)

010-6358-00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 평수 : 대지 ,63평
- 법당 .11평 요사채 ,25평
- 전세 : 3,000만원 (몸만들어와도 됩니다)

010- 7459-297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6층 건물 5층
- 평수 : 60평
- 전세 :1,500만원 월세 : 40 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매우만족함))

010- 9929-290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180(팔도시장내)
- 평수 : 35평 법당 . 소불 100불
- 에어콘완비 ,즉시입주가능

전세 :1,000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 : 1,200만원

010- 8664-4223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2층
- 평 수 : 20평
- 석가세존 삼존불 (동으로된고불)
- 전세 : 일천만원 월세 : 이십만원
- 주차장 완비 ,시설비 답사후결정

055)247-8808
010-6480-88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 대지 130평, 2층법당 30평 (삼존불, 소불200불, 지장불전)
- 삼성각 5평, 5층석탑 1층요사채 60평
- 심야보일러,별도화장실5평
- 가액 : 1억8천만원(답사요망)

010-4092-4433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6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 비구니 스님 적합

010-2501-3671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 집기일체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2500만원(조정가능)

010-5555-874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6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5억 7천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7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삼보기획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 법당 : 20평
- 요사 : 45평
- 대지 : 140평
- 총부지 : 560평
- 가액 : 2억

사찰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지역은 무관 좋으면 오 가격은 1억 정도 희망자 연락바람

법률, 세무, 무료, 상담 환영합니다/양도,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연락주세요

Mobile.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 평수 7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8390-6654

사찰(급)안내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 871-2
- 총평수 1700평중 대지 5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포함 70평, 준공필
- 사찰앞 계곡이 수려하고 청정지역임
- 가액: 3억 5천만원
- 타건물 교환 환영
- 스님 건강관계로 (급)양도

055)572-0405
011-9850-8208

사 찰 안 내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500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3평반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5분거리
- 가액: 답사후 결정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장난전화사절

010-6375-0108

사찰(터)운영하기 좋은곳

- 위치: 경북 영천시 고경면(영천 호국원 앞)
- 잡종지 약 1070평 • 가옥 2채(약100평)
- 호국원주차장사용가능
- 교통편의 최적지
- 가액 : 현지 답사후 용도에 따라 분활하여 시세에 맞춰 상방 합의하여 결정

010-5633-876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 도시권 지목: 임야 자연녹지지역
- 치악산조망 주변혐오시설 없음
- 도접 : 전기 상상외 싼 땅 11702㎡
- 약 3540평 융자 6500만원 포함
- 승계가능 양도가 2억

010-6460-1316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구도자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 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 범망경 -

여름방학 특집 - 불교적 힐링 '미디어 다이어트'

〈4〉 알아차림 학습법 · 끝

'알아차림 수행' 빨래처럼 마음의 때 지워줘

현대 사회는 정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 수많은 정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미디어에서 부유(浮遊)하고 있다. 우리는 그 부유하는 정보들을 취사 · 선택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한다. 하지만, 이런 IT기기는 반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미 게임중독과 인터넷 중독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미디어에 무분별로 노출된 청소년들이다. 특히 방학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중독에 빠지기 쉬운 시기다. 이에 본지는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 현황과 영향 그리고 불교적 힐링 '미디어 다이어트' 방안을 여름방학 특집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청소년들이 선체조를 하며 심신을 차유 · 단련하고 있다. 이런 훈련을 통하면 미디어 중독을 치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에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음 거울에 상 맺고
저장까지 21초 필요
뇌 · 마음이 편안해야
학습에 최적 상태돼

알아차림의 기능

알아차림 명상은 기억 이미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마음오염원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억이미지와 결합된 마음오염원을 제거하는 구체적 도구가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에 힘을 더하는 것이 집중력이다. 이런 매카니즘을 활용하면 청소년 미디어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알아차림명상 핵심은 바로 알아차림 힘을 키워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마음오염원을 해체하는 것이다. 기억이미지와 결합된 마음오염원만 제거하면 마음은 맑고 건강해지고 삶은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이는 빨래하기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옷을 빨면 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옷에 묻은 때만 제거된다. 알아차림 명상을 하면 기억이미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마음 오염원만 제거된다. 알아차림 명상은 기억이미지를 없애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억이미지와 결합한 욕망, 분노, 편견 계열 등 마음오염원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이다. 알아차림명상은 망상을 제거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작용이나 망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그러면 망상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만 알아차림을 놓치면 망상에 구속되고 삶이 고달프다.

명상을 학습에 활용하기

연구, 교육, 학습은 데이터를 가공, 생산, 이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가공할 때 관여하는 요인으로 △입력되는 데이터 양과 질 △데이터 가공주체인 뇌와 마음 상태 △입력되는 데이터와 마음공간에 있는 데이터 결합수준 △기존 데이터 간섭수준 △알아차림 활력도와 집중도 △데이터 이전하는 사람과 이전 받는 사람 능력과 근기 등이 작용된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데이터 입력, 가공, 출력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한 것이 데이터 가공주체인 뇌와 마음휴식, 알아차림에너지 충전, 알아차림 활력도와 집중도, 새로 입력되는 데이터와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 결합수준, 마음건강과 마음상태 등이다.

이런 요인들은 학습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동안 덜 주목받았거나 어떻게 접근하고 다뤄야할지 몰라 방치해 뒀던 주제들이다.

여기서는 알아차림수행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마음에너지를 보충하고 연구, 교육,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1. 뇌와 마음 휴식

알아차림 학습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데이터 가공 주체인 뇌와 마음이 휴식하게 해 최적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데이터 가공기계인 뇌와 마음을 혹사하거나 장시간 가동하면 생산성이 저하된다. 알아차림 학습이론에서는 뇌와 마음을 적당히 쉬어주면 데이터가공력이 향상되고 학습효과도 좋아진다고 본다.

몸은 쉬거나 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지만 뇌와 마음은 끊임없이 가동돼 휴식하지 못한다. 잠잘 때도 뇌와 마음은 깨어있을 때 입력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련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느라 잠시도 쉬지 않는다. 음악 듣거나 영화 볼 때도 뇌와 마음은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뇌와 마음이 휴식하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마음공간에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 사유, 논리로 체계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뇌와 마음은 휴식한다. 그 훈련방법이 알아차림수행이다.

다른 하나는 뇌와 마음의 최소기능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휴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알아차림 기능인 알아차림를 기준점(출발점)에밀착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뇌와 마음은 휴식한다. 이 또한 알아차림수행으로 가능하다.

훈련방법은 동일하고 간단하다. 알아차림 기능인 알아차림을 인식대상에 밀착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뇌가 휴식하고 마음이 활력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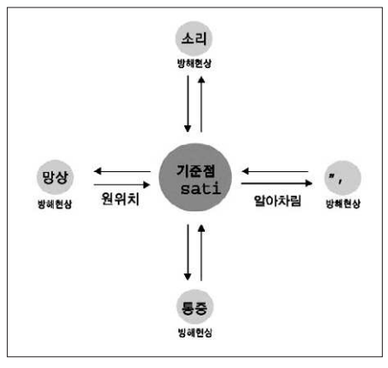
2.마음에너지 보충

흔히 시간이 모자라 일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부족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몸의 활력뿐만 아니라 마음에너지가 충만한 것은 일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여건이 쾌적해도 일할 주체의 몸과 마음 에너지가 부족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알아차림수행은 마음에너지 소비와 보충에 관한 탁월한 이론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알아차림 기능인 알아차림가 가진 물리특성을 적절히 활용해 마음에너지를 보충하면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다.

표. 알아차림 강화 방법



3. 알아차림 강화와 집중

마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 가공 효율성은 알아차림 기능인 알아차림 활력도와 집중도가 결정한다. 마음공간에 질 높은 데이터가 많이 입력돼도 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가공하는 주체인 알아차림 활력도와 집중도가 떨어지면 데이터 가공 생산성은 낮아진다. 알아차림은 마음공간에 산재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집중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4. 데이터 간섭제거

알아차림은 직면한 인식대상에 온전히 집중될 때 창의력이 높아진다.학습으로 마음 채우고 알아차림 기능인 알아차림를 한 곳에 집중시켜 마음 비워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입력시킬 수 있다.

데이터를 새로 입력시킬 때 마음공간에 저장돼있던 기존 데이터(기억이미지)들이 방해할 수 있다. 이때 알아차림 명상으로 여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하면 다른 데이터가 간섭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유효하게 입력시킬 수 있다.

5. 데이터 유기적 결합

새로운 데이터(이미지)가 마음공간에 입력될 때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기억이미지)가 새로 입력되는 데이터와 접속한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마음공간으로 입력시키려고 노력한다. 많은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양이 많고 질이 높으면 더 좋다.하지만 마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는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 알아차림 기능이 커지면 집중되는 곳으로 마음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가 함께 집중되고 데이터 유기적 결합력이 높아진다.

6. 데이터 숙성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으면 마음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발전한다. 이런 상태를 데이터 숙성이라고 한다.

깨어있을 때는 데이터를 입력시키는데 주력하지만 잠들면 깨어있을 때 입력시킨 데이터(기억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련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질이 높아진다.

공부할 때는 데이터를 입력만 시킨다. 공부가 끝나고 데이터 입력이 중단되면 깨어있을 때 받아들인 데이터를 계통별로 분류하고 관련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마음공간에 입력된 데이터들이 숙성되면 학습력이 높아지고 창의력이 나온다.

7. 데이터 저장과 회상

마음거울에 데이터가 상을 맺고 그 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맺혀 있고, 효과적으로 저장되고 필요할 때 관련 데이터가 빠르게 회상되느냐가 관건이다.일반적으로 데이터는 마음거울에 상을 맺고 3초 정도 머물고 마음공간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21초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장면(데이터)을 마음공간에 저장(기억)하기 위해서는 최소 7번 이상 반복학습해야 한다. 그러면 장기기억이 가능하다.

알아차림 명상이 활성화 되면 마음상태가 안정돼 마음거울에 맺힌 상이 3초 이상, 만일 7초 정도 머물게 할 수 있으면 3회만 반복학습해도 고정기억이 가능해진다.현재 하고 있는 학습방법에 알아차림 명상만 추가해도 학습효과는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이 글은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이 진행하는 〈청소년 미디어 다이어트캠프〉 관련 내용입니다. 글=이태호 기획이사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현우경' 이야기 (36)

죽지 못하는 남자

다시 태어나 출가하려 목숨 끊었으나…

어느 나라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식이 없어 항상 근심이 많았다. 어느 날 집안 하인이 부자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줬다.

"윗마을에 천신이 사는데, 그에게 소원을 빌면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천신을 찾아가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부자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천신을 찾아갔다.

"자네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 왔는가?"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천신님은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만일 저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당신은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천신은 곰곰이 생각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분명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못된다. 묘책을 세워야겠다.'

천신은 결국 자신이 모시는 마니발다라 신에게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마니발다라 역시 묘책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마니발다라는 다시 바이슈라마나왕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다.

"미안하네. 그가 자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도 없네. 대신 제석천왕에게 가서 부탁해 보도록 하겠네."

바이슈라마나왕은 하늘로 올라가 제석천왕에게 사정을 말했다.

"얼마 전 제 신하 마니발다라가 저를 찾아와 한 남자가 자식을 원하고 있으니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니발다라의 신하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부디 저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 일은 인연이 닿아야 되는 일이다. 조금만 기다려 보거라."

제석천왕은 하늘에 사는 사람 중 곧 목숨이 다하는 이를 찾았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삽화 · 강병호

"이제 너의 목숨은 곧 끝나게 된다. 너는 목숨이 다하거든 저 하늘 아래에 사는 부자의 집 아들로 태어나거라."

"저는 다음 생에 출가해 부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오히려 출가하는데 어려움만 줄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만일 네가 출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

얼마 후 하늘에 살던 사람은 목숨을 마쳤다. 그러자 부자의 아내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됐다. 10달이 지나 부자의 아내는 아들을 출산했다. 부부는 그들의 아들을 항하달이라 이름지었다. 성인이 된 항하달은 결국 자신의 뜻대로 출가하기 위해 부모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다.

"우리에게 자식은 너 하나다.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출가를 하려 한단 말이냐. 정혼자를 알아봐뒀으니 말썽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지내거라."

아버지가 끝내 허락하지 않자 항하달은 매우 슬퍼했다.

"내가 평범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속세를 떠나기 쉬웠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평범한 집안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야겠다."

결국 항하달은 자신의 목숨을 끊고 새로운 생을 살고자 결심했다. 그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암벽에 오른 뒤 그 위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어느 곳도 다친데 없이 멀쩡했다. 그는 다시 독약을 구해 마셨다. 하지만 독이 몸 안에 퍼지지 않아 죽지 않았다. 이번에는 강가에 뛰어들었으나 물 밖으로 밀려나와 버렸다.

그는 결국 나라의 법을 어겨 왕의 손에 죽기로 결심했다. 그는 왕비와 궁녀들이 목욕을 하는 연못에 몰래 들어가 그들이 벗어둔 옷을 모두 훔쳐 달아나다, 보초를 서던 경비병들에게 발각돼 왕에게 끌려갔다.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분노해 그 자리에서 항하달을 죽이려 했다. 왕은 항하달을 향해 활을 쐈다. 하지만 화살이 다시 왕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몇 번을 되풀이해 활을 쐈지만 화살이 되돌아오긴 마찬가지였다. 왕은 깜짝놀라 그에게 물었다.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항하달은 왕에게 그동안 죽고자 했으나 죽지 못했던 사연을 이야기했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그의 바람을 들어주기로 했다.

"내가 너의 출가를 허락하니 앞으로 거룩한 불도를 닦도록 하여라."

왕은 항하달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갔고, 그는 그 자리에서 출가해 이후 아라한의 도를 얻게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대 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 유* 무선 겸 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NAVER 영일상사
초를 반 값 이하로 절약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촛대 봉화 캡]
1. 화재예방 : 특허품인 캡을 씌워 놓으므로 화재방지에 절대적이다.
2. 그을음 방지 : 촛불(공기 산소) 조절로 완전연소가 되어 그을음을 방지한다.
3. 비용절감 : 초의 수명을 2배이상 연장하여 비용이 절감된다.
4. 청결유지 : 촛대에 촛물이 묻지 않아 깨끗이 사용할 수 있다.
5. 간편사용 : 양초위에 봉화캡을 씌워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허번호 제 10-1158787)
한번 구입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
자매품 : 불기닦는 광택약 '이지골드'
농협 312-0029-1189-81(예금주 : 고태용)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영일상사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대행 스님

내 내면세계 그 깊은 마음속의 해결력을 믿어보세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또 대구 불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자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자님들이 마련한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만 내가 잘한다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외국에 지원이 열 군데나 생겼는데 모두 여러분처럼 거기 신도님들이 자진해서 만든 것입니다. 나는 이날까지 한국의 돈을 가져가서 미국에 지원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며 또 설법을 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설법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고 가지 않으면서도 오고 갈 수 있는 이심전심이라는 것이 있으며, 오고 가지 않으면서도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분에게 '너부터 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부터 안다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서로 통신할 수 있고 서로 볼 수 있고, 서로 말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알 수 있고 서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오신통이라는 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컴퓨터나 탐지기나 망원경이나 통신기나 팩시밀리나 그런 것을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미래의 정신계의 모든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굴리면서 사는 이 도리를 아셔야 부처님의 골수를 안다 할 것입니다. 골수를 알지 못하더라도 넓게 생각을 해서 이 시대를 한번 관찰해 보신다면 내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오고 가는 자리가 없으면서도 오고 갈 수 있고, 넓고 좁고 길고 짧고가 없으면서도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기복으로만 믿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내면세계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산 대사가 문지방 양쪽에 발을 딛고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가겠느냐?" 하고 사명 대사한테 물었듯이, 여러분이 똥이 급할 때 '내가 이 똥을 누어야 옳은가, 안 누어야 옳은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똥을 누십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은 여여하게 놓고 가시면서도 그렇게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생활 불교이자 과학입니다. 미래도 여기 있고 과거도 여기 있고 현재도 여기 있는데 그 현재마저도 공해서 우리는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서 조금 아까 말한 것도 벌써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과 아집과 욕심을 떠나지 못해서 전생에서부터 배낭에 짊어지고 나온 고(苦)덩어리를 놓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대가 흩어져서 무너지더라도 그 고의 배낭은 다시 짊어지고 또 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갖은 고통을 다 받으면서 괴롭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작으나 크나 고통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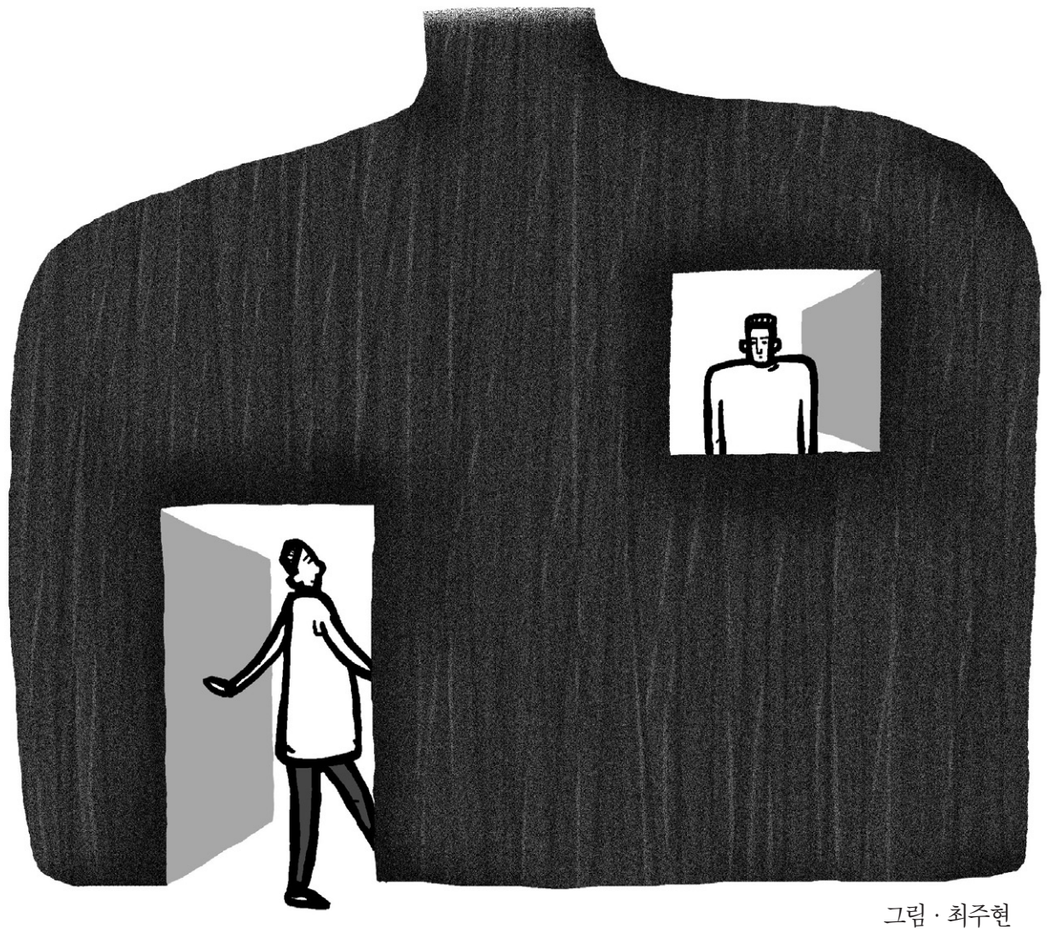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면서 인과로써 지은 악업 선업의 고덩어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된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서 거기 모여 있던 의식들이 자꾸만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입력이 됐다가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다시 맡겨 놓는다면 바로 현실에 입력을 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입력된 것은 다 무너져서 없어지고 현실에 입력하는 것만이 되돌아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무에서 유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의식들은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이고, 어떻게 해야 좋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만이 나쁘고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생각 하는 대로 몸뚱이 속의 그 의식들은 다 따라 줍니다. 강도질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강도질을 하게끔 충동질해서 강도질을 하게 만들고, 선의 길을 닦고 좋은 일을 하겠다 하면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은 그대로 따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선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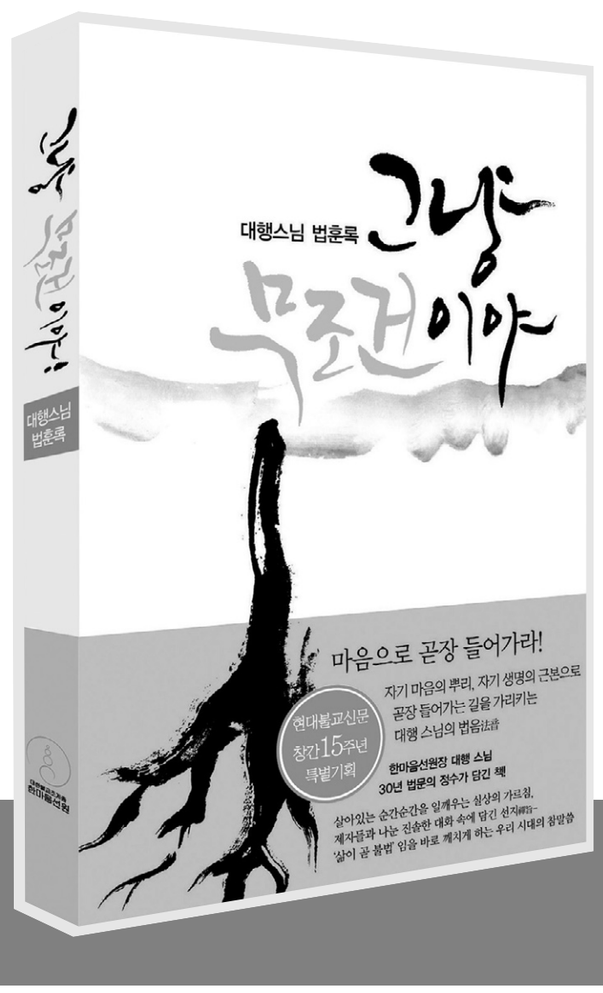
악의 인연을 맺는 것도 그 자리, 선의 인연을 맺는 것도 그 자리인 것입니다. 넓게 좀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자리에서 생각해 본다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으며 여기 앉아서 여러분네 가정에도 갔다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광대무변하니 여러분 그 마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배로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 마음 마음을 잘 쓰시라 이겁니다. 가정에서도, 즉 밥을 먹을 때도 애들한테 "얘들아!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이 세상의 일체 선지식들의 마음, 일체가 다 한마음이란다. 그러니까 한마음에 감사하면서 먹어라. 그래야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고마운 줄 알지 않겠느냐." 하고 감사하게 먹게 할 때에 그것이 가르침이요. "그 한마음 속에서, 네가 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세상도 벌어지고 상대성도 생기고 엄마도 있고 모두 벌어진 거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물리가 안 터지더라도, 공부가 안되더라도 거기다가 맡기고, 그렇게 해서 물리가 터지도록 하고 그래라. 이 세상에서 너를 누가 도와주겠느냐? 네 자신의 주인공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때에 자녀들의 뿌리는 썩지 않고 아주 싱싱하게 됨으로써 바로 나무와 가지와 이파리가 푸르고 성성할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부처님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또는 부모 며느리 사이 딸 사이에 서로 마음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태도와 부드러운 행과 부드러운 말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화목하게 만들 수 있고 돈도 저절로 따라 들어오게 만들 수 있고 가난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들이 부잔데 어찌 가난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바로 가정도 가난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들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마음에 맡겨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전력은 네 전력이나 내 전력이나 똑같습니다. 전구는 저렇게 따로따로 있지만 전력은 다 똑같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림살이하기도 바쁘고 죽겠는데 아들 따로 딸 따로, 부모 따로 남편 따로 기도드려 주고 이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전구는 각각 있지만 전력이야 어찌 각각 있으랴. 내 한마음의 스위치가 올라가면 우리 식구가 다 밝게 불이 들어올 수 있다.' 하고 진실하게 믿으면서 여러분은 내 자신의 주인공에 '한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물리가 터지게 해 줄 수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네 자신의 주인공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

☞ 29면에서 계속

가 있고, 좋은 데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오래 살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재난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모든 것을 맡겨 놓되 해결이 되면 감사하게 거기 놓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이지 누가 행복을 갖다 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고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 요즈음 가만히 볼 때 인구는 늘어 가고 병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 봐도 그렇고 텔레비전 봐도 그렇고, 무슨 쓰레기든지 그냥 아무 데나 버려서 썩어 문드러지면 거기서 안개 같은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인과가 뭡니까? 인연이 뭡니까? 여러분이 버린 거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도청기가 거기에 부합이 돼 있거든요. 남은 몰라도 여러분의 양심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요, 업보가 되는 것이요, 그것을 면치 못한다고,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썩으면 나무뿌리가 썩고 우리는 썩은 물을 먹게 되고, 그 세균은 버린 사람의 인연을 따라서 쫓아옵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쓰레기를 버려서 썩어서 세균이 생겼다면 입력이 되고 도청기가 있으니까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중심을 두지 않은 껍데기 빈집이, 들어가니 압니까, 나가니 압니까?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하고 귓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해서 그 세균성은 그냥 자기한테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한 가족이 모두 그 병든 사람을 보며 같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이는 스님인데도 왜 부처님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생활에 대해서만 저러나?' 이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한생각이라도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꼭 겪어 볼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파 보고, 자기가 괴로워해 보고, 자기가 경험을 안 해 본다면 그 아픔을 몰라서 남의 말 듣듯, 남의 말 하듯, 남의 행 하듯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지마는 전 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저 사람은 병을 잘 고친대." 이런 흉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들어 본 중에 내가 병 고쳐 준다고 한 일이 있습디까, 없습디까?

여러분의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라는 재료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있으니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 가서 빌지 말고 내 내면세계 그 깊은 마음속의 해결력을 믿어 보세요. 아픈 것도 내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산다면 자기 내면이 그대로 의사가 됩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찰나에 관세음보살이 됐다가 칠성이 됐다가, 지장이 됐다가 지신이 됐다가 용신이 됐다가, 이렇게 한생각에 마음이 찰나찰나 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바로 네 마음 한생각에 물리가 터지고 모든 것을 항복을 받아서, 모두 내줘도 줄지 않고 들여놔도 두드러지지 않는 이런 세계를 파악한다면 삼천대천세계가 한 주먹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해서 내 몸속의 중생들을 제도해서 천백억화신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데 목적을 두십시오. 우주와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은 즉시 무에서 유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99%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입니다. 돈이 드니 마음을 그렇게 못 씁니까, 피곤하니 마음을 그렇게 못 씁니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참선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바로 자기 자리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바로 그것이 좌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요 마음이 복잡하면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고무줄 같은 인생에 뜬구름 같은 이 모습이 다 흩어지고 나면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신력, 나의 마음의 차원을 그대로 가지고 또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물질로 치달아서 노예가 된다면 여러분이 죽어도 그 의식 영혼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말하자면 몸에 있는 중생을 제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인과로써 뭉친 선악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로 눈앞에 보이니 한 발짝도 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착이 줄줄이 붙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몸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영혼들이 물을 건너가야 하는데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배 오기를 기다리고 죽 섰으니, 오백 생을 기다린들 배가 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한 항아리 속에서 지금 구르고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가지 못하니까 불교에서는 '저 언덕을 넘어서 저 물을 건너가세. 같이같이 건너가세.' 하는 뜻으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 것도 역시 그런 뜻이다 이겁니다. 자기의 좋고 나쁘고 한 그 마음, 자기로부터 수북하게 나오는 그 악마 같은 마음, 요만한 것 가지고도 괜히 신경질 내는 마음, 남의 탓을 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는 마음, 이것들이 그냥 배어서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 생전 가도, 오백 생이 가도, 천년만년이 가도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벗어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몸이 내 몸이니 둘이 아닌 까닭에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놓고 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세상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일정례를 올리더라도 마음을 둥글려서 내가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어디다가 절을 해도 바로 자기 주인공에 자기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고깃덩어리에다가 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해서 내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를 잘되게 하려면 우주를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를 조절하려면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라'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요, '말아라' 해서 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인 것입니다. 무슨 누구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보이는 데서 남한테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욕심에 쳐해 있는 거고 상인이 물건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주상 보시를 하되 함이 없이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 지금 과학도 물질 만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린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정신계를 무시한다면 아마도 살기가 급급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적었던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걸 보십시오. 또 화산이 일어나도 과학자들이 그것을 재료로 삼아 연구함으로써 많은 이득이 있었듯이,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해서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과 오고 감이 없는 오신통 자체가 바로 재료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보는 천안통,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팩시밀리, 바로 신족통. 전체의 소리를 듣는 무전통신기, 바로 천이통. 또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어디서 왔는지 과거를 전부 아는 숙명통 컴퓨터가 있는 거죠.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꾸자꾸 현실에 나오는 것을 운명 팔자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여러분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보배입니다.

그러니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야만이 됩니다. 지금 시쳇말로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봐도 도가 아니니라. 이 세상을 모두 다 들어도 도가 아니니라. 또 과거를 잘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속을 뻔히 잘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가고 옴이 없이 대천세계를 다 가고 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그 다섯 가지 오신통에서 벗어나서 오신통의 바퀴를 굴려야만이, 법바퀴를 굴려야만이 바로 누진, 즉 레이더망으로 벗어나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죠. 레이더망이 바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통신하는 거 이 세 가지 소임을 맡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뇌도 안으로도 통신, 바깥으로도 통신, 그리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도 바로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만이 아니라, 두뇌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섭류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데서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모든 물리가 터진다면 아마 망원경으로도 탐험을 못하는 것을 여러분의 천안으로, 바로 마음의 눈으로 세계를 다 볼 수 있으며 세상을 다 볼 수 있으며, 조절할 수 있으며 들을 수 있으며 가고 올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만이, 그저 취직해서 일 다니고 집안에서 살림하고 애 낳고 기르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걸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착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되 그렇게 움죽거리면서 활력 있게 사는 놈이 누구냐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놈이 누구냐? 마음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의 몸을 끌고 다닙니다. '가자' 그래야 가고 '오자' 그래야 오고 '이렇게 하자' 그래야 하지, 하기 싫은 놈의 걸 억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오고 싶어서 왔지 오기 싫으면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만 절이 아니라, 강당만 강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방도 바로 여래의 집이며 여러분의 몸도 여래의 집인 것이며, 어느 한 군데 여래의 집 아닌 자리가 없고 여러분의 한마음 아닌 자리가 없습니다.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듯이 말입니다.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없고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상대성의 원리로서, 삼위일체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도 역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바로 여러분 마음 한생각에 물리가 터지고
모든 것을 항복을 받아서
모두 내줘도 줄지 않고 들여놔도 두드러지지 않는
이런 세계를 파악한다면
삼천대천세계가 한 주먹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유스럽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91년 8월 2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엉이걸이

다향정 캐릭터 차걸이 · 핸드폰걸이

옴자 차걸이는 불교의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옴자 모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제작하였습니다.
옴자를 지니고 있으면 나쁜일을 물리쳐주고 늘 수행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부엉이 걸이는 항상 밤에 눈을 뜨고 있어 집안의 재산을 지켜주고 안녕을 기원해주는 새 입니다. 집안이나, 핸드폰 걸이로 사용하시면, 당신을 항상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목어 걸이는 불교의 4가지 보물 중 한가지로 물에 사는 중생을 구제해 준다고 합니다. 물속의 모든 것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항상 눈을 뜨고 있다하여 수행하는 자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목어를 옆에 두시면, 수행하는 마음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다향정 제품은 100% 수공예 작품이고, 모든제품을
다향정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옴자차걸이 4종류

종 류	가 격	제 조	용 도	기 타
옴자차걸이	33,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노리개	빨강,노랑,파랑,녹색
부엉이걸이(大) 부엉이걸이(中) 부엉이걸이(小)	20,000원 15,000원 10,000원	국내제작 국내제작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목어걸이	15,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부엉이 향낭	15,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방향제	페퍼민트 자연향


목어걸이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묻지마 범죄'는 없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난 달 18일 의정부에서 전철 바닥에 침을 뱉는다고 항의하던 사람과 승객들에게 커터 칼을 꺼내 휘두른 사건과 같은 달 22일 여의도 렉싱턴호텔 부근에서 전 직장 동료와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자 언론에서는 서로 뒤질세라 '묻지마 범죄'란 표현과 함께 발생원인과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어떠한 계기로 '묻지마 범죄'란 표현을 사용하는지 의아하다. 심지어 '묻지마 범죄'를 '선진국형 범죄'라고 표현하는 전문가도 있다. '묻지마 범죄'와 같은 자극적인 언론 보도는 자칫 일반인들에게 범죄의 두려움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이들 사건이 동기가 불명확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자세히 사건의 개요를 분석해 보면 전혀 동기가 없는 것도 아니다. 병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도 쉽듯이, 범죄의 원인도 정확하게 찾아내야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999년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라든가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그리고 2008년 6월 일본에서 발생한 '도리마 살인사건' 등의 예를 들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총기난사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 4월 26일 우범곤 순경에 의해서 경남 의령군 궁류면에서 자행된 바 있다. 당시 사건으로 56명이 숨졌고, 3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데 당시의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평소 술버릇이 나빴던 우순경이 내연의 처와 다툰 뒤 흥분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여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냉철한 시각으로 진단하고, 진단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의정부 사건의 경우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의 손등에 침이 튀자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으면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화가 미친 사건이고, 여의도 사건의 경우도 퇴사한 직장에서 가해자를 왕따 시켰던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두 사건 모두 명백한 동기가 있다.

이를 '묻지마 범죄'로 진단하다 보니 좌절된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화풀이 수단으로 행해진 사건으로 진단하고 있다. 전혀 맞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이들 사건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성 계발'에 등한시한 결과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왕따의 문제는 초·중·고에서나 발생하는 문제로 치부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직장생활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여의도 사건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은 의외로 쉽고 간단할 수도 있다.

어릴 때부터 공부에만 매달리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성 계발'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이제부터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예전에 동네에서 또래들끼리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던 사회성 훈련을 지금은 좀처럼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주류 집단에 어울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거나 외톨이로 지내면서 사회성을 계발할 기회마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성 계발은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도대체 경찰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과연 경찰만의 책임인지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늦장 출동하여 사태의 악화를 막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응당 경찰이 져야 할 것이다. 경찰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사회성 계발과 같은 것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물론 억업된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분출구의 마련과 상담과 치료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칭하는 '묻지마 범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社說

구멍뚫린 조계종 감사 기능

조계종 사찰에서 또 횡령사고가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제 15교구본사 통도사 말사인 밀양 표충사 前 주지 J 스님이 사찰 소유 토지를 종단 승인 없이 불법매각 하고 해외로 도주한 것이다.

J 스님이 불법 매각한 토지는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소재 표충사 소유의 땅으로. 토지 규모도 7만 8천여평에 이른다. 이는 매매 감정가가 약 35억 원 상당 규모로 큰 액수다.

통도사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찰운영 현황 파악을 비롯해 토지매매 관련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조사중이다. 비상대책위는 불법매각 토지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 이외에도 사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우선 사찰 회계장부와 통장 잔고의 차액이 약 2억 원 정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문화재구역입장료 예치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성보문화재 현황 등 사찰 운영 전반에 대한 실사도 계속하고 있다.

물론 한치의 오점도 남김없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종단에는 분명 감사 기능이 있는데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표충사는 통도사의 대표적 수말사다. 입장료 수익이 연간 6억 원에 달한다.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사찰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 승병을 일으켜 국난을 극복한 서산, 사명, 기허 대사를 모신 표충사당이 있다. 또 국보 75호인 청동함은향완, 보물 제467호인 표충사 삼층석탑 등 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산내에는 내원암, 진불암, 한계암, 대원암, 서상암 적조암, 명장대 등 7개의 암자가 있을 정도로 대가람이다. 이런 대표적 사찰이 감사기능이 이 정도니 그 밑에 있는 말사들은 어떻겠는가?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종단은 감사 기능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법정에 간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점유

결국, 이렇게 됐다. 서초구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를 위한 공공도로 점유가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다.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8월 29일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 측에 도로 지하 1000여㎡의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행정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주민의 불편 상황이 지역화합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종교단체인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번 소송으로 지하점용 허가가 인정된다면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돼지만, 지하점용이 취소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사랑의 교회는 지하 건물 공정률 80%, 전체 공사는 20%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비용이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사랑의 교회 측과 서초구청 사이의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종교단체의 대형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행정으로 벌어진 싸움에 결과적으로 피가 마르는 것은 시민들이다. 종교단체의 공공도로 점유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부결됐던 선례들이 존재한다. 모든 영향을 고려해 하지 말았어야 할 지하철 입구를 교회와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을 허가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종교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서가 아니다. 허름한 건물이라도 그 안을 알차게 채운다면 자연스럽게 모이고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다. 사랑의 교회의 처음이 그랬듯이.

사부대중 칼럼

'풍경소리'가 종교선전물이라고?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풍경소리와 기독교계의 사랑의 편지 게시판을 철거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철거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크게 두가지다. 지난 1월부터 활동한 지하철 환경개선 시민 개혁단에서 도출한 종교부착물 정비 의견과 두 단체의 게시판 운영이 종교적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거 지시 등이다.

그리고 열차 이용 환경 시민 의견조사를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 중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선교행위에 종교관련 부착물까지 포함시켜 열차 내에서 안하무인으로 '불신지옥'을 외치는 선교활동과 풍경소리의 활동을 도매금으로 치부하고 있다.

풍경소리는 자비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게 되기를 서원하며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이다. 1999년과 1992년부터 각각 시작된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 운영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에 기여함으로써 지하철이라는 답답하고 황량한 공간의 청량제 역할을 해 온 것을 서울시는 간과하고 있다.

풍경소리는 특정종교의 선전이나 일반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직된 종교관을 강요하는 일을 해 본 적이 없다. 단지 불교단체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선교행위로 분류하는 행정절차의 경직된 사고를 경계한다.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설파하셨던 적이 있다 "사람이 고귀하고, 천함은 그 출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의 활동도 특정종교의 것이라는 선입견이 아니라 그 내용으로 판단되는 열린 마음, 열린 사고의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사회를 이루고자 함이 또한 풍경소리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처장)

발언대

내 삶의 오아시스 '풍경소리'

삭막한 지하철의 문화 아이콘 '풍경소리'가 서울시의 지하철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같은 취지로 운영되는 개신교의 '사랑의 편지'도 마찬가지다. 현재 풍경소리는 철거 사업에 반대해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철거를 반대하며 서명한 누리꾼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ID wondaful〉 지하철타면서 즐겨보는 코너이며 글귀마다 가슴에 와 닿습니다. 평안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ID 한마음〉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글 읽는 재미가 있어서 좋았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철거는 반대합니다.

〈ID remember2009〉 가끔 지하철 탈때면 새로운 글귀는 새로 산 구두처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종교적이기보다는 시끄러운 지하철역 내에서 잠깐의 명상의 시간입니다.

〈ID 김광열〉 풍경소리는 지하철뿐만아니라, 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양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철거해서는 안됩니다.

〈ID mool〉 철거를 결정하신 관계자 분들은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풍경소리나 사랑의 편지를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광고 홍수 속에서 샘물처럼 들꽃처럼 군데 군데 피어 있는 그 글들을 보면 그 삭막하고 피곤한 지하철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실텐데요. 쾌적함을 방해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풍경소리든 사랑의 편지든 종교에 관계없이 마음을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글들입니다. 격려하고 지원하고 감사는 못할 망정 잘 되는 것마저 없애려하다니 공무원들의 머리 속에 있는 시민들은 누구입니까?

〈ID bbangju〉 출.퇴근시간, 지친 심신을 잠시 눈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빈번한 요즘, 사랑의 편지와 풍경소리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는 삶의 오아시스입니다. 철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작대기 風水

풍수지리는 自然現象이다.



자연의 理致를 공부하는 한 分野인 것이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모든 과정들이 因緣과 條件과 理由가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땅과 나의 인연은 시작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살다 죽는 순간까지 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죽어서 땅에 묻히면서도 땅과의 인연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의 八字를 어떤 이유에 의해 땅으로부터 받은 결과이며 잘 사는 것도 땅의 힘으로 부터 받은 선물일 뿐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온화한 들판의 조화로움에 있다. 들판이 어디 그냥 들판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평한 것이므로 남을 부러워 할 필요도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이현당 지음 / 신국판 / 364쪽 / 정가 2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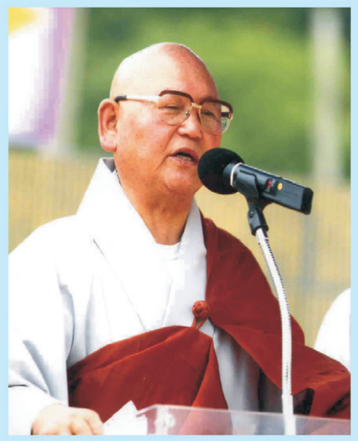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석판고려대장경 한국불교의 세계화 견인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월탄스님



慶讚法語

-8만 고려대장경 석판본 조성에 즈음하여-절언절려絶言絶慮하면 무처불통無處不通이라.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8만 고려대장경을 석판에 새겨서 석장경을 조성한다는 발원은 어떠한 말씀으로도 논할 수 없고 어떠한 생각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와 조사의 보리菩提는 일체의 언어와 문자를 떠났다' 라 하셨는데 오늘의 이 대작불사大作佛事의 발원이 크고 큰 보리심菩提心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무엇이라 설명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심력心力만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체의 소리와 빛에 걸림과 막힘이 없으며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운용運用하지 않으며 일체의 법法을 받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을 대승大乘이라 하는데 오늘의 이 큰 역사役事의 시작은 대승의 도道를 뛰어 넘은 일입니다. 아마도 태고(太古)로부터 있어온 상주 화북땅의 승무산僧舞山은 성지聖地가 될 것임을 산성령山聖靈은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것이며 삼세三世를 뛰어 넘어서 삼계三界의 중생을 영원히 제도濟度할 세세생생世世生生 상근대지上根大智의 본당本堂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천년의 불조혜명佛祖慧命의 성령聖靈이 깃들지 않고서는 만고萬古에 빛날 성지가 될 수 없습니다. 천의天意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기瑞氣가 신상길 이사장님을 인도引導하였고 그 큰 신심信心이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석장경을 조성하도록 발원發願케 한 것입니다. 사람과 하늘로 하여금 함께 증명證明하게 하는 시절과 인연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 일은 천지가 능히 그 모양體을 덮지 못하고 산천이 능히 그 빛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과거 약사여래는 보살행을 닦을 때 12상원上願을 냈고 아미타 부처님은 법장비구 때에 48원願을 내었으며 석가여래 부처님은 보해범지寶海梵志 때에 5백 서원을 내었습니다. 이 모든 願은 다 널리 베풀어 중생을 건지는 큰 서원이었습니다.
오늘의 석장경 조성불사의 큰 서원도 영원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미래세의 중생들을 건지기 위한 발원입니다. 중생의 서원이 보살의 서원이요, 보살의 서원이 부처님의 서원입니다.
이제 신상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은 이 원력 불사가 어길 수 없는 시대적 사명使命임을 주지周知하시고 모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심으로 흔쾌히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운거운래태허하손하익
雲去雲來太虛何損何益
구생구멸거해무차무여
漚生漚滅巨海無次無餘

구름이 가고 구름이 오더라도 허공에는 더하거나 덜함이 없고 / 물거품이 생기고 물거품이 사라져도 바다에는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도다.

대장경불사 상주시민 불자 수희동참

상주불교신도회 회장 이 창 구



인사말씀

존경하는 큰스님,
그리고 지역 기관장님을 비롯한 원근을 불문코 왕림해 주신 귀빈, 상주불교신도 여러분, 오늘 이 행사에 동참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소의 공사를 불문하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마음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주에 고려대장경 석장경을 조성하여 성보관에 봉안하고자 하는 대작불사를 발원하여 5 년여 동안 진행해 왔음에도 저희신도회가 오늘에야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음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석장경 조성의 첫 단계라 할 수있는 석판 각자 즉 석판에 글자를 새겨 넣는 과정을 참관하시고, 지금까지의 과정과, 이후 진행될 전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설명 들으실 이 대작 불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향후 20년에서 25년의 시간을 요하는 것이며, 소요 경비 또한 상상을 초월한 액수입니다. 이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이 불사를 발원하고 진력을 다 하고 있는 신상길 재단 이사장님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이 대작불사의 성공은 우리 상주의 자랑을 뛰어 넘어 국가적 대업이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어른들께서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신심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 불사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여 주고, 모든 이들에게 신심을 고취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 대작불사는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장경조성 위대한 민족자산

사,전사련 총재 각성스님 축 사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히 나투어 국운융성과 온국민의 복리가 증진하시옵길 삼보전에 발원드리며 지역경제 회복과 아울러 하시는 모든일 소원성취 하시옵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큰스님 그리고 지역기관장님 또한 전국불자님! 재단법인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에서는 세계 최초로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및 석판본 경판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려대장경 석판 조성은 한국불교 역사를 새롭게 각인시키고 또한 상주시의 자랑이며 지'역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인기 관광상품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국내최고의 대작불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과 전국불자님!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는 상주시불교 신도회와 더불어 전국불자님들과 함께 고려대장경의 잠재된 위대한 가치를 문화콘텐트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직 넘어야할 벽이 많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막힌 벽을 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고려대장경 석판본 각사 시현 및 조성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수희동참하시어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년의 신비 상주에서 금강반야로 나투다

지난 27일 세계최초 석판본 각자 시현식 열려
(재)고려대장경진흥원, 상주시불교신도회 공동 추진



고려대장경 석판본 각자 견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모형 일부 시공



관계기관 및 전국 불교종단 대표자님들이 보내온 각자시현 봉축 화환

국보제 32호로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팔만대장경(고려대장경)이 천년세월의 침묵을 깨고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에서 석판으로 다시 태어나 한국불교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인 석판대장경 대작불사를 선두지휘하고 있는 재단법인 고려대장경진흥원 유지재단 신상길(75) 이사장은 "고려대장경 석판본 및 성보전시관 건립불사는 한국불교와 세계종교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전국민과 대덕큰스님 그리고 상주시민들의 관심과 뜨거운 성원이 함께 할 때 더욱 그 가치가 빛나는 계기가 될것이다"고 말했다.
고려대장경 석판본 대작불사는 지난 2008년 1월 부터 고려대장경 연구소 이사장인 종림스님과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월탄스님등 학계, 교계, 석학들의 철저한 검토와 고증을 거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한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고려대장경 석판본 및 성보전시관 건립에 대한 기본 프로젝트 계획서를 각계에 널리 권선했다.
고려대장경 석판본 불사는 제1차로 28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며 경판 제원은 두께 4cm 석판길이 160cm, 높이 78cm 크기로 오석돌판에 양각으로 조성되며 활자본에 금박 덧칠 공정을 통해 완성한다.
경판 수량은 162,516장의 석판이 소요되며 총글자수 5천2백만자(字)에 총길이 31.7km 규모로제작된다.



신상길 이사장님은 석판대장경 원만한 불사를 위해 전국민의 관심과 대덕스님 그리고 상주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흔히 팔만대장경은 불교에서 말하는 8만가지 번뇌를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고려시대에 만들었다고 해서 고려대장경으로도 불린다. 한문에 능통한 사람이 읽기만 하는데 매일 8시간식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고려대장경은 고려 2년 현종 1011년에 거란족 침입의 계기로 1029년에 완성했으며 몽고의 침입으로 1232년 소실되었으며 고려 고종 23년인 1236년 부터 16년 동안의 작업 끝에 1251년에 완성한 것이 재조(再雕)대장경이다.
강화도 선원사에 봉안되었으나 외적의 노략질이 심해지자 1398년 해인사로 옮겼다.
이번에 조성되는 석판본 고려대장경은 세계사에 유일무이한 역사적인 전대미문의 대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다. 석판경판을 쌓으면 무려 6502m 로 백두산(2777m) 보다 두배높고 무게는 4875톤으로 4톤트럭 1218대에 나누어 실어야 옮길 수 있는 수량이다
재단법인 고려대장경진흥원 유지재단은 지난 6월 27일 상주시 불교연합회 주최로 고려대장경 석판본 경판각자 시현을 통해 전국 대덕스님과 일반인들에게 세계최초로 공개됐다.
지난 27일 공개된 고려대장경 석판본 경판 각자 시현식은 석판본 대장경의 작업공정과 불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한꺼번에 살필 수 있는 흔치않은 행사로 불교의 심오한 철학과 세계관을 내포하면서도 전체 작업공정 시스템이 무엇보다 과학적이어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전,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서의현 스님은 "고려대장경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방대한 부처님의 종문의 요체를 총 망라한 불법(佛法)의 총체화 이면서 "이번 석판각자 시현식을 계기로 대장경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세계와 민족과 불자와 상주시민에게 새롭게 각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시 불교신도회 시민 대장경불사 박물관 벨트구축 수희동참
지역경제 성장동력창출 한국불교문화역사체험 공간 성지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원로대덕 법주사 종도스님 지대한 관심표명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월탄스님은 대장경 석판본 각자 시현식 경탄법어에서 "고려대장경은 유네스코 기록 세계유산을 넘어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다"면서 "석판고려대장경은 천고(千古)에 빛나는 세계유산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법인 고려대장경진흥원 유지재단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유형,무형 유산의 불교예술문화 특구 조성과 한국불교의 문화체험 공간 이미지를 구축하는 성보전시관을 건립해 역사문화 유적을 중심으로 박물관 벨트를 조성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이사장 윤기순은 인사말을 통해 "전사련 196개 지부종단 단체 대표자들의 석판 고려대장경불사에 물심양면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사대금을 전담하겠다"면서 "고려대장경 불사는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예술공간 창출, 국민참여의 미래지향적 비지니스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 동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대장경진흥원에서는 4년에걸쳐 기획해오던 성보관 건립 마스터플랜이 관계기관에서 허가가 나오는데로 발빠르게 시공할 예정이다.<상주= 윤기순기자>



고려대장경 석판본 각자 시현식 및 조성설명회에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의연스님과 사,전사련 집행부 스님들과 상주시민들이 대거 동참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2010년 4월 조성하여 경내에 봉안한 석가모니 부처님 (높이 4.5m)

